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6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1월 5일)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외국인 스님도 "사찰음식 'NO.1'"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가 12월1일 국내에 거주 외국인 스님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포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출입국 행정 안내'와 '사찰음식 체험'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 외국인 스님들은 연근밥, 모듬버섯 조림 등을 직접 만들며 한국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글= 임은호 기자, 사진= 노덕현 기자**

"캐럴로 공공선교하냐" 불교 폭발했다

불교계, 잇단 종교편향에 누적 공분 격화

문체부 '캐럴 캠페인' 계기로
공공기관 편향 강경대응 확산
조계종 · 불교단체 잇딴 성명
종단협, 청와대에 항의 서한
'예산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문화체육관광부가 기독교 음악인 '캐럴' 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캠페인이 종교편향 논란을 넘어 범불교적 분노로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의 규탄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가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데 이어, 문체부를 상대로 '캠페인 예산집행 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를 비롯한 불교계 단체들도 앞다퉈 성명서를 발표하고 캠페인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어 이 같은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월 29일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 캠페인 추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총연합 등 종교계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국민들이 자주 찾는 커피전문점과 일반 음식점, 대형마트 등 매장에서 캐럴 재생을 활성화해 연말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상파 라디오방송사에 광고를 송출하고 음악 서비스 사업자는 캐럴 이용권 3만장을 제공키로 했다. 저작권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캐럴 무료음원 22곡도 제공된다.

그러나 국민들을 위로하겠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캠페인에 대한 불편한 기색이 적지 않다. 문체부가 특정종교음악에 대한 공식적인 홍보에 나서는 것은 명백한 종교편향적 행정이라는 것이다. 누리집을 통해 무료음원으로 제공되는 22곡 역시 대부분 익히 알려진 캐럴이지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천사들의 노래가' 등 특정종교색을 강하게 띈 곡들로 이뤄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계종은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종교편향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캐럴 활성화 캠페인'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문체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사태는 점차 극단으로 치달았다. 종단협은 1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심각한 종교편향으로 규정하고 회장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긴급회의에는 조계종 기획실장 삼혜 스님과 특보단장 혜일 스님(조계종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 사무처장), 종단협 사무총장 도각 스님, 사무처장 진경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과 천태종, 진각종, 총지종, 대각종 소임자가 대표참석했다. 종단협 회장단은 이날 회의에서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에 대한 범종단 차원의 강경대응을 결의하고 즉시 항의서한을 채택했다. 이어 연계일정으로 오후 5시 30분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비서실 김영문 사회통합비서관에 항의서한을 공식 전달했다.

종단협은 항의서한에서 "문체부에 캠페인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했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확인함에 따라 청와대에 불교계의 우려와 항의의 뜻을 담아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률적 대응을 비롯해 2000만 불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종단협은 12월 1일 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캠페인 예산집행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도 성명서를 통해 "최근 종교편향 정책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체부가 나서 선교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은 노골적인 종교편향 행위와 다름없다"며 "특히 공중파에 이를 강제하고, 예산을 들여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특정종교에 대한 우대이자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불교계 각 기관 · 단체들의 규탄 목소리도 잇따랐다.

포교사단은 11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공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정부기관에서 특정종교 찬송가를 대중화하고 전국에 송출한다는 발상이 문제"라며 "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부처에서 종교차별을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는 12월 1일 입장문을 내고 캠페인 중단과 정부 사과를 요구했으며,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장정화)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해설 3면〉

"탑 부숴 남연군묘 이장"

〈흥선대원군 아버지〉

역사적 사실로 확인됐다

예산군, 12월 2일 가야사지 발굴 결과 발표

옥개석 등 고려~조선 유구 확인
'매천야록' 기록 사실로 밝혀져
"향후 역사문화공원 조성할 것"

예산 가야산 가야사지는 조선시대까지 번성한 사찰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는 고려 나옹화상이 조성한 '금탑(金塔, 석탑이나 상륜부가 반짝거려 붙은 별명)'과 통일신라 철불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데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이 사찰이 폐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매천 황현(1855~1910)이 쓴 〈매천야록〉에서 확인된다.

〈매천야록〉에 따르면 흥선대원군 이하응(1820~1898)은 안동김씨에게서 정권을 되찾아 왕권을 회복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 전국 명당을 찾아다녔다. 그 과정에서 찾은 곳이 예산 가야사였다. 흥선대원군은 마곡사 스님들을 불러 가야사에 불을 지를 것을 종용했다. 당연히 스님들은 "불제자로서 불을 지를 수 없다"고 버텼으나, 흥선대원군의 강한 압박에 어쩔 수 없이 불을 질렀다. 하루아침에 폐사된 가야사는 야사(野史)로만 기록돼 전해졌다.

〈매천야록〉 등에 수록된 예산 가야사 폐사와 금탑 파괴에 대한 기록들이 역사적 사실로 확인됐다.

예산군(군수 황선봉)은 12월 2일 충남도 기념물 제150호 예산 가야사지 제8차 발굴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6차 발굴조사를 진행한 동방문화재연구원(원장 이호형)은 〈매천야록〉에 기록된 가야사 폐사와 금탑 파괴 내용을 토대로, 남연군 묘 주변까지 조사 지역을 확장해 8차 조사를 진행했다.

발굴조사 결과 남연군 묘 이장과정에서 사찰이 파괴됐던 흔적들이 확인됐다. 예산군과 동방문화재연구원에 따르면 발굴을 통해 고려시대 전기부터 조선시대 중기까지에 건립된 건물지, 담장지, 축대 등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다. 특히 남연군 묘역 내에서 확인된 고려시대 전기에 축조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축대와 가구식(架構式) 기단(基壇) 건물지 1동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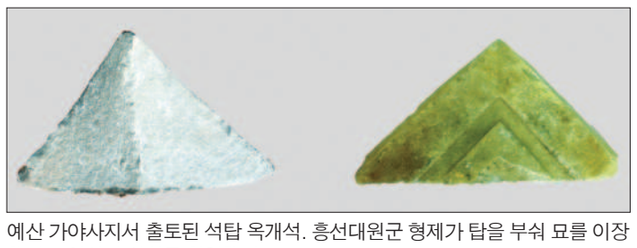
건물지는 기단석 반과 서쪽 계단이 일부 남아 있는데, 조선시대 온돌 건물지에 의해 먼저 훼손되고, 1846년 남연군의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파괴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역 외곽 축대의 북동쪽 경사면에는 석탑 및 건물에 있던 불상 및 석탑 조각과 잘 다듬은 판석(板石) 등 많은 석재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출토됐다. 이는 남연군 묘 이장 과정에서 가야사 석탑과 건물 석재들을 집중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예산군은 "전형적인 신라시대 연화문 수막새를 비롯해 고려 · 조선시대 유물들이 함께 출토됐다"며 "가야사(伽倻寺, 加良岬寺)는 신라 때 창건돼 남연군 묘가 조성되기 이전까지 불사가 계속 이어져 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가야사지와 남연군 묘의 연관성이 확인된 만큼 가야사지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추진하겠다"면서 "향후 역사유적 공원으로 조성해 지역 주민들과 가야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역사문화를 알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예산 가야사지서 출토된 석탑 옥개석. 흥선대원군 형제가 탑을 부숴 묘를 이장했다는 야사가 사실로 확인됐다.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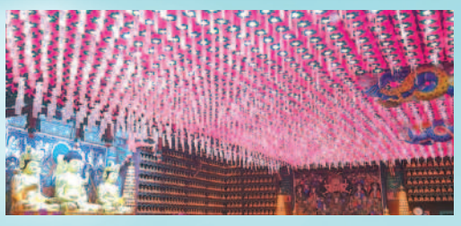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 · 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전국 복지네트워크 가시화…역량 강화 과제

지역복지 살리는 교구 복지법인

1. 교구 복지법인 설립현황
2. 교구 복지법인 의미와 전망
3. 교구 복지법인 모범사례와 과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교구본사 복지법인 설립이 가속화되면서 그동안 중앙집중화로 인한 조계종 복지의 각종 난제들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교구본사 복지법인들이 해당 지역 복지 구심체 역할로 안착될 경우, 지역 기반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운영 효율 강화는 물론, 지역별 사회복지 균형 발전 기반 구축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교구본사 복지법인 설립은 최근 몇 년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복지재단이 직접 수탁한 시설 수가 전국적으로 200개를 넘어서면서, 실질적인 운영 및 관리감독에 따른 어려움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앙에 집중된 행정체계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애초에 복지재단은 기존에 설립된 교구본사 복지법인을 통해 지역시설 분배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기존 법인만으로는 지역적 편차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역 행정체계의 중추 고리인 교구본사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컸다. 기존의 교구 복지법인 상당수가 재정적 한계와 스님들의 관심 부족으로 발전된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복지 허브로서의 교구본사 역량 부족, 교구본사의 교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관리권한 미약, 종단 · 교구본사 · 말사 간 사회복지 연계사업 미흡 등도 추가 문제로 거론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기존 법인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국 교구본사의 추가적인 복지법인 설립을 새로운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각 교구본사의 참여를 독려했다. 교구본사별 법인 설립 가능성을 염두에 둔 현황 점검은 물론, 설립 의지가 있는 본사의 경우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섰다. 그 결과 현재 직할교구를 포함해 14곳에 복지법인 설립의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 본격화돼 설립을 앞둔 곳까지 포함하면 교구본사 총 25곳 중 21곳이 독립 복지법인을 운영하게 된다.

교구본사별 복지법인 설립은 조계종 복지재단에 과도하게 집중된 불교복지 체계가 교구본사로 분산돼 중앙과 교구의 동반 성장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복지뿐 아니라 지역 내 리 내릴 뿐 아니라 지역에서 사찰 신뢰도가 급상승하는 효과도 얻었다"며 "여기에 오랫동안 지역민과 함께한 사찰의 자체적 노력이 병행되면서 지역특성을 살리고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어 이는 지역 화합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구본사 복지법인 안정화로 복지국장 및 전담 직원 등을 채용하는 교구본사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기존 복지법인 역량이 강화되면서 전문적인 사업 진행도 가능해졌다.

최효진 직지사복지재단 과장은 "교구본사 대부분은 전담 인력이 배정되지 않았거나 배정됐더라도 사찰행정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복지법인 업무에 집중키 어려운 실정이었지만, 차츰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담 인력 채용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의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각종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예산도 크게 늘어났고,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복지법인 미설립 교구본사의 경우 법인 설립조건으로 전담 인력 배정을 요청하는 등 인적자원 활용에도 힘쓰고 있다. 이미 설립된 복지법인의 경우에도 상근전문가 인력 배정을 권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8년 설립된 불국사복지재단의 경우 국장 1명과 실무자 1명 등 총 2명이 법인 사무를 전임중이며, 직지사복지재단도 전임직원 2명이 근무 중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보인 스님은 "교구본사 복지법인 설립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접근하는 게 관건"이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계종유지재단 시설의 적극적인 이관 추진과 전문인력 · 전담 사무실 마련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교구본사 복지법인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복지재단 차원에서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가시적인 성과도 과제로 남았다. 교구본사 복지법인들이 보다 확대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종단차원 사회복지사업의 법적 근거인 종헌종법 개정은 물론, 중앙과 지역간 명확한 분담체계가 조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가섭 스님(한솔종합사회복지관장)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실질적 행정 집행권을 갖고 산하 시설 및 기관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기구의 정비와 더불어 종헌과 종령 개정을 통해 그 업무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교구의 차이를 보완하고 그 교구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활성화를 통해 교구본사가 교구 내 사회복지의 조력자 · 매개체로서의 명확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룡 동국대 교수도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교구 인준을 받아 운영하는 가톨릭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교구자치 시대에 부합하는 사회복지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구본사가 설립하는 복지법인이 자체 시설운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닌 교구 여타시설들을 지원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교구 분산으로 중앙과 동반 성장 가능
지역 내 교구본사 입지 다지는 효과도
종헌종법 개정 통한 명확한 업무 분배
교구자치 시대 부합한 복지 전개 필요

사찰도 종부세 폭탄…"불이익 없게 이의신청을"

조계종 재무부 29일 기자회견
법인 주택과세 강화하며 '불똥'
"부과사찰 15일까지 이의신청"

조계종 제3교구본사 소속 A사찰은 부속 토지 등이 있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왔다. 지난해에는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를 포함해 1억 6000여만 원을 납부했지만, 올해에는 변경된 세법에 따라 4억 8000여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 지난해보다 300% 오른 수치다.

조계종 제6교구본사 소속 B사찰은 지난해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사정이 다르다. 농특세를 포함해 15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

역대 최대 규모로 부과된 종부세가 사찰에도 적용됐다. 기존 부과대상인 사찰들의 납부 세금은 최대 12배까지 증가한 경우도 있었고, 신규로 부과된 사찰들도 30~4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재무부(부장 탄하)는 1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 부과 종부세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밝혔다.



조계종 재무부는 1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 대상 종부세 관련 입장을 밝혔다.

사찰 대상 종부세가 대폭 증가한 요인에 대해 조계종 재무부는 "법인(단체)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실제, 주택 부지로 임대하고 있는 사찰 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종부세가 부과됐으며, 올해부터 '6억 원 기본공제 적용 배제'가 시행되면서 신규로 과세 대상이 된 사찰들도 생겨났다. 세율 인상과 세부담상한선 배제도 사찰 대상 종부세 금액이 수직 상승한 요인으로 보인다.

이에 조계종 재무부장 탄하 스님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사찰은 공익법인 등으로 일반누진세율을 적용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 15~30일 진행한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세율 적용 신청'을 하지 않아 신규 · 증액 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찰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은 관련법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히 안내되지 못해 납세의무자인 사찰에 혼란을 초래케 한 정부 당국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나마 종합부동산세 이의신고 기간인 12월 1~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조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인 점이다.

탄하 스님은 "종단은 국세청과 협의해 이의신고 기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경정(취소 및 감액)해 재고지토록 했다"면서 "현재 부과된 사찰의 종합부동산세는 일반누진세율 적용 시 과세표준액 6억 원 이하일 경우 납부 자체가 취소되며, 과세표준액이 6억 원 초과라도 일반누진세율 적용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종단 소속 사찰들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면서 "행정 절차가 어렵다면 총무원 재무부로 문의해달라. 성실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황이지만, 매년 종부세 관련해 종단과 일선 사찰들이 이 같은 몸살을 앓아야 해 관련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세율 적용 신청'을 매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계종 재무부는 "현행 종부세는 비생산적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도입된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사찰의 공익적 역할과 지역 사회 기여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익법인(단체)에 대한 합리적 적용과 전통문화 유지 계승을 위한 전통사찰 적용배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1월 27일 서울 AW컨벤션센터 앞에서 개최된 이사장 사퇴 촉구 법회 및 반대집회.

'성추행 이사장' 4선 사태에 반발 확산

11월 27일 만해예술제서
법진 이사장 사퇴 촉구

(재)선학원 이사회가 성추행 전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법진 이사장을 재선출한 데 따른 반발 여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선학원 소속 분원의 스님과 신도들이 '법진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법회를 봉행하고 법진 이사장의 즉각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선학원 창건주 · 분원장을 포함한 사부대중은 11월 27일 선학원 만해예술제가 진행되는 서울 AW컨벤션센터 앞에서 법회 및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만해예술제는 선학원 설립 100주년 기념법회에 이은 대규모 행사로 선학원 이사 스님들과 정관계 내빈들도 참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회에는 전국 각지의 선학원 창건주 · 분원장과 각 분원 신도 6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경기지역 뿐 아니라, 경남, 강원도, 충청도 등 상당수의 분원이 참여하는 등 예상 인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들은 행사장 입구에서 "성추행범 법진, 만해 스님 욕되게 하지말라" "성범죄 전과자가 선학원 이사장 웬말이냐" "성범죄 이사장에 설립조사 통곡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청정승풍 회복을 촉구했다. 특히 △인적쇄신을 통한 청정승풍 확립 △선학원 100주년을 맞아 창립정신 회복 △법진 이사장의 선학원 일체직책의 사퇴 △대중공의 수렴을 통한 선학원 정상화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선학원미래포럼 심원 스님은 대표낭독한 고불문에서 "여직원 성추행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법진 이사장이 3번의 임기를 채우더니 또다시 4선 이사장의 자리에 앉았다"며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2021년 오늘, 우리 선학원은 실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참담함을 전했다.

송지희 기자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대, 올해 118명 졸업

아름다운동행, 11월 26일 졸업식
개교 5년차…총 240명 인재 배출

개교 5주년을 맞은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 세 번째 졸업식을 갖고 118명의 농업 인재를 배출했다.

조계종이 설립한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은 11월 26일 탄자니아 현지에서 졸업식을 진행했다.〈사진〉 올해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졸업생은 118명이다. 현재까지 배출된 240여 명의 졸업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탄자니아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활동 중이다.

이날 졸업식은 축하공연으로 시작해 인사말씀, 축사, 졸업장 수여, 기념 촬영 등으로 이루어졌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 문수사 주지 태성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과 아름다운동행 탄자니아 지부 법인처장 성현 스님이 참석해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앞날을 격려했다.

졸업식에서는 지난 5년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에 재임하며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학교 발전을 위해 힘쓴 교사 3명의 퇴임식도 함께 진행됐다. 학생들은 아리랑 노래에 맞춰 특별공연을 펼쳐 감동을 더했다.



수석 졸업으로 상장을 받은 소피아 아바스(Sophia Abas)는 "지난 3년 동안 우수한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졸업 후에도 학업을 이어가 보리가람농업기술 출신의 농림부 관료가 되는 게 꿈이다. 한국어 공부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졸업식 후에는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르에스살람 세종학당 현판식도 진행됐다. 세종학당은 11월부터 20명 정원 2개 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글과 한국 불교문화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개교 5년을 맞은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은 매해 발전을 거듭하며 현지에서 인정받는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으며 한국불교 위상도 높이고 있다. 특히 신규 지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르에스살람 세종학당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한글 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 2016년 개교 후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이번에 세 번째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었다"며 "한국 후원자들의 꾸준한 지원 덕분이다. 앞으로도 지구 반대편에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문단은 졸업식에 앞서 아름다운동행이 2014년부터 8년째 진행하고 있는 해피론 사업장을 방문했다.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인근에 있는 므와송가 초등학교 1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축구공과 배구공을 선물하고 직접 옥수수죽과 빵을 배식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했다.

아름다운동행에서는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운영비와 장학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고시위원회 승가고시 일정 확정

11월 29일 공고

내년도 조계종 승가고시 일정이 확정 · 발표됐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수진)는 11월 29일 '불기 2566(2022)년도 각급 승가고시 일정'을 공고했다.

조계종 교육원이 정한 행자교육과정을 이수한 행자들이 응시할 수 있는 5급 승가고시는 상 · 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상반기는 내년 3월 4일, 하반기는 8월 28일에 치러진다. 장소는 12월 중 공지될 예정이다.

조계종 교육원의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미 · 사미니가 응시하는 4급 승가고시는 내년 3월 11일 중앙승가대에서 진행된다. 3급 승가고시는 4월 8일 중앙승가대에서 치러진다. 2급 승가고시는 내년 9월 30일 중앙승가대에서, 1급 승가고시는 3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은 "각급 고시일정은 코로나19, 사회재난, 자연재해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사 · 마을센터, 상생공동체로"

12월 2일 임직원과 첫 상견례
지현스님, 센터장 임명장 수여



"조계사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상생의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조계사(주지 지현)가 새롭게 수탁운영을 시작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임직원들과 12월 1일 첫 상견례를 갖고 "상생과 화합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사진〉

상견례는 미래청 2층에서 진행됐으며, 운영기관과 시설간 상호협력과 운영활성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현 스님은 손우정 센터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직원들과 함께 공동체 사업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명장과 함께 친필로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상견례 현장에서 센터 임직원들은 새 운영기관인 조계사를 향한 더없는 신뢰와 기대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임직원들은 지현 스님에게 직접 쓴 손편지를 통해 "어려운 시기 기꺼이 마을센터와 함께하기로 결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공동체의 힘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길 기대한다.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진심어린 마음을 전했다.

송지희 기자

수십년 반복된 종교편향…"더는 못참겠다"

[진단] 불교계 이례적 반발…성난 불심 이유는

문체부 '캐럴 캠페인' 계기로
불교계 전방위 강경대응나서
단일 사안 넘어 상황직시해야
국립 합창단 · 가톨릭 성지 등
누적돼 온 여러문제들 연장선
정부차원 근본적인 고민 필요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향한 범불교 차원의 규탄 여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캠페인 중단을 위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캠페인 예산집행 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불교계 각 기관 · 단체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규탄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여론이 결집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불교계로서는 다소 이례적인 모습"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동안 불교계는 공공기관의 종교편향을 비롯한 각종 불교폄훼, 훼불사건 등과 관련해, 일시적인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수준에서 대응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그동안 수없이 반복된 종교편향과 불교폄훼로 인해 누적된 성난 불심이 '문체부의 캐럴 캠페인'을 계기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단순히 '캠페인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넘어서, 공공기관과 우리사회에 만연한 종교편향과 불교소외, 불교폄훼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우리사회가 이러한 규탄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올해만 해도 불교계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재 관람료 폄훼 발언과 국공립합창단의 종교편향성, 불교폐사지에 가톨릭성지 덮어씌우기 의혹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논란이 됐지만, 단 한건도 속시원한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

특히 정청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징수사찰을 '봉이김선달'로 매도해 논란을 빚었고 불교계의 반발에 뒤늦게 사과방문을 했지만, 이로 인해 폄훼된 불교이미지 실추 및 명예훼손에 따른 상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국립합창단의 종교편향 논란과 천진암과 주어사 등 사찰터에서 진행되는 가톨릭 성지화로 인한 논란 역시, 이미 수년전부터 지적됐던 사안이 다시 불거졌음에도 이렇다 할 변화를 이끌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조계종은 11월 26일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종단 역량을 결집해 관련 사안에 대해 총체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누적된 불교계 민심이 '캐럴 캠페인'을 계기로 "이제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실제 11월 30일 진행된 종단협 회장단 긴급회의에서는 "수없이 반복되는 종교편향 문제를 멈추기 위해서는, 제2의 범불교도대회까지 염두에 두고 강경대응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종단협 사무처장 진경 스님은 "긴급회의에서 그동안 불교계가 너무 점잖게 대응해 왔기 때문에 종교편향 사안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왔다"며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범종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하기로 결의했고 이를 통해 불교 차원에서 큰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종단협이 12월 1일 항의서한을 채택해 청와대에 전달한 데 이어, 문체부를 상대로 법원에 '캠페인 예산집행 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까지 불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종단협은 특히 항의서한에서 "국공립합창단의 종교편향 공연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재관람료 왜곡 및 사찰비하 발언 등으로 불교계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아 왔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발생한 '캐럴 캠페인' 추진사태는 일련의 종교편향 사건들과 함께 공공기관에서 조직적인 종교편향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체부가 불교계의 종교편향성 캠페인 중단요구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규탄 분위기에 불을 지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사안은 논란 초기 "종교편향적 행정이긴 하지만 캐럴도 문화의 범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문체부가 종교편향 논란에도 "올해만 진행하겠다"며 사실상 이를 강행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종교편향 및 불교폄훼에 대응하기 위한 이 같은 불교계의 변화는 이미 지난해부터 서서히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남양주 수진사 기독교인 방화사건이 대표적이다. 종교평화위원회는 당시 이례적으로 기독교계를 직접 겨냥하며 "불교계는 그동안 사회 안정과 종교 평화를 위해 한없는 연민과 자비심으로 인내해 왔지만 성숙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고통을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앞으로 훼불 사건을 용인하지 않음은 물론 근본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종단협 역시 올초 이사회에서 종교편향 및 불교폄훼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결의했다.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1단계 단발성 · 경미한 사안 2단계 훼불사건 및 공공시설 편향 및 조직적 사안, 3단계 중대한 편향 및 훼불사건 등으로 단계별로 분류하고 사무처 대응, 회장단 종단 연대, 이사회 소집 등으로 단계별 논의 구조를 확정했다.

'자비와 포용'의 종교로 그동안 숱한 차별을 감내해 왔던 불교계가 반복적인 종교편향과 불교폄훼의 고리를 끊기 위해 대응의 강도를 높인 상황에서, 이번 문체부의 '캐럴 캠페인' 논란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대변화 속 불교대안 제시 '안심불교포럼' 출범

11월 29일 안심정사 주도 범불교지성인모임

태고종 지도자급도 대거 참여
이사장 이기수 前고려대 총장
양당 대선후보 캠프서도 축사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불교중흥과 사회적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불교지성인모임'이 탄생했다. 안심정사를 주축으로 첫 출범한 '안심불교포럼'은 각 분야 전문가와 정관계 인사, 불교계 리더급이 합류한 범불교네트워크로 주목된다.

안심정사(회주 법안)와 안심불교학술원은 11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안심불교포럼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안심불교포럼은 법안 스님을 법주로 모신 가운데, 이사장 이기수 前고려대총장과 사무총장 홍승기 안심위클리 사장, 안심정사 주지 혜신 법사를 중심으로 첫 행보를 시작한다.

정치 · 사회 등 각 분야 리더들이 참여하는 포럼이 태고종을 주축으로 창립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향후 안심불교포럼이 어떤 역할을 할지 여부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특히 창립기념식에는 유력 대선후보 캠프에서도 잇따라 축사를 전해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불교지성인모임 '안심불교포럼'이 11월 29일 출범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포럼에는 태고종 원로의장 도광 스님과 총무원장 호명 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 호법원장 혜일 스님을 비롯한 태고종을 이끄는 주요소임자 스님들이 참여했으며, 특별초청법사로 조계종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도 참여했다.

또 정관계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재명 대선후보 비서실장),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윤석열 캠프 선대위원장) 등이, 학계는 정병조 前 금강대 총장, 선경 고려대 의대 교수, 김흥주 원광대 교무처장, 송현옥 세종대 교수 등이, 언론계에서는 남영진 KBS이사장, 김주일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기념식에서 법안 스님은 "중도와 원융회통으로 시대적인 과제들을 함께 풀어가면서 사부대중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송지희 기자


108배 릴레이 기부 캠페인 출범법회에서 고불문을 낭독하는 사부대중의 모습.

동국대 108배 기부릴레이 캠페인 'START'

11월 30일 정각원서 출범법회 봉행
윤성이 총장 등 108배로 성공 기원

동국대(총장 윤성이)가 108배 릴레이 기부 캠페인을 본격 시작했다.

동국대 대외협력처(처장 김애주)는 11월 30일 교내 법당인 정각원에서 '108배 릴레이 기부 캠페인 출범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윤성이 동국대 총장,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 정각원장 진명 스님 등 사부대중 40여 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고불문을 통해 "오늘 시작하는 '108배 기부 릴레이'는 기도와 기부를 통해 보시행을 실천하고, 권선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는 동국의 새 인드라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들은 캠페인의 성공을 기원하며 부처님 전에 합동 108배를 올렸으며, 108배 직후에는 윤 총장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2000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 후에는 권선 메시지를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 박대신 동국대 총동문회장 등 6명에게 전달하며 장학금 기부를 독려했다. 두 번째 주자부터는 각 3명씩 지목하는 방식으로 릴레이를 이어 나간다.

신성민 기자

"특정종교 아닌 공공성지 돼야"

11월 29일 비구니회 포럼
발제자들 한목소리로 제언


전국비구니회가 11월 29일 개최한 포럼.

"여러 종교의 역사적 경험이 서려있는 장소는 특정 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주어사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공존형 종교성지 조성을 통해 불교나 천주교의 일방적 기억만을 강변하는 장소가 아니라 모두 함께 종교 · 문화적 공감대를 이루는 공공성지로 거듭나야 한다."

불교사찰터에 가톨릭성지를 조성해 '역사 덮어씌우기' 논란의 중심에 선 주어사 · 천진암과 관련, "특정종교성지가 아닌 공공성지로서 공존과 상생의 장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가 11월 29일 개최한 '천진암과 주어사의 올바른 역사계승을 위한 포럼'에서 발제자들은 "특정종교의 전유물이 아니기에 공공성지로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박종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는 '조선시대 유교와 불교의 문화적 공존과 상생의 양상_불교사찰의 문화적 공공성을 중심으로' 발제를 통해 중첩된 종교 공공성지화를 제언했다. 박 교수는 "특정종교의 종교성지가 아닌 포용과 공유의 공존형 종교성지가 바람직하다"며 "공공성지는 종교적 보편성은 물론, 문화적 공공성을 상기시키는 장소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승훈 원광대 HK연구교수도 "종교사적으로 봤을 때 이 장소는 결코 특정한 제도종교가 독점할 수 없는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며 "한국종교의 공공성지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주어사와 천진암에서 일어난 일은 불교적인 장소에 유교인의 정체성을 가진 행위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이 장소는 한국종교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종교전통 사이의 교류가 새로운 종교사적 도약을 이뤄낸 종교화합의 현장으로서 기억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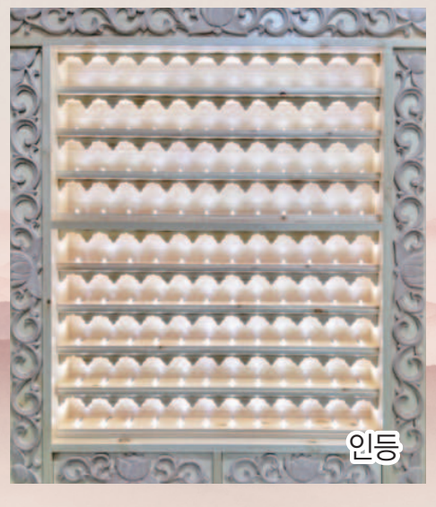
불사용품 전문기업
금륜사
30년 축척된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철저한 품질관리와 애프터 서비스로
맞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수미단 · 닫집



영단


윤장대 · 인등


인등


인등


인등 시공사례

상월결사 정신 대중이 함께 잇는다

수국사, 11월 27일 특별정진 개최

템플스테이관서 매주 토 운영
스님들과 함께하는 묵언 정진
봉은사도 상월템플스테이 진행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엄동설한 천막정진을 통해 한국불교 중흥의 기치를 들었던 상월결사의 정신이 동안거 기간 수국사 열린선원에서 이어지고 있다.

서울 수국사(주지 호산)는 11월 27일 동안거 결제에 맞춰 템플스테이관인 월초당에서 재가자들의 특별정진을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정진은 수국사에 방부를 들인 스님 9명과 재가자들이 함께 수행하는 자리다.

현재 수국사에는 동안거 입재일인 11월 19일부터 상월선원 천막결사 당시 선원장이었던 무연 스님을 비롯해 당시 지전 재연 스님, 만행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 등 스님 9명이 정진하고 있다. 이들 스님들은 월초당에 천막결사 때의 1인용 텐트를 설치하고 결사 당시와 같은 1일 1식, 묵언 수행으로 정진하고 있다.

이번 특별정진은 수행을 통한 포교전법 차원에서 입방 스님들이 안거기간 매주 하루 재가자들을 이끌고, 정진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특별정진은 안거 해제까지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1시, 오후 2시부터 5시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오전 정진에는 36명, 오후 정진에는 25명의 재가자들이 참여한다.

짧은 시간의 정진이지만 참여 재가자들의 자세는 진지했다.

상월청년회 1기인 지암 이윤석 씨(27)는 "청년회 활동 중 아홉 스님 영화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삼보순례 1일 참여도 하며 천막결사에 더 관심을 갖고 찾아보게 됐다"며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불교가 전법 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 스스로도 주말에 틈틈이 수행하고, 이를 주변에 알리기 위해 이번 정진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11월 27일 수국사 월초당에서 열린 특별정진에서 주지 호산 스님이 재가불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여여심 박건효 씨(27)도 "청년회 친구들과 함께 템플스테이를 하며 수행에 관심을 갖게 됐고, 친구 추천으로 특별정진에 참여하게 됐다"며 "매주 토요일 하루지만 마음을 여유롭게 하는 방법을 스스로 체득하고자 한다. 앞으로 청년불자들이 함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7일 진행된 특별정진에서는 처음 정진하는 이들을 위한 습의과정이 진행됐다. 입승 스님은 가부좌로 앉는 것부터 선정인 모양, 허리와 가슴 등 자세 등을 설명했다. 또 좌선 후 포행 등 전체적인 정진 과정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습의 후에는 스님들과 함께하는 정진이 이어졌다.

수국사 신도인 보설심 김옥희 씨(60)는 "천막결사 당시 상월선원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면서 스님들 수행을 멀리서 보며 수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며 "주지 스님이 오시면서 템플스테이가 진행되고, 수행의 자리도 만들어져서 너무나 좋다. 항상 오는 수국사지만, 깊은 산중사찰에 와있는 것처럼 새로운 기분도 들고, 스님들과 함께 정진하며 더 깊은 신심이 나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주지 호산 스님은 "수국사 안거는 주지 소임 등으로 선원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도반 스님들과 새로 만든 월초당에서 정진하면 어떻겠냐는 뜻을 모아 이뤄졌다"며 "불교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재가자들이 정진하는 스님들과 함께 정진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생각했다"고 이번 특별정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특별정진에 20대 30대 청년들이 함께하는 것에서 한국불교의 희망을 느낀다. 선수행은 스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것"이라며 "선에 대해 거리감이 있던 이들도 스님들과 같이 한철 수행을 하게 되면 보다 가까워 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번 특별정진은 안거기간 총 12회 진행되며, 1월 8일에는 충주 석종사 조실 혜국 스님을 지도법사로 정진이 진행된다.

한편, 서울 봉은사도 동안거 기간 동안 상월선원 템플스테이 수행정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위드코로나로 인해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2박 3일 참선집중수행이 진행된다. 봉은사 매화당 뒤 10개 텐트 중 1동은 지도법사 스님이 상주한다.

"호국불교 전통 이어 군포교 역사 만들어 가겠다"

군종교구, 11월 30일 53주년 법회

계룡대 홍제사 불사 원만 회향 염원

국토방위의 사명을 다하며 장병들을 위한 군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육·해·공 군승들을 격려하고,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일)는 11월 30일 국방부 원광사에서 '제53주년 군승의날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순직 군승 합동추모재'로 시작된 기념법회에는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을 비롯해 초대교구장 일면 스님, 2대교구장 자광 스님, 4대 교구장 혜자 스님, 예비역 법사단장 법일 스님, 국군불교총신도회 사무창장 이경구 장군, 예비역불자회장 박대섭 장군, 현역 중령이상 선임군승과 예비역 군승, 불교계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각군 선임 군승 150여 명은 온라인 플랫폼 zoom으로 동참했다.



제5대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사진 왼쪽)이 군종교구기를 힘차게 흔들고 있다.

기념 법회는 지난 7월 코로나19로 봉행하지 못한 '제5대 군종교구 출범 선포식'도 겸하는 법회로 진행됐다. 5대 교구장 선일 스님은 4대 교구장 혜자 스님으로부터 군종교구기를 이양받았다. 혜자 스님은 군종교구기를 건내며 호국 홍제사 불사가 원만히 성취되기를 축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모든 군승과 군종교구 구성원들은 호국불교 정신을 계승함은 물론, 당면과제인 포스트코로나 시대로의 변화를 효과적이고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군종교구 원력으로 지난달 개관한 계룡대 교육관에 이어 한창 건립 중인 군불교 총본산 호국 홍제사 불사의 원만한 회향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은 봉행사에서 현역 군승 법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육해공군 합동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불사 현황을 설명하고 "전법과 대작불사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것은 창조신이 아닌 바로 여러 불자들의 원력"이라며 "하루속히 불사가 잘 이뤄져 군 가족과 장병들이 함께 법회를 보는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청년회는 11월 27일 제39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열고 불법홍포를 다짐했다.

불자 청년 2년 만에 하나로 뭉치다

대한불교청년회, 11월 27일 전국불교청년대회 개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장정화, 이하 대불청)는 11월 27일 용인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창립 101주년 기념 제39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하나 된 마음 하나 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회에서 청년불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연대함으로써 정토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다짐했다.

이날 식전행사로 '노래패 우리나라' 가수 백자의 인물 콘서트 '만해를 노래하다'가 진행되었고 만해 스님의 시와 작품으로 만든 10여 곡 중 '청년불자의 노래'는 큰 호응을 받았다.

본 행사에서는 모범 불청인 시상식이 진행됐다. 올해 불청대상에는 강원지구 임학송 불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자랑스런 불청선배상에는 김춘길 자문위원, 최우수지구상에는 강원지구, 최수우지회상에는 경기지구 대승원청년회가 선정됐다.

우수지구에는 조계사청년회, 우수지회에는 서울지구 만해불교청년회, 우수회원상에는 강원지구 강릉불청 김금철, 우수회원상에는 강원지구 원주불청 원기표 등이 수상했다.

청년불자 결의문 발표에서는 대불청 회원 자녀들이 청년불자 의지를 모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불청대회 화합의 장에서는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이 진행됐으며, MC영준의 진행 하에 지도법사 스님들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도 진행됐다.

한편, 제39차 전국불교청년대회 이튿날에는 대불청 '역사바로알기운동본부'와 경기지구 주관으로 주어사지 낡은 연등 교체작업이 진행됐으며, 결의문을 통해 주어사지를 종교평화와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결의를 세웠다. 노덕현 기자

진흥원, 군종교구에 지원금 7000만원 전달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이 군포교 진흥을 위한 지원금을 쾌척했다.

진흥원은 11월 29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일)에 군포교 진흥 지원금 7000만 원을 전달했다. 지원금 전달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한구 진흥원 이사장은 "청년 장병들에게 명상, 참선수행 등 차별화된 불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청년불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진흥원은 매년 군 포교 진흥기금으로 1억 원 내외를 전달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불자학생들 헌혈로 영호남 화합

영호남 불교 종립학교가 '국민통합 생명나눔' 실천에 나섰다. 학교법인 정광학원(이사장 덕문) 산하 정광고와 학교법인 동곡학원(이사장 태관) 선화여고는 11월 27일 화엄사 화엄원에서 양교 학생들이 기부한 헌혈증서 300매를 전달했다.

이날 기증된 헌혈증서는 광주와 경북지역 환우들에게 전달된다.

이번 헌혈증 전달은 코로나19로 헌혈이 중단되며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의료계 상황을 듣고 수능을 마친 양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헌혈하며 이뤄졌다. 정광고는 2013년부터 매년 학생들이 헌혈에 나서 지역 백혈병 소아암 환우를 지원하고 있었다. 올해까지 기부한 헌혈증은 총 4523매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고종 광주전남 종무원장에 월인 스님



태고종 광주전남교구 종무원장에 광주 법륜사 주지 월인 스님<사진>이 재선출됐다. 광주전남교구 종무원은 12월 1일 광주 서구 운천사에서 제130차 교구지방종회를 열고 제17대 종무원장으로 단독 입후보한 월인 스님을 만장일치 선출했다.

월인 스님은 당선소감을 통해 "종도와 함께하는 종무행정과 화합된 집행부를 만들어 교구발전과 태고종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문화사업단, 독일에 韓'사찰음식' 알리다

사찰음식 1호 명장 선재 스님 강의

현지인 "흥미로운 미식 여행" 소감

한국의 사찰음식이 독일 인플루언서의 미각을 사로잡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11월 26일 독일의 인플루언서 및 음식 관련 저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사찰음식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개최했다.

한국관광공사 프랑크푸르트 지사와 협업한 이번 강의는 '선재 스님과 함께하는 한국 사찰음식 만들기'를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 줌으로 이뤄진 강의에는 독일 인플루언서와 채식협회 회원, 음식 관련 저널리스트 등 총 50여 명이 참여했다.

강의에서는 사찰음식 전문가 스님이자 사찰음식 1호 명장인 선재 스님이 호두 재피 고추장 무침, 버섯 된장 채소볶음, 감자찜, 감자 옹심이의 총 4개 메뉴를 선보였다.


한국 사찰음식의 특징을 줌에서 설명하는 선재 스님.

선재 스님은 "사찰음식은 단순히 채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채식이라는 기본 바탕에 수행과 생명존중, 건강의 의미도 담겨있다"며 한국 사찰음식의 특징을 설명했다.

이어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나를 만든다. 좋은 음식이란 자연에서 오며, 모든 생명이 행복해야 스스로가 행복한 것"이라며 "모든 음식이 약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내가 먹는 음식을 대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경주캠 "장기관점서 이전 검토"

캠퍼스이전추진위원회 11월 30일 첫 회의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지역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 방안으로 캠퍼스 이전을 고심하고 있음이 재차 확인됐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11월 30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캠퍼스이전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캠퍼스이전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중순 경 위원들이 선임되고 운영에 들어갔으며, 이날 회의서는 그동안 연구됐던 캠퍼스 경쟁력 강화·이전에 대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특성화 및 학사구조 운영 방안,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활성화, 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한 입시홍보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캠퍼스 이전 논의는 지난 1월 19일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 감사 보고에서 "장기적으로는 경주캠퍼스 일부 또는 전부를 옮겨 학교의 경쟁력을 마련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면서 본격화됐다. 여기에 학생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학생회는 감사 보고 발표 직후인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97.8%가 캠퍼스 이전을 찬성했다.

원종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전추진위원장은 "현재 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유치와 잘 되는 분야 및 필요한 분야로 학사구조 개편 등 성과를 내고 있으며, 지자체 상생협력 방안 제시 등 당면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면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캠퍼스 이전 계획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내년 20돌 맞는 템플스테이, 지평 한 뼘 더 넓히겠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 11월 30일 연말 기자회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이 11월 30일 열린 연말 기자회견서 올해 사업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내년 참가자 600만 명 돌파 ‘눈앞’
20주년 맞아 대국민 행사 준비 중
코로나에도 템플스테이 인기 ‘여전’
의료진 · 소외계층 품고 ‘공익성’ UP
사찰음식 강좌, 해외서도 수강 러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0월 13일 열린 문화사업단과 외교부 협약식.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통한 공공외교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사찰간식 도시락을 만들고 있는 스님과 불자들. 사찰음식 나눔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진행됐다.



르 꼬르동 블루 런던 분교 학생들에게 화상으로 강의하는 법송 스님. 르 꼬르동 블루에 사찰음식이 올해 처음 정규과정에 편성됐다.

“내년 2022년은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탄생한 템플스테이가 곧 어엿한 스무 살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지금까지 성장해온 이러한 밑거름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평을 한 뼘, 한 뼘 넓혀가려고 합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11월 30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 문수실에서 개최한 연말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은 소회를 이 같이 밝혔다.

원경 스님이 밝힌 올해 사업 성과는 코로나19 유행에도 고무적이다. 스님은 “올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하 문화사업단)은 총 4만 7000명을 대상으로 공익활동을 펼치며 대국민 힐링과 치유에 앞장섰다”면서 “의료인과 소방관, 방역 관계자를 비롯해 소상공인과 여행업계, 문화예술계 종사자에게 토닥토닥과 쓰담쓰담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1만 2000명에게 무료 템플스테이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에 접어든 11월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위드 코로나 특별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며 3만 5000명에게 너른 산사에서 지친 일상을 쉬어갈 수 있게 했다”면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은 이동과 여행의 제약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를 넘나들며 더욱 주목받고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익을 위한 사회공헌 템플스테이는 문화사업단의 중요한 사업이다. 문화사업단은 올해 3월부터 코로나19 대응 의료인과 방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3박 4일간 ‘토닥토닥 템플스테이’와 소상공인 및 문화예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1박 2일 ‘쓰담쓰담 템플스테이’를 무료 제공한바 있다. 6월부터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및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1박 2일 템플스테이 참가비의 30%를 할인하는 인센티브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있다.

‘사찰음식’을 활용한 사회 공익사업도 호응이 좋았다. 문화사업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운영한 ‘사연따라 찾아가는 사찰음식 온라인 수기 모집’은 준비한 수량이 거의 소진될 만큼 많은 사연이 쇄도했다. 이에 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 도시락 및 간식 수량을 늘려 더 많은 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원경 스님은 “내년에 코로나19의 극복이 이뤄져도 일상으로의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국민들의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사회 공헌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나눔 사업을 내년에도 확대 ·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면이 트렌드가 된 만큼 온라인 홍보를 강화한 것도 올해의 주요한 성과다. 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 유튜브 강의, 템플스테이 체험 영상과 ASMR,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템플스테이 여행 코스 개발과 사찰음식 챌린지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의 건강함을 알렸다.

유튜버와 비건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사찰음식 체험 등 집에서도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콘텐츠를 확대해서 선보인 점도 눈길을 끈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웹툰과 음원을 개발했으며, 템플스테이 홍보관도 비대면 시대에 맞도록 리뉴얼해 개관했다. 이에 대해 원경 스님은 “웹툰과 음원은 현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정 작업을 거치고 있다. 완성되면 곧바로 대중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사업단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여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방 공항과 각 지역을 잇는 템플스테이 여행코스 개발, 템플스테이 외국어 통역의 인력 양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서울국제 관광박람회와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하는 등 전국 130여 개 템플스테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성과를 인정받았다.

원경 스님은 2014년 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소임을 맡으며 템플스테이 사업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17년 단장에 취임하며 템플스테이를 통한 전통불교문화 우수성을 알리는 데 매진해왔다. 스님은 “8년이라는 시간동안 수많은 발전과 변화를 지켜봤지만 올해가 가장 사업단의 저력을 보여준 해”라고 자평했다.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등 문화사업단의 사업이 우리나라를 넘어 해외에서까지 관심과 주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문화사업단은 세계 3대 명문 요리학교로 손꼽히는 르 꼬르동 블루 런던분교와 협력해 국내 최초로 사찰음식을 정규과정에서 강의가 이뤄지도록 했다. 미국과 영국의 한국문화원, 관광공사 해외지사와 연계해 사찰음식 조리법을 강의하고 체험을 지원하며 사찰음식의 세계화와 대중화에 기여했다.

지난 10월 13일 외교부와 협약을 맺고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통한 공공외교 활성화를 추진키로 한 것도 주요한 성과다. 당시 협약식에는 문화사업단 운영위원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협약을 통해 문화사업단과 외교부는 국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공공외교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체험 및 정보를 서로 간에 적극 제공하며, 국제기구와 주한 공관과의 교류 활동에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비롯한 한국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 콘텐츠도 홍보 · 제공키로 했다.

원경 스님은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요리사와 지망생이 모인 르 꼬르동 블루에서 우리의 사찰음식을 그들이 배웠으며, 정규과정 안에 당당하게 자리 잡았다”면서 “외교부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더욱 다양한 나라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보여줄 통로를 넓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는 문화사업단은 일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 중이다. 원경 스님은 “내년 템플스테이 국내외 참가자 6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행사를 비롯해 사회 공익 템플스테이 강화, 해외 기관과의 협력사업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템플스테이가 이처럼 성장할 수 있던 것은 국민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행사도 마련하려 한다. 구체적 계획은 내년 1월 중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말미, 원경 스님은 이제 성년이 되는 템플스테이에 애정과 관심을 당부했다.

“모두를 위한 치유와 힐링, 살면서 한 번쯤 반드시 체험해봐야 하는 한국의 전통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템플스테이를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사업단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불교교육대, 위령재 · 캠페인 열어

코로나 · 자살 등 사망자 위령대재
자살 · 교통사고 없는 부산만들기
연탄 1만장 아시아 공동체학교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불교교육대학은 11월 27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앞 서면문화로 특설무대에서 '코로나19 · 자살 · 교통사고 사망자를 위한 위령대재'와 '자살과 교통사고 없는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합동 캠페인'을 개최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은 11월 27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앞 서면문화로 특설무대에서 '코로나19 · 자살 · 교통사고 사망자를 위한 위령대재'와 '자살과 교통사고 없는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합동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위령대재 및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전 세계인의 넋을 위로하고 자살 및 교통사고를 예방해 생명가치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화엄승가회가 공동주최했으며 서해 흥교 대종사의 증명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위해 화엄승가회를 비롯해 화엄승가회 소속 27개 사찰,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창회, 부산불교교육대학 총학생회, 부산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회,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산교수불자연합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등 민관교계 9개 단체가 동참했다.

캠페인에는 학장 범혜 스님,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을 비롯해 소속 스님들과 장준동 부산불교교육대학 부학장, 권혁란 부학장, 서병수 국회의원, 박수영 국회의원 등 동참 단체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1부 합동천도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 이수자 스님들과 화엄승가회 스님들이 전통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내빈들과 불자들은 불단에 헌화하고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아울러 부산불교교육대학 수어반이 동참해 수어 위령가를 선보였다.

2부 기념식은 △삼귀의 △발원문 △내빈 및 참여단체 소개 △대회사 △격려사 △축사 △법문 등이 이어졌으며 자비연탄나눔 전달식 및 부산불교교육대학 전법대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자비의 연탄 1만 장을 아시아공동체학교에 전달했으며, 신만주 부산불교교육대학 31기 회장이 전법대상을 수상했다.

3부에서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이날 행사에 참여한 스님들과 불자들은 부산 대표 번화가인 서면 일대와 부전시장 주변을 행진하며 자살 예방을 위한 피케팅을 진행했다. 피케팅에는 '괜찮니? 손잡아 줄게'라는 문구를 담았으며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수칙'과 '자살예견신호 및 대처방법'이 담긴 전단지 5000여 장을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서해 흥교 대종사는 "불교는 지혜의 바다, 법해(法海)이다. 생의 집착은 근본이 번뇌이며 어두움이다. 어두운 세상을 뚫고 세상을 밝히는 아침 해와 같이 넘쳐나는 지혜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가득 찬 부산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하자"고 당부했다.

학장 범혜 스님은 "오늘 캠페인으로 자살과 교통사고 등 악재들을 막을 순 없지만 내 주위의 단 한사람이라도 지킨다는 각오로 오늘 캠페인에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코로나 19 종식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부산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은 "부산이 자살과 교통사고가 사라지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맛나는 도시가 되기를 발원한다"며 "자리이타의 마음으로 캠페인과 위령대재 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신 부산불교교육대학과 화엄승가회 스님들 모든 대중에게 감사인사를 올린다. 나눔과 봉사의 마음이 씨앗이 되어 부산에 희망을 심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불교교육대학은 1982년 개교해 40년 동안 1만 6000여 명의 졸업생과 1200여 명의 조계종 포교사 및 100여 명의 출가자를 배출했다.

민추본 부산경남본부, '평화통일특강' 개최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정관)가 11월 25일 부산 원오사에서 '민추본 부산경남본부 평화통일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남북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을까?'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강의는 김일한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가 담당했다. 김 교수는 남북 평화를 위한 경제협력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경제가 남북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며 "코로나와 국제사회 제재로 북한의 경제상황은 어려움이 있다. 경제적 협력을 통한 서로의 강점을 연구해 남북 경제협력으로 통일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포교사단 부산 '자비의 동계 용품 나누기'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정분남)과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개금종합사회복지관(관장 류강렬)이 11월 27일 부산 개금 철로변 마을에서 '자비의 동계용품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분남 단장과 류강렬 관장을 비롯해 포교사들과 복지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연탄을 전달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했다. 연탄은 20세대에 각 50장 총 1000장이며 겨울이불 20세트가 전달됐다.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매년 이불 및 연탄 등 겨울 동계용품을 소외 이웃을 위해 전달하고 있다. 자비나눔 용품은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에 소속된 포교사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후원금으로 마련했으며 후원금은 특히 동안거 및 하안거 기간에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에서 진행하는 경전독송 수행에 동참한 포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기부 모금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소원사, 제1회 황령산 산신재 및 이웃나눔



관음기도도량 소원사(주지 법진)가 11월 28일 경내 산신각에서 '제1회 황령산 산신재 및 자비의 쌀 전달식'을 봉행했다.

소원사는 산신재에서 코로나19가 소멸하기를 기원했으며 지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발원했다.

소원사는 백미 전달을 위해 사찰 인근에 위치한 통장들에게 차상위계층 명단을 요청하고 산신재 당일 차상위계층 20여 명을 초대해 백미 10kg 20포대를 전달했다. 또 남구청에 백미10kg 108포대를 전달해 소외이웃에게 회향될 예정이다.

주지 법진 스님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회향하는 사찰이 되어 화합의 중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부산聯,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11월 28일, 1300여명 불제자 수계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 이하 조계종부산연합회)가 11월 28일 벡스코 제2전시장 3층에서 '제4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매년 계를 지키고 청정한 삶을 발원하는 불제자의 삶을 강조하고 불교문화 및 의례의 엄숙함과 장엄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이번 해는 특히 통도사 염불원에서 집전한 신중작법과 천수바라무, 도량결계나비무, 법고무 등으로 전통 도량 결계의식을 보여줘 불교의식의 장엄함을 선보였다.

법회는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됐으며 499명만 행사장에 입장했다. 또 참가자를 배려해 1부와 2부로 나눠 행사를 개최했으며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입장했다. 예정된 수계 동참대중 1300여 명 중 행사장에 동참 못한 대중은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했으며 계첩은 소속 사찰에서 받았다.

수계식 전계대화상으로 조계종부산연합회 초대회장 수불 스님이 법석을 증명했으며, 갈마아사리는 수진 스님, 교수아사리는 지현 스님이 맡았다. 존증아사리는 심산 스님, 원허 스님, 목종 스님, 도일 스님, 만초 스님, 하림 스님, 지일 스님이 맡았다.

수계의식은 연비 대신 제주도 존자암에서 채수한 관정수로 관정의식을 진행했으며, 불자들은 장궤합장하고 참회진언을 염송하며 불제자로 거듭날 것을 서원했다.

수불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이 비록 선을 행할지라도 끝내 속세의 악업은 소멸시킬 수 없으나 만약 삼귀의계를 받는다면 능히 속세의 악업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다겁생의 죄업장이 계를 받음으로써 소멸되니 빛이 한 번도 미치지 못한 깊은 동굴에 불빛이 비춰 무명의 어둠이 부처님의 광명으로 가득 참과 같을 것이다"고 법문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원허 스님은 "오늘 계를 수지하고 법명을 받은 불자들은 부처님의 제자로 청정한 삶을 살아가고 부처님의 가피 속에 행복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나누우리 신임 이사장, 만우 스님 선출



태고종 국제구호 단체 사단법인 나누우리(이사장 도산)가 11월 24일 통영 보현사 내 나누우리 사무실에서 제1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이사장에 만우 스님(밀양 법성사 주지 · 사진), 상임이사에 자우 스님(왕복사 주지)을 선출했다. 만우 스님은 '지역 코로나 방역 봉사와 나눔 활동에 앞장설 것'과 '국제 구호 활동 및 국내 불우 환아 치료비 지원' 등을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불교聯, 제31회 산해문화상 수상자 발표

창원불교연합회(회장 정인)는 11월 22일 '제31차 산해원문화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문학상에는 이창규 한국문인협회 자문위원, 예술상에는 박배덕 서양화가, 언론상에는 허충호 경남신문 논설실장, 행원상(지역개발)에는 하충식 창원한마음병원 이사장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창작지원금 5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되고, 시상식은 12월 13일 오후 6시30분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드 창원(구 풀만호텔) 2층 대연회장에서 개최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영축문화재단, '영축문화대상 수상자' 발표

재단법인 영축문화재단(이사장 현문)은 12월 1일 제9회 영축문화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수상자는 학술문화상 부문에 오경후 동국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전문연구원, 봉사실천상 부문은 동국대학교 의료원(단체), 포교원력 부문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14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월하대종사추모 다례재 행사 후 진행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제4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원만 봉행을 감사드립니다.





삼보에 귀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고 부산의 발전과 시민의 평안을 위한
'제4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3사7증사(3사-전계대화상 수불큰스님, 갈마아사리 수진큰스님, 교수아사리 지현큰스님,
존증아사리-본회 부회장스님)를 모시고 진행한 수계법회에서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칭찬과 격려를 보내 주셨습니다.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지침에 따른 '백신패스' 적용에도 불구하고
질서있게 동참해 주신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계기로 본회 사부대중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포교의 일선에서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와 무량공덕으로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원허

선풍 진작 중심지 '성담사', 대작불사 회향

남해 성담사, 11월 28일 낙성식 · 회향법회 봉행

총 1만 2000평 규모 가람
종정 진제 스님 선풍 선양
조계종 원로스님 대거 참석

성낙두 경남지사장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사진 왼쪽 세번째)를 비롯한 주요참석 내빈들이 회향법회서 타종하고 있다.

조계종 선풍진작을 위한 대작불사가 성료했다. 남해 성담사(주지 도민)는 11월 28일 성담사에서 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를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동화사 회주 의현 스님,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대원 스님, 명예원로의원 밀운 스님, 혜승 스님, 원명 스님, 성파 스님, 지성 스님, 법산 스님, 무공 스님, 자광 스님, 지환 스님, 주호영 국회의원, 장충남 남해군수 등이 참여했다.

법회에 앞선 식전행사로는 민족화합 조국평화통일 대범종 타종식이 진행됐다. 대구불교합창단과 불광사합창단의 축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위시한 주요내빈들의 타종 등을 진행했다.

법회에서는 삼귀의와 보현행원, 반야심경 낭독, 주지 도민 스님 인사 및 경과보고, 내빈 소개, 청법가, 입정, 종정 진제 대종사 법어, 총무원장 원행 스님 격려사, 대원 스님 격려사, 회주 스님 인사말, 주호영 국회의원 인사말, 표창패 및 공로패 시상, 축가 등이 진행됐다.

성담사 주지 도민 스님은 이날 "종정 진제 예하께서는 항상 산문을 열어 놓고 출가자 재가자 차별 없이 수많은 수행자들을 재접하고 지도하고 있다"며 "특히 2011년 미국 법문 후 세계 유명인들의 참선지도 요청이 많았다. 모든 이에게 참선교육을 하기 위하여 진제선 세계화회를 건립하고 진제선 총본산 성담사를 창건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민 스님은 "2011년 성담사에 터를 보시고 2018년부터 불사를 시작하여 2018년 2월 다리를 놓고 2019년 4월 개토식을 했다. 이후 공양실을 시작으로 요사채, 염화실, 관세음보살좌상, 대웅전, 선림선원, 극락전, 종각, 국민선원 등이 완성돼 금일 낙성 회향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성담사 면적은 도량과 뒷산, 앞 저수지 등 총 1만 2000평 규모다. 성담사는 선림선원 개원 후 하루 13시간 정진으로 1년 결사가 시작됐다.

진제 대종사는 "남해에 참선도량 성담사를 창건한 목적은 모든 인류가 참선을 통하여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며 "인간의 심성을 계발하지 않고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축사로 "남해섬 천혜의 정진도량이 낙성돼 경하드린다. 부산에 해운정사를 도심 속 수행도량으로 일궈 선풍을 널리 펴신 데 이어 성담사 불사로 한걸음 더 나아가 혹독하고 철저한 정진을 하시고 계시다. 불조의 혜명을 잇는 원력대불사이니 함께 정진하고 외호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자"고 서원했다.

18년간 이어진 자비나눔 눈길

소원정사 연꽃향기자비나눔 개최

도계 스님 2006년 나눔 발심
각양 각층에 자비의 쌀 전달



소원정사 도계 스님을 비롯한 불자들이 자비의 쌀을 전달하고 있다.

2006년 광주 남구에 조그만 사찰에서 기도정진하던 도계 스님은 만행 과정에서 80세가 넘는 한 보살의 집을 방문하게 됐다. 저녁공양 때가 되자 보살은 라면 1개를 꺼내 남편과의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어려운 이웃을 본 도계 스님은 그 길로 연꽃향기자비나눔 단체를 설립했다. 18년이 지난 11월 30일, 소원정사에서는 연꽃향기자비나눔 전달식과 시상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도계 스님을 비롯해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신광사 주지 동현 스님 등 30여 불자들이 참석했다.

연꽃향기자비나눔은 올해 모연한 쌀 2만 7000kg을 전달하고 몸이 아픈 스님들의 의료비로 500만 원, 어린이청소년 포교기금으로 500만 원 등을 함께 지원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서구청에 쌀 3800kg, 겨울의류 30벌, 남구청에 쌀 3800kg, 겨울의류 30벌,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에 500만 원 지원금과 겨울의류 20벌, 빛고을나눔나무에 쌀 1000kg과 승보공양비 500만 원이 전달됐다. 전달품은 6000만 원 상당이다.

도계 스님은 "앞으로 10만 가마니가 되도록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추위 잊게 하는 따뜻한 김장나눔

전주불교聯 · 진안쌍봉사 등 소외계층 자비나눔 눈길



전북 불교단체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장나눔에 나섰다. 전주불교연합회(공동대표 덕산, 금선암 주지)는 11월 26일 자연음식문화원 실습실에서 김장김치 400kg을 담가 불교복지시설인 송광 정심원(원장 이경주), 금선백련마을(원장 김찬우), 전주서원노인복지센터(관장 동찬), 이기산 정각복지센터(대표 일행) 등에 전달했다.

연합회 공동대표 덕산 스님은 "어려운 시기지만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 지역의 어려운 곳을 도와야 한다"며 "매년 김장김치를 기다리는 복지시설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후원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대원)도 12월 2일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르신 나눔에 앞장서는 '선배시민 봉사단'이 담근 김장김치 1500포기가 복지관 경로식당과 관내 저소득층 97세대에 전달됐다. 김치는 '선배시민 봉사단'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직접 전달했다.

고창군사회복지시설장 대원 스님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서, 함께 상생하는 따뜻한 복지 실천을 펴겠다"고 말했다.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도 11월 28일 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 진안쌍봉사 만복의소리 봉사단과 함께 독거어르신 35가구에 김장김치 440kg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생의 석불상 조성, 내생 행복으로"

[인터뷰] 불교미술대전 대상 수상한 김용암 불자



"40여 년 간 석불과 석탑 등 불교 작품활동을 해온 보람을 느낍니다. 인연이 닿는다면 30~40자정도 되는 대형부처님을 조성해보고 싶습니다."

김용암 불자<사진>는 맥반석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을 표현한 '49일간의 행복'으로 제31회 불교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그는 "작품을 완성한 지는 몇 년 됐지만 크기 제한이 있어서 출품하지 못하다가 후배들의 강력한 권고로 출품한 것이 대상 수상의 영예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대상작인 '49일간의 행복'이 탄생하기까지는 2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20여 년 전 전남의 한 공사장에서 흙구덩이에 묻힌 돌을 발견한 그는 범상치 않은 돌의 모습에 부처님을 조각하고 싶다고 마음먹게 됐다. 작품구상에만 수년이 걸렸고 고행과 정각의 모습을 함께 표현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작업실에서 1년 6개월간 작업이 진행됐다. 그는 부처님이 앉은 좌대를 익산 황등석을 활용해 표현하는 등 석재 고유의 색을 이용했다. 질좋은 석재가 생산되는 익산에 공방을 갖고 있는 점이 파격적 시도의 바탕이 됐다.

불교미술대전 대상 수상은 수십년간 석공에 기술 뿐만 아니라 신심이 작품 속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불교를 접하면서 행복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수행과 공부에 역주했다 점점 그의 작품 속에는 이러한 신심이 투영됐다. 그는 익산 백운사 9층석탑, 공주 원효사 부도탑, 전주 대광사 아미타불, 전주 선린사, 익산 삼불암 등 불상과 불탑을 조성했다.

불교미술대전 대상이라는 큰 영광을 안았지만 그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다. 바로 남은 과제는 3~40자 크기가 되는 초대형 석불상을 조성하는 것이다.

"49일간의 행복까지 20여 년이 걸렸다면 건강만 따라준다면 이젠 남은 생을 걸고, 내생의 행복까지 정진하고 싶습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울산불교환경연대 환경 톡 콘서트 개최

11월 26일 서울주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울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천도, 백련사 주지)는 11월 26일 서울주문화센터 대강당에서 환경 톡(TOK) 콘서트를 개최했다.

'지구야 미안해, 우리의 사과를 받아줘'를 주제로 열린 이날 콘서트에는 상임대표 천도 스님을 비롯해 정토사 덕진 스님, 백련사 회주 대혜 스님, 석남사 일영 스님, 여여선원 효암 스님, 법왕사 혜경 스님, 황룡사 황산 스님, 이선호 울주군수 등 1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콘서트 식전행사는 나모라 황룡사어린이합창단의 '말의 향기' 합창을 시작으로 인사말, 격려사, 축사, 감사패 전달, 자비쌀 나눔 등으로 진행됐다.

1부 콘서트에서는 가수 라마와 천도스님, 박은정 서경대 교수가 진행하는 토크쇼가, 2부 공연에서는 김권하의 핸드팬 연주, 에코밴드 요술당나귀의 카페라떼, 룬디마틴의 슈퍼스타 공연 등이 이어졌다.

상임대표 천도 스님은 "이번 콘서트는 울산지역 활동가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라며 "이날을 계기로 사회에 따뜻함을 불어 넣어 주길 기원한다. 생활 속 환경 지킴이가 되자"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체탈도첩 공고

귀의삼보 하옵고 존경하옵는 각종단 종정예하와 총무원장님, 그리고 제방의 고승대덕 선지식 큰스님들께 스승을 배신하고 일탈한 제자들의 체탈도첩을 널리 알고져 합니다.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능욕하고 스승의 명예를 실추시킨 18명의 체탈도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탈도첩 명단

경주 대원사 주지 **유지연(운혜원정)**
울산 도현사 주지 **유의순(백화도현)**
부산 연등사 주지 **전세웅(혜각법성)**
거제 칠보사 주지 **이옥석(혜운)**
서생 혜림사 주지 **혜림**
울주 마하사 주지 **김봉규(현광혜오)**
진주 현덕사 주지 **김형권(현봉덕오)**
대구 미륵사 주지 **이점용(현승)**
마산 약명사 주지 **장이용(법상)**
밀양 금궤사 주지 **김예태(현강경오)**
부산 반야선원 **조인현(철범유심)**
포항 원각사 주지 **박준규(혜보화성)**
광양 달마사 주지 **신보주(성종)**
부산 여래사 주지 **표영민(현법)**
양산 비로암 주지 **황의철(현각월오)**
울주 청송암 주지 **김춘겸(혜암도일)**
문경 룡화사 주지 **안복수(혜심)**
광양 용운사 주지 **정상례(서정)**

2021-10-27일자 대원불교조계종에서 탈종한 현광당 혜오는 총무원장이라는 직책으로 스승을 속이고 능욕한 죄에 대해 겉으로 참회 하는척 하며 당분간 시간을 벌어서 사형, 사제 17명과 함께 **대한불교 대승조계종** 이라는 종단을 만들어 나갔으며, 종정인 운혜원정도 법스승을 배신하고 사제들을 부추겨 함께 나가 그 종단에 종정이 되었는바,
본 종단에서 스스로 탈종한 18명은 대원불교조계종에서 받은, 사미(니),비구(니), 종덕(현덕), 종사(명덕), 대종사(명사). 모든 수계와 법,계맥이 다 무효이며, 자격효력을 상실한 대원불교조계종 도첩이나 계맥을 사용할 시에는 대원불교조계종단 차원에서 민형사상 모든 법적책임을 물을 것을 미리 예고하는 바이다.

응화세존 3048년 불기2565년 12월 1일

(사)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
종정 도정 정산 석청봉 화남 (직)010-4848-0056
문의전화 010-4162-2900 총무원장 석 지혜 합장.

日, 7년 만에 '젠코지 개장' 봉행한다

비불(祕佛) 공개 법요…
연간 500만 명 이상 찾아

백제성왕이 선물한 불상
친견 극락왕생 신앙형성
2015년엔 707만 명 운집
코로나19에도 준비 박차

박영빈 객원기자



코로나19 대책을 위해 젠코지에서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출처=마이니치신문

일본 불교계 최대 축제로 불리는 '젠코지 개장(善光寺 開帳)'이 2022년 봉행된다. 7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행사는 평소 공개되지 않는 본존불을 공개하여 참배하는 이들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하는 법요다. 종파를 초월해 많은 불교 신자들과 관광객들이 몰리는 행사다.

11월 26일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젠코지 개장의 준비상황을 보도했다.

젠코지(善光寺)는 나가노시에 소재한 천년고찰로 중세부터 살아 생전 이 사찰을 참배하고 본존인 아미타삼존상을 친견하면 극락에 왕생한다는 믿음이 전해지고 있다.

특히 젠코지 아미타삼존상은 일본불교에서 가장 신성한 불상으로 여겨진다. 젠코지 연기설화에 따르면 아미타삼존상은 백제 성왕이 일본에 불교를 전하기 위해 선물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신앙적 배경에서 일본 각지에서는 젠코지 불상을 모각해 봉안하거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젠코지 아미타삼존상은 젠코지 주지 스님조차 쉽게 친견할 수 없는 비불(祕佛)이다. 사찰에는 14세기 조성한 분신(分身) 본존상이 봉안됐으나, 이 불상 역시 비불로 모셔졌다. 비불을 공개하는 법요가 또 다른 신앙으로 자리하면서 '젠코지 개장'이 시작됐다.

300년 전부터 7년에 1번, 소띠와 양띠 해에 봉행되고 있는 젠코지 개장은 매년 평균 500만 명 이상의 참배자가 몰린다.

2015년 개장에는 707만 명이라는 역대 최고 인파가 몰렸다. 당초 올해 4월 개장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취소되며 내년으로 개최가 미뤄졌다.

그러나 젠코지와 행사를 운영하는 젠코지 개장 봉찬회 측은 "지금까지 전쟁이나 여러 자연재해 속에서도 개장을 멈춘 적이 없었다"며 2022년 4월 개장을 강행할 것임을 밝혔다.

젠코지 측은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장법요가 1개월간 진행되어 온 방식을 변경해 2개월간 연장해 친견 인원을 분산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봉찬회 측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법요를 봉행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11월 22일 젠코지에서 열린 코로나19 감염방지 대책 설명회에서는 사찰이나 인근 숙박시설에서 숙박하는 참배객들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설명회에서는 젠코지 인근 숙박관계자 80여 명을 비롯해 감염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설명회 강사로 나선 야마기시 타쿠야 日국립감염증연구소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는 듯하지만, 영미권의 재유행이 우려된다"며 "2년간 수백만 명이 모이는 행사가 없었다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젠코지 측에서는 대중공양을 없애고 사찰 내 숙박공간을 별도로 나누며, 참배 시 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젠코지 개장에서 참배객들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상징으로 만지는 오색 끈에는 항바이러스 코팅을 하는 것도 제안됐다.

젠코지 사무총장 와카오미 슌소쿠 스님은 "참배하러 오는 이도, 이들을 여기에서 맞이하는 이들도 모두 안전하게 법요를 봉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프간 바미안 석굴 관광 재개

美CNBC 11월 24일 특별 보도



지난 11월 24일 미국 경제뉴스 전문 방송 'CNBC'는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얀 석불 관광 재개 소식을 전했다.

2001년 초 이슬람극단주의 무장단체인 탈레반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미얀 석굴사원을 비롯한 다수의 불교 유적과 유물을 파괴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20여 년만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집권하면서 보다 부드러운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바미얀 석굴사원의 관광을 재개했다.

하얀색 탈레반 깃발 아래 군인들이 입장권(한화 약 6000원)을 판매하고 있다.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은 주변을 돌아다니며 고대 불상이 서있던 절벽 면의 거대한 구멍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탈레반 지지자 시디크 울라는 "바미얀 석굴사원을 보기 위해 칸다하르에서 친구들과 함께 563Km를 달려왔다. 내가 7살 때 바미얀 석굴사원이 파괴되었었는데 그 이후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어났었는지 두 눈으로 보는 것이 꿈이었다. 불상이 파괴되어 기쁘다. 사실 폐허를 보러 왔다. 탈레반이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전국을 순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몇 달 전 다시 정권을 잡은 탈레반은 일부 지역에서 잔혹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온건한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강경파 이슬람 단체가 수년간의 반란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경제적, 안보적 문제들을 해결함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라는 국제기구로부터도 압박을 받고 있다.

'바미얀의 부처'의 저자이자 옥스퍼드대 고전학 교수인 르웰린 모건은 "바미얀은 항상 외부 세계가 주목해온 아프가니스탄의 일부였다. 탈레반은 그것을 알고 있으며, 관광 재개는 자신들을 건설적인 정부로 묘사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한때 불상이 서 있던 구멍에는 비계가 남아있지만, 보존 작업은 이제 끝났다. 탈레반이 관광객을 환영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NBC 뉴스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방문객은 거의 없었다.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4년간 수감생활을 한 압둘라 사르하디 주지사는 "탈레반은 변화했으며 역사적 기념물을 보존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 평화와 안전이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고독사 많은 日, 부동산 천도재 화제

사망사고 발생 부동산 대상 진행

고인 명복 빌며 장소 정화
유가족 등 심적 부담 완화
상업적이용 비난도 높아져



부동산 천도재 전문업체가 홍보하는 홈페이지. 24시간 대응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사진출처=PR타임즈토

다양한 사망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해당 장소를 정화하는 '부동산 천도재'가 일본에서 화제다. 11월 25월 일본의 인터넷 매체 'PR타임즈'는 부동산 천도재를 전문으로 스님을 파견하는 업체에 대해 보도했다.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장례회사 '라이프 엔딩 테크놀로지스'는 부동산 천도재를 전문으로, 전국에 스님들을 파견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점점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고,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자택에서 개별요양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자택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며 천도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일본에서는 고독사가 증가하며 이런 사망사고가 일어난 부동산에 '사고물건'이라는 용어가 붙고 있다.

회사 측은 "고독사나 자살 등이 증가하며 사회문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경제적 가치 또한 하락한다"며 "유가족뿐만 아니라 건물주와 다음 입주자 모두 이런 사망사고 발생 시 부담을 안고 있다"며 천도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사는 "부동산 천도재라고 이름 붙였지만 실제는 그 장소에서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이고, 그 장소를 정화하는 의례"라며 "고인과 관계된 이들의 심적부담을 완화하고, 사망사고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부동산 천도재의 목표"라고 밝혔다.

7월부터 시작된 부동산 천도재는 회사가 예상한 수요의 2배가 넘게 봉행됐다. 상담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현재 천도재에 대응하는 지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 업체는 스님, 사찰들과 제휴를 맺어 상담을 진행하는데, 1000명 이상의 스님들이 등록한 상태다. 가톨릭이나 신토(神道) 신자들에게도 대응해 해당 종교의 성직자들과도 제휴를 맺었다.

회사 측은 "이 천도재 특징은 일본 전국 어디서든, 원하는 종단의 스님을 모실 수 있다는 점이다. 상담을 요청한 지역과 가장 가까운 거리의 사찰과 스님에서 천도재에 대응하게 된다"며 "해당 사찰의 신도가 되거나 별도 등록이 필요 없고, 스님을 모시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적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업체에서의 천도재는 부동산 천도재부터 49재, 기제사 등 다양한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SNS상에서 한 스님은 "망자의 죽음을 이용한 노골적인 상업행위"라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도 "사고물건에 대한 건물주의 심리를 이용해 천도재 상품을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캄보디아 환경보전 순례 진행

스님들 앞장, 인식 개선 이어져



캄보디아 스님들이 환경보전을 위한 순례길에 올라 화제다. 캄보디아 일간지 '프놈펜포스트'는 11월 25일 캄보디아 스님들의 환경보전 순례길 소식을 전했다.

프레아 시아누트 라자 불교대학(SBU) 부총장 겸 프놈펜 시립 승가 협회 부대표인 요른 셍 예트 스님은 환경보전과 인식개선을 위해 순례길에 올랐다.

캄보디아에서 가장 높은 아오랄 산을 중심으로 뻗은 순례길을 걸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을 위해 대중들의 변화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특히 스님들의 역할이 캄보디아의 숲 보존과 환경 보전에 기여한다. 지난 1월 시작한 환경보전 순례길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예불로 순례의 시작을 알리며 순례길 중간에 환경보전의 상징으로 하루의 두 그루의 큰 나무를 자연에 봉헌했다. 4차례에 걸친 순례 동안 약 20그루의 나무를 숲에 심었다. 하루가 끝나면 스님들이 모여 그 날 맞닥뜨린 도전에 대해 단체 토론을 벌였다. 모두 숲에 온 목적, 즉 환경을 사랑하고 보전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환경보전이라는 목적을 상기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예트 스님은 "숲은 캄보디아인의 공동 재산이다. 우리의 숲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며 "불자 여러분, 그리고 캄보디아 국민 여러분, 숲은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숲을 잘 보살펴야합니다. 우리는 땅, 물, 불, 공기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환경을 돌보는 것이 곧 자신의 삶을 돌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재 객원기자

안양 수리산 용화사
합동 수계법회 봉행

안양 수리산 용화사에서는 사바세계오신 용화미륵부처님께서
직접 수계를 해주십니다.
용화미륵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수계를 받으면
나쁜 업장이 소멸되어 세세생생 윤회할 수 있습니다.

■ 내용 : 합동 수계 법회 전화 예약접수
■ 일시 : 12월 한달간 매일 오전 11시
(수계접수자가 많아서 12월 한달내내 매일 수계해줍니다.)
■ 장소 : 수리산 용화사 (안양시 만안구 공평빌딩 6층)
■ 문의 : 031)444-9985, 9986, 9987

NAVER, YouTube 에 용화 미륵부처님 TV 검색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1~12/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현천 스님	선요가	6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 스님	불교신문사
2	성자와 범부가 함께읽는 금강경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7	선불교의 뿌리	김성철	오타쿠
3	산스끄리뜨 금강경 역해	현진 스님	불광출판사	8	딱돌 해설서	중암선해	금빛소리
4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 스님	정토	9	네가지 마음챙기는 공부	각묵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5	죽기전에 꼭 읽어야할 법화경	손종호	운주사	10	진리와 자유의 길	법정 스님	자식을만드는지식

책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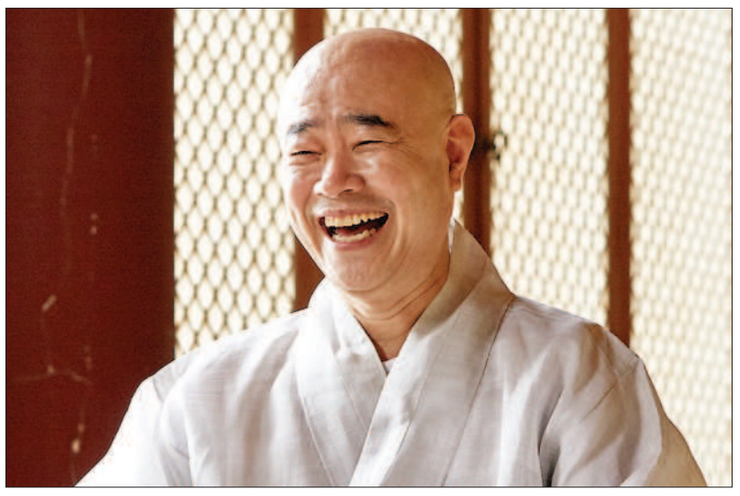
“번뇌, 끊어야 할 게 아니고 관찰할 대상”



월호 스님의 유마경 강설

월호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펴냄/1만 8천원



〈유마경〉, 대표적인 대승경전이자 불이(不二) 사상의 정수 담겨져

유마거사가 불제자들에게 법 전하는 이야기 드라마틱하게 펼쳐져

“아바타 번뇌로써 관찰하는 게 진정한 번뇌를 대하는 방식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인 월호 스님과의 인연은 2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직항로가 없던 시절, 본지가 기획한 중국 선종 본찰인 소림사 순례에 스님이 동참하면서 부터다. 당시 쌍계사 국사암 주지던 월호 스님<오른쪽 사진>은 동국대서 묵조선과 간화선으로 석 ·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공자 답게 선의 원류를 체험하기 위해 걸망 하나 지고서 진지하게 답사에 임했다. 그로부터 20여년 동안 월호 스님은 경전 강설을 비롯해 간화선 대중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한 치열한 노력으로 월호 스님은 불교계를 대표하는 선승이자 학승이 됐다. 일명 불벤져스중 한명이다. 이처럼 우리 시대의 강백(講伯)인 월호 스님이 유마경 강설을 이번에 출간해 화제다.

대표적 대승 경전이자 불이(不二) 사상의 정수가 담겨 〈유마경〉은 많은 불자들이 탐독하는 경전중 하나다.

이번 〈월호 스님의 유마경 강설〉은 특히, “요즈음이야말로 ‘중생이 아프므로 나도 아프다’ 는 유마 거사의 말이 실감나는 시기입니다. 인류 대다수가 코로나19서 벗어나야 비로소 나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너와 나,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라는 〈유마경〉의 지혜를 잘 전해서 모든 생명이 해탈의 길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라는 월호 스님의 말 만큼이나 코로나19 시대에 병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승반야부 계통에 속하는 〈유마경〉은 재가거사인 유마힐을 주인공으로 한 경전이다. 경전 중에서 재가자를 주인공으로 한 경전은 〈유마경〉과 승만 부인을 주인공으로 한 〈승만경〉뿐이다. 그래서 이 두 경전은 불교 역사서 매우 중요한 경전으로 여겨진다. 〈유마경〉에서는 방편으로 병을 앓는 유마 거사가 부처님 제자들에게 법을 전하는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게 펼쳐진다. 이 책은 총 14장의 경전을 ‘제1막 암라팔리 동산과 유마방’ ‘제2막 유마의 텅빈 방’ ‘제3막 다시 암라팔리 동산’ 등 3개의 막으로 정리했다.

제1막에서는 제1장 중생계가 보살의 불국토이다(一. 佛國品), 제2장 유마거사가 짐짓 병을 보이다(二. 方便品), 제3장 유마의 가르침을 받은 십대제자(三. 弟子品), 제4장 유마의 가르침을 받은 네 보살(四. 菩薩品) 등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어 제2막에서는 제1장 문수보살이 병문안을 가다(五. 文殊師利問疾品), 제2장 사리불의 의문과 대가섭의 찬탄(六. 不思議品), 제3장 문수와 유마, 사리불과 천녀의 대화(七. 觀衆生品), 제4장 보현일체색신보살의 질문과 유마의 게송 답변(八. 佛道品), 제5장 유마가 불이법문을 묻고 33보살이 답하다(九. 入不二法門品), 제6장 아바타 보살의 출현과 유마의 대중공양(十. 香積佛品), 제3막에서는 제1장 아난의 질문과 세존의 답변(十一. 菩薩行品), 제2장 여래를 바르게 관찰하라(十二. 見阿閦佛品), 제3장 제석천의 서원과 법공양의 의미(十三. 法供養品), 제4장은 미륵보살에게 법을 부촉하시다(十四. 囑累品) 등의 법문이 전개된다.

〈유마경〉에 대해 월호 스님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유마경〉은 삼세제불(三世諸佛)의 최상의 깨달음을 설한 것이며, 붓다의 깨달음도 이로부터 생긴다고 일컬어진다. 〈유마경〉은 예로부터 ‘소(小)화엄’ 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깨달음의 경지를 설한 경전인 〈화엄경〉은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심오해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화엄경〉을 농축시켜 엑기스로 만든 게 바로 〈유마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불(行佛)의 실천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또한 월호 스님은 ‘〈유마경〉의 진면목’ 에 대해서도 말했다. “〈유마경〉은 부처님도 물론 중간중간 설했지만 유마가 설한 내용들이 훨씬 많습니다. 말하자면 세존께서는 연출하셨고, 〈유마경〉의 주연은 유마 장자와 문수보살, 사리불 등입니다. 유마 장자는 행불의 경지를 설해주고, 문수보살은 대승보살의 경지를 설해주고, 사리불은 성문과 연각의 입장을 대변해주지요. 사리불은 색즉시공을 설하고, 문수보살은 공즉시색을 설하며, 유마 장자는 색즉시색을 설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다 표현돼 있지요. 우리가 이걸 대조해가면서 명료히 뜻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마경〉의 장점이죠. 보통 초기 경전은 성문의 입장인 ‘제법무아 색즉시공’ 의 입장을 주로 설하고, 대승경전은 보살의 입장인 ‘공즉시색’ 의 입장을 주로 설하는데, 〈유마경〉은 그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한 ‘색즉시색’ 의 입장, 즉 붓다의 안목을 설해주고 있습니다.”

월호 스님은 〈유마경〉 공부를 통해 “우리 모두 ‘아바타’ 임을 깨쳐 자신의 애착은 쉬되, 남에게는 따뜻한 애정을 머금고 살아갈 것”도 당부했다.

“〈유마경〉에서는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간다’ 고 말합니다. 번뇌는 끊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번뇌가 실체 없음을 관찰하며 관찰자 입장에 서는 것이 열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찰자는 항상하고, 즐겁고, 불성인 ‘내’ 가 있고, 청정하기(常樂我淨) 때문입니다. ‘나의 번뇌’ 는 ‘내’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 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죠. 몸은 생로병사하고 마음은 생주이멸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몸과 마음 어디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 가 있겠습니까?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일 뿐! 우리 모두 아바타임을 깨쳐 자신의 애착은 쉬되, 남에게는 따뜻한 애정을 머금고 살아가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면 관찰과 보시 복덕이 필수입니다. 이를 전하는 것이 바로 ‘아바타가 아바타에게 법을 설한다’ 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저자인 월호 스님이 〈유마경〉을 처음 접한 건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인 1980년도이다. 당시 동해안 경비사령부 최전방 철책선, 비무장지대서 근무한 스님은 경계근무 위주로 하다 보니 시간이 남아서 어머니께 볼만한 책 좀 보내달라고 편지를 썼다. 그때 속가 모친이 보내준 책이 바로 〈유마경〉이다. 그 후로 스님은 몇 번 읽어 본 적은 있지만 깊은 뜻은 잘 몰랐다고 한다. 그러다가 이번에 원문과 기존 번역본들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살펴보니 ‘교재를 만들기 위해 번역했지만 진짜 공부가 된 것은 바로 나로구나. 아는 만큼 전하다 보니, 전할수록 알게 되는구나’ 를 실감했다.

월호 스님은 불교공부를 하게 된 동기도 밝혔다. “학창시절 한겨울에 북한산에 간 적이 있어요. 정상에 올라갔는데 춥고 배고파서 일행들과 뭐 해 먹으려고 버너에 코펠 올려놓고 물을 끓였죠. 바람이 하도 많이 불어서 텐트 치고 그 안에서 물을 끓였는데, 그걸 잘못 건드려서 펄펄 끓는 물이 제 발등에 고스란히 쏟아졌어요. 발등이 폭삭 익어버려서 얼른 내려가려고 하는데, 한겨울이니까 맨발로 내려올 수가 없었죠. 경사진 돌길을 신발 끈 헐겁게 매고, 일행 중 한 사람이 부축해줘서 쩔뚝거리면서 내려오는데 화상 입은 부위에 신발이 쓸리니까 한 발 한 발 걷는 게 고통스럽기 짝이 없었죠. 그때 문득 ‘발등만 데어도 이렇게 고로운데 이 세상에는 이것보다 더한 육체적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내가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라고 그 어린 애가, 고등학교 때쯤인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마자 제 발등의 고통이 없어졌어요. 마취제나 진통제를 맞은 것처럼 전혀 고통이 안 느껴졌어요. 거기서부터는 뛰다시피 해서 산을 내려왔죠”라며 계속 말을 이었다. “그땐 그냥 신기하다 여기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불교를 공부하면서 생각해보니 바로 이거였어요. 이 몸은 아바타요, 붓다의 몸은 법신이다. 생사가 있으면 병이 있겠지만 법신은 불생불멸이다. 그러므로 모든 병 또한 아바타의 병으로 관찰하면서 자기의 병으로 남의 병을 가엾이 여겨야 한다. 이러한 법을 설하는 것이 진정한 자애다. 그러므로 방편 없는 지혜는 속박이요, 방편 있는 지혜가 해탈이다. 지혜 없는 방편은 속박이요, 지혜 있는 방편이 해탈이다.”라고요.

마지막으로 월호 스님은 강조한다. “번뇌의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혜의 보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일체 번뇌가 여래의 씨앗이기 때문이죠. 일체의 마군과 외도들이 나의 시자이며, 뭇 마군들은 생사를 즐기고 보살은 생사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며 외도들은 모든 견해를 즐기고 보살은 견해에 있어서 동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살을 핍박하는 이는 불가사의 해탈보살입니다. 여러분이 보살도를 닦기로 마음먹었는데,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대보살님께서 나를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저놈만 세상서 없어지면 내가 사는 게 편해질 텐데’ 라고 생각하면 보살도를 닦는 게 아니에요. 일체의 마구니와 외도들이 다 나의 친척이고 시자라는 게 바로 붓다의 안목입니다. 또한 번뇌의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혜의 보배를 어찌 얻을 수 있으냐고 합니다. 최고의 진주를 캐내려면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배를 캐야죠? 그러니까 ‘번뇌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는 번뇌 막지 말고 가는 번뇌 잡지 말라는 마음가짐으로 살면 됩니다. 번뇌는 끊어야 할 게 아니고 관찰해야 할 대상입니다. 아바타의 번뇌로써 관찰을 하는 게 진정한 번뇌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저자 **월호 스님**은?

동국대서 묵조선과 간화선을 전공해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리산 쌍계사 고산 큰스님 문하로 출가했다. 쌍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봉암사 · 동화사 · 해인사 · 쌍계사 등 제방선원서 참선 정진했다. 동국대 겸임교수 · 해인사 승가대학 교수 · 쌍계사 승가대학 학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행불선원 선원장으로, 불교방송 BBS-TV ‘월호 스님의 행불아카데미’ 를 인기리에 진행중이다. 저서로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등 다수가 있다.

밝은사람들 총서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권석만 외/25,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종 외/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20,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정준영 외/18,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오강남 외/18,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정준영 외/18,000원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20,000원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미산 외/20,000원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구병수 외/20,000원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권석만 외/22,000원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 김성구 외/22,000원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 권석만 외/20,000원

번뇌, 끊어야 하나 보듬어야 하나 이필원 외/22,000원



의지,

자유로운가 속박되어 있는가

삶의 원동력이자 몸이나 말의 구체적 행위를 결정하는 ‘의지’에 대하여, 불교와 서양철학, 그리고 현대의 심리학과 뇌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그 본질, 작동 방식 등을 성찰하였다.

이필원 김호귀 조긍호 이진우 정준모 집필

신국판양장/432쪽/24,000원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동영상 시청 안내 ★

- 21년 12월 하순 유튜브에서 책 제목으로 검색하면 집필진의 주제발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밝은사람들 총서 다른 주제발표들도 업로드 작업 중입니다. “밝은사람들연구소”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면 유튜브 업로드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튜브에서 “밝은사람들연구소”를 검색하면 업로드 된 “밝은사람들 학술연찬회” 동영상들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영화시극 새 장르 시도한 불교 독립영화

〈詩劇〉

구담 스님 새 독립영화 '홀로 빛나는 어둠'

12월 1일 법룡사서 제작발표회 개최
구담 스님 감독 12월 27일 크랭크 인

2022년 3월 시사회 개최 · 출품 등 예정
연극무대 영화로 옮긴 영화詩劇 새 장르
영화적 통념 관습 벗어난 작가주의 영화
독립영화 지평 넓히는 실험 · 확장 기대
"범패 · 불전사물 등 불교 전통 공연예술 현대영상으로 옮기는 작업 초석될 수도"



12월 1일 열린 제작발표회 현장.



독립영화를 만들어온 구담 스님이 다섯 번째 영화 '홀로 빛나는 어둠' 제작에 들어갔다. 사진은 12월 1일 법룡사(전국비구니회관) 메따공연장에서 열린 리허설 장면.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허공을 나는 재주가 없는 다음에야 절벽에서의 한 걸음은 죽음뿐일 테지. 하지만 어쩌랴, 뛰어들지 않으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을!"

구담 스님이 자신의 다섯 번째 영화 '홀로 빛나는 어둠'을 선보인다. 이번 영화의 감독 겸 제작자인 구담 스님은 12월 1일 법룡사(전국비구니회관) 내 메따공연장에서 개최한 리허설 및 제작발표회에서 12월 27일 첫 촬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화 '홀로 빛나는 어둠'은 무대 위의 연극을 스크린으로 옮긴 영화시극(詩劇)이다. 시극문학박사인 이지아 문학평론가에 의하면 영화 '홀로 빛나는 어둠'은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시극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촬영은 전국비구니회관 메따공연장에서 12월 27일 첫 촬영을 시작으로 총 5일(5차례) 동안 진행된다. 약 3개월의 후반작업(편집 등)을 거친 후 2022년 3월에 시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런닝타임은 약 30분이다.

'홀로 빛나는 어둠'은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을 결심한 걸그룹 멤버 수인이 우연히 만난 행자의 따뜻한 위로와 노승의 가르침을 통해 새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기존의 영화적 통념과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르적 실험을 모색하는 작가주의적 영화다.

구담 스님에 의하면 영화 '홀로 빛나는 어둠'은 형식적으로는 공연예술인 연극을 영화로 옮기는 작업이면서, 내용적으로는 시극(詩劇)이라는 시적 정서의 전반적인 극적 구성을 구현한다. 기존 무대 시극이 대사와 지문의 운문성, 즉 운율의 시적 감흥을 위주로 한 서사 공연 위주였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영화적 표현 방식의 장점을 살려 작품 전체가 유기적인 운율의 통일성에 무게를 두었다. 관객이 접근 가능한 일상적 이해와 공감으로 표현되는 영화시극은 보편적 서정으로 더 가까워진다.

촬영현장에서는 무대 미술의 상징을 단순화하면서 배우의 연기와 카메라의 앵글을 시나리오의 구현에 맞게 구성하여, 기존 영화에서 느낄 수 없었던 공연의 묘미를 살려, 관객에게 일종의 관극 경험을 선사한다.

전체적으로 시적 정서와 긴장감을 살리기 위해 배우의 움직임과 대사의 침묵, 음악성의 이미지, 무대 공간의 깊이감 등은 영화 시극으로서의 시적정신을 내재화한다. 이러한 시적 드라마 구조를 띤 연극적 형식의 영화는 독립영화의 지평을 넓히는 실험이면서 무대 시극의 확장을 위한 의미 있는 방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연극의 영상화 작업은 주로 연극계에서 이루어져왔지만 이는 고정된 카메라의 지속적인 촬영으로, 무대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정서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영화적 관점과 구성으로 연극을 스크린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도했다. 이에 더해 작품의 내용을 시극의 구성 요소인 대사, 지문, 인물의 캐릭터와 관계의 갈등, 미술, 음악, 움직임 등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시적 정서의 서사로 연결되는 방향성에 역점을 두었다.

영화 '홀로 빛나는 어둠'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체영상의 필요성 확대 관점을 인식하여 무대예술인 연극을 영상예술로 옮기기 위한 모색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전통연희 예술의 원형이자 보고라고 할 수 있는 불교예술의 현대적 창작과 해석을 위한 중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불교의 범패나 불전사물, 승무 등 불교 전통 공연예술을 이 시대의 영상언어로 옮기는 작업의 초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극문학박사인 이지아 시인 · 문학평론가는 "영화 '홀로 빛나는 어둠'은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시극 영화이다. 구담 스님은 빠르고 복잡하고 불안한 시대에 영화의 새로운 형식을 시도했다. 예술의 새로운 장르 탄생은 새로운 세계를 펼침과 동시에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인간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축복받아야 하는 일"이라며 "이 영화는 시극의 특징을 영화화하는 데 도전하고 성공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수인, 행자, 노승의 극적인 관계설정과 시적인 대사, 무용, 음악과 미술의 효과를 아름답게 연출한 장면들이 하나의 꽃처럼 눈부시게 피어있다"고 평했다.

구담 스님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서 불교영상 포교의 필요성에 따른 전통 불교예술의 현대적 창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지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과거 전통놀이의 새로운 발견은 언어와 세대를 초월한 현대적 수용과 발전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역사의 그늘에 묻힌 불교예술의 재인식에 있어 전통의 보존을 넘어 재해석과 창작이라는 화두를 가늠하게 한다. 특히 대중매체인 영화에서 그 실현 가능성을 볼 때 이번 '홀로 빛나는 어둠'이 추구하는 전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야말로 그 실험정신에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영화의 원만한 회향으로 현대 불교영화의 새로운 창작에 도전하는 이들이 발돋움하기를 바라고, 나아가 불교예술의 현대적 해석을 위한 다양한 모색이 이어지기를 발원한다"고 이번 영화의 의미를 밝혔다.

영화 '홀로 빛나는 어둠'에서 수인 역은 2018년 단편영화 '옥좀밥', 2021 연극 '러브 이즈 타이밍' 외 다수 출연했던 김련경이 맡았다. 행자 역은 2021 창작극 '페이드아웃' 등에 출현한 김도이가, 노승 역은 행복선원 주지 연암 스님이 열연한다.

수인 역의 김련경은 "대사가 많지 않아서 관객들이 보시기에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말없이 표현하는 표정과 움직임으로도 관객들과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화의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연기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행자 역의 김도이는 "저도 관객들이 좀 더 쉽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며 "영화가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시라는 문학으로 대사를 풀기도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와 닿는 대로 느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구담 스님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영화기획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지금까지 총 4편의 독립 단편영화를 연출하고 제작했다.

첫 작품인 '두 번째 화살(2018)'은 삶과 죽음의 성찰을 통해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렸으며, 두 번째 작품인 '불타는 다이어트(2019)'는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는 잠재된 욕망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 번째 작품 '크리스마스의 제사(2020)'는 고전 삼국유사 내용을 모티브로 한 억눌린 자아의식에 대한 내적성찰을 그리고 있으며, 네 번째 작품인 '오월의 만다라(2021)'에서는 광주 5.18 민주항쟁과 불교를 배경으로, 출가수행자의 사회적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등 그동안 다양한 주제와 소재로 불교적 관점에서 영화 작업을 해왔다.

이번 다섯 번째 독립 단편영화인 '홀로 빛나는 어둠'에서는 지금까지의 영화 작업의 의미를 성찰하면서, 영화라는 매체 속성의 탐구와 활용으로 무대예술인 연극의 유구함과 가치를 동시에 구현하고자 했다.

'두 번째 화살(2018)'과 '불타는 다이어트(2019)'는 2020년 5월 국가정책방송(K-TV) 독립영화 예술부분 선정, 방영됐으며, '크리스마스의 제사(2020)'는 2020년 인도 타고르 국제영화제(TIFF), FILMS OF THE MONTH - APRIL, OUTSTANDING ACHIEVEMENT AWARD, 2020 CANADA CONTINENTAL FILM AWARD - Outstanding Achievement Director에 선정됐다.

'오월의 만다라(2021)'는 2021년 제1회 국제불교영화제와 2021년 제10회 광주독립영화제에서 초청작으로 상영됐다. (문의 010-7299-0522, 프로듀서 조혜영)

박재완 기자

제31회 불교미술대전 대상



가람석공예

각종 석탑·석등·건축가공
납골묘 제작시공
조형물 특수조각
(정성과 혼을 담아)

대표 김용암
(문화재보수 기능사 제2265호)

전북 익산시 성당면 회선길11(대선리)
공방 063)861-6191 FAX 063)861-6193 H.P 010-3003-7611
E-mail 6836646@naver.com

대한불교 선밀종 종도모집

불기 2565년 대한불교 선밀종은 아래와 같이 종도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옵니다.

종도를 위한 종단 | 수행을 위한 종단 | 더불어 가는 종단

사암등록 및 안내

◈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판 사진 3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대한불교 선밀종 총본산 관정사
총무원 T. 053)854-0803 F. 053)854-0804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449 홈페이지 www.sumiljong.or.kr

“서구 ‘불교 붐’, 물거품에 불과하다”

박치완 한국외대 교수 〈불교평론〉 특집서 지적




명상하는 서구 어린이들. 서구 · 유럽의 불교 붐이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프랑스 불교 현황 · 전망 짚어
신비주의 · 기독교 프리즘으로
불교 탐구…기독교화 우려도

‘세속화되며 세계화’ 경계해야
禪보다 바른 교리 전달 필요해

‘현재 유럽, 미국인들은 동양의 종교인 불교에 열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핑크빛 상황만 펼쳐지고 있을까. 혹시 서구인들의 기독교적 시선을 통해 불교는 “기독교적 불교”로 재편되지 않을까. 서구 · 세속화된 불교를 ‘세계화로’ 착각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불교 붐은 “부말(浮沫,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치완 한국외대 교수는 〈불교평론〉 겨울호 특집 ‘불교, 서양으로 가다’에 게재한 ‘불교적 신학의 제물이 된 불교’에서 프랑스의 불교 붐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프랑스 브르고뉴대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박 교수는 앞서 ‘프랑스에 불고 있는 정체불명의 불교 붐’ 등의 글을 통해 프랑스와 서구의 불교 붐을 비판한 바 있다. 이번 논문에서도 박 교수는 “서구나 프랑스에 불교가 갖는 고차의 지식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불교는 철저히 세속화된 불교로 전락하거나 기독교화의 제물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한다. 신비주의, 무신론, 우상숭배와 같은 불교에 대한 서구 · 유럽인들의 편견은 이미 역사적 사실이나 진실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불교의 기독교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불교의 역사적 기원은

박 교수에 따르면 프랑스에 ‘불교(Bouddhisme)’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20년이다. 당시 불교는 이국적 종교에 대한 인식이었지만, 19세기 말에는 무신론 · 염세주의 · 이기주의 등의 꼬리표가 붙어 유럽 지성계에 유포됐다. 프랑스에 불교가 프랑스어로 쓰인 한 권의 저서로 소개된 것은 1844년 E.뵈르누프의 〈인도불교 역사 입문〉이 처음이다. 앞서 쇼펜하우어의 〈동양의 르네상스〉(1818)가 있었고, E.아놀드의 〈아시아의 등불〉(1879)과 C.H.S.올코트의 〈불교교리선〉(1881) 등도 일익을 담당했다.

1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스에서는 1929년 ‘불교의 벗들’이라는 단체가 조직되면서 불교의 대중화가 이뤄진다. 이처럼 20세기에 접어들며 불교는 서구 산업사회를 치유할 ‘대안 종교’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는 칼 구스타프 융이 서문을 붙인 스즈키 선사의 〈선불교입문〉이다. 1959년 출간된 이 책은 서구에 불교를 알렸지만, 선불교를 ‘신비적이고 불가사의한 것’이라는 오해의 단초를 제공했다. 20세기 중후반에 접어들면 불교는 명상, 요가 등으로 치환돼 ‘세계적 불교’로 위상을 갖추게 된다.

박 교수는 이 과정을 ‘불교의 현지화’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본질에서 벗어나 세속화된 상태를 ‘서구 · 유럽에서 불교의 현대적 발전’이라고 볼 수 없어서다.

그는 “이국의 땅에서 임의로 재구성된 불교는 기독교적 프리즘의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불교적 신학’이나 ‘개신교적 불교’라는 표현도 주저없이 사용할 정도로 불교는 서구 · 유럽에서 감초처럼 소환돼 기상천외하게 ‘요리’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서구 전법사도 “불교 부재” 오도

박 교수는 논문에서 루뱅대 신학부 교수 O.리오델과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불교 · 비교종교학자 D.지라, 서구 대표 전법사 롬블뤼에르의 불교관을 통해 서구인들이 기독교적 프리즘으로 불교를 재단하는지를 살폈다.

리오델의 경우 ‘절대적인 것에 형용불가능성과 유한세계의 진리’라는 논문에서 불교철학의 아킬레스건으로 ‘형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 해법을 칸트, 헤겔 등에서 찾으며 불교를 유한세계에 머무는 종교로 예증한다. 지라는 ‘환생, 윤회, 육신의 부활’에서 환생과 연기의 메타적 결합을 강조하며 ‘하나님(신)의 사랑’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소토교단에서 비구계를 받고 ‘자운’이라는 법명을 가진 전법사 롬블뤼에르는 ‘불교 부재론’을 말한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불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닌 이질적이고 새로운 문화”라고 단정하며 “불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파한다.

박 교수는 “리오델, 지라, 롬블뤼에르를 통해서 불교는 여전히 기독교 문화의 우산 아래 있다”고 지적하며 “프랑스인들에게 ‘불교 붐’은 신비적 · 불가사의한 · 비논리적인 것에서 ‘서구 · 유럽 안에 있는 동양의 발견’으로 재구성돼 더 없는 호시절을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에서는 명상, 요가, 건강관리, 심리치료 등이 불교 수행의 처음이자 끝”이라며 “불교가 서구 · 유럽인들의 삶 속으로 점점 파고들고 있다. 불교는 세속화되면서 오히려 세계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 불교 전파 노력해야

박 교수는 서구 · 유럽 사회에 불교 교리를 올바르게 전해야 현재와 같은 참상을 막을 수 있다고 봤다. 한국불교계가 서구 · 유럽 불교 현황만을 파악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진단도 내놨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서구 · 유럽인들을 위해 한국불교계는 선이나 명상 수행만을 중시하기보다 교학을 대중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서구 · 유럽인들과도 상호종교적 · 비교종교학적 교류를 꾀해야만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교평론〉 겨울호 특집 ‘불교, 서양으로 가다’에서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호주 등의 불교 전래 역사와 신도 수 현황, 앞으로의 전망 등을 담은 논문들이 수록됐다.

논단에서는 수의사 출신 수행자인 공일 스님이 ‘코로나19에 대한 불교의학적 시선’을 통해 전염성 질병에 대한 불교의학적 관점을 소개했다. 또한 대표적인 불자 소설가인 정찬주 씨가 신작 단편소설 〈자화장(自火葬)〉을 선보였다.

불교평론 편집위원장 이혜숙 박사

11월 30일 밝혀… 첫 여성 편집위원장



계간 〈불교평론〉 신임 편집위원장으로 이혜숙 박사〈사진〉가 선임됐다.

〈불교평론〉은 “2022년부터 편집위원회를 이끌 새 편집위원장으로 이혜숙 박사를 선임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이혜숙 박사는 〈불교평론〉 최초 여성 편집위원장이다.

신임 이혜숙 편집위원장은 경기여고,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동안 동국대와 금강대 등에서 사회복지학을 강의해온 불교학자다.

이 위원장은 대학 강의 외에도 그동안 여성 노숙자 자활시설 화엄동산 소장, 종교사회복지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국제교류위원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해온 활동가다. 신성민 기자

제2회 불교상담학술상에 문일수 교수

불교상담학회, 11월 28일 시상식 개최


한국불교상담학회는 11월 28일 제2회 불교상담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안양규)는 11월 28일 경주 현곡 지엄선실에서 제2회 불교상담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 문일수 동국대 의대 교수가 불교상담학술상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서병찬 휴&메디 치유연구소 대표와 이충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에게는 상장과 함께 200만 원의 상금, 장려상에게는 상장과 함께 1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전달됐다. 올해 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선정되지 못했다.

문일수 동국대 의과대 교수는 ‘싸띠 수행의 뇌과학’을 서병찬 대표는 ‘불교와 숲 치유’, 이충현 박사는 ‘인공지능 시대의 심리치료’를 주제로 연구했다.

‘싸띠 수행의 뇌과학’ 연구는 불교명상을 뇌과학과 접목해 구체적인 뇌 변화를 기술하고 선도적인 연구방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일수 교수는 캐나다 프레더릭턴(Fredericton) UNB 박사이며 1994년부터 동국대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서 뇌신경세포와 뇌질환을 연구 중이다.

서병찬 대표의 ‘불교와 숲 치유’ 연구는 숲 치유 프로그램과 불교 수행의 관련성을 고찰하고 현대인들을 위한 심신 치유 효과를 정리했다. 이충현 교수의 ‘인공지능 시대의 심리치료 핵심 역량으로서의 마음챙김’ 연구는 인공지능의 장단점과 한계성을 마음챙김 수행과 연결해 고찰했다. 하성미 기자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 특별전형 모집

12월 20일~29일 인터넷 접수
석 · 박사 등 정규 학위 취득

불교 경영 · 미디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가 내년도 1학기 특별전형 신입생을 모집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불영 자광)은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가 특별전형으로 2022년도 1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1월 29일 밝혔다. 일반대학원 정규과정인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는 불교학과, 경영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참여하는 협동과정으로 해당 과정을 이수하면 사회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는다.

그런 만큼 참여하는 교수진들도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다. 불교학과에서는 김종욱(불교철학) · 신성현(계율학) · 허남결(불교응용윤리학) · 이자랑(불교교단사) · 조기룡(종무행정과 사찰경영) 교수가 참여하며 경영학과는 김승용(조직행위) · 정구혁(인적자원관리) 교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는 김관규(방송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 김용환(디지털/소셜미디어) 교수가 강의를 맡는다.

신성민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45



▶ 46회 예고
데비는 아들 마힌다를 위해 산치 절에 있는 사문이 축원해 주기를 원한다. 마침 산치에 있는 데바 가족의 절에는 앙가국 짬빠에서 온 비베깐난다 사문이 와 있었다. 데바 부인은 즉시 하인을 보내 비베깐난다 사문을 데리고 온다.

데비, 마핸드라를 출산하다

베디샤데비가 시프라강 언덕에 있는 별궁에서 사내아이를 출산했다. 별궁 궁녀 우두머리가 경비대장에게 데비의 출산 소식을 알려왔고, 경비대장은 즉시 아쇼까에게 보고했다. 아쇼까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말을 타고 별궁으로 달려갔다. 보름달이 시프라강 너머 검푸른 서쪽 하늘에 떠 있는 꼭두새벽이었다. 밤안개가 옅게 드리워져 보름달 주위에는 둥그런 달무리가 져 있었다. 달무리 밖에서는 몇 개의 새벽별이 적막하게 빛났다.

기름불 불빛이 산실로 쓰인 방 안을 환히 밝히고 있었다. 다행이 데비와 갓난아기 모두 아무 탈 없이 건강했다. 아쇼까를 본 데비가 침대에 누운 채 희미하게 웃었다. 아쇼까가 데비를 위로했다.

"부인은 나에게 큰 행복을 주었소."

"아기가 당신을 닮은 것 같아 더 기뻐요."

데비의 뺨에는 땀방울이 송알송알 맺혀 있었다. 아쇼까는 땀에 젖은 데비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이마를 반쯤 덮고 있던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은 밤새 산고에 시달렸던 흔적이었다. 데비가 말했다.

"아기 이름을 지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만 하고 있소."

"아직 짓지 못했다는 말씀이군요."

"며칠 전에 지은 이름이 있기는 한데 더 좋은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소."

아쇼까가 남아와 여아의 이름을 하나씩 지어놓은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더 마음에 드는 이름을 짓고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었다. 궁중 제관들에게 이름을 부탁했지만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를테면 궁중제관들이 내놓은 아들 이름으로 마하윗자(큰 지혜)라거나 딸이름으로 웃제니수카(웃제니의 행복) 등이었던 것이다. 결국 아쇼까 자신이 짓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쇼까가 아기 이름을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유는 산치 동산 절에서 담마팔 사문에게 들었던 이야기 때문이었다. 담마팔 사문은 데비의 전생과 금생, 데비가 낳을 자식들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다. 데비는 전생에 사람들에게 보시를 많이 하여 금생에 부잣집 딸로 태어났으며, 자식을 낳으면 그 공덕으로 아들이든 딸이든 '존귀한 귀인' 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아쇼까가 담마팔 사문에게 '존귀한 귀인' 이란 어떤 사람이냐고 재차 묻자 세상에 나오면 수승한 왕이 되고, 세속을 벗어나 출가하면 사문이 될 운명이라고 예언해주었던 것이다. 때문에 아쇼까는 담마팔 사문의 예언과 걸맞게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집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데비가 말했다.

"처음에 지은 이름이 무엇이었지요? 아버지께서 길을 잃었을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마핸드라, 마하와 인드라가 합쳐진 이름이오."

마하는 '크다' 라는 의미였고 인드라는 번개의 신 혹은 군신, 영웅신, 하늘의 주인을 뜻했다.

"당신답군요."

"어째서 그렇소?"

"당신은 아반띠국의 군신이자 영웅이시니까요."

"마핸드라가 마음에 든다는 말이오?"

"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데비가 좋다고 하자 아쇼까는 즉석에서 우두머리 궁녀가 안고 있는 아기에게 다가가 이름을 불렀다.

"마핸드라. 인드라신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마핸드라야!"

강보에 쌓인 마핸드라를 건네받은 아쇼까는 더없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흡족해 했다. 그러자 데비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딸 이름은 뭐라고 지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니 말하면 안 될 것 같소."

"저는 딸이든 아들이든 더 낳고 싶어요. 저는 마핸드라 동생은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당신을 닮은 딸이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소. 마핸드라가 나를 닮았으니 딸은 당신을 닮아야 하지 않겠소?"

"그렇게 된다면 공평하겠네요."

"공평하다고 하니 말하지 않을 수 없소. 딸이름은 상가미트라라고 지었소."

상가는 승가, 미트라는 친구였다. 그러니 상가미트라는 '승가의 친구' 라는 뜻이었다.

"데비가 사문의 친구였듯 딸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상가미트라라고 지었소."

데비는 아주 만족했다.

"딸을 낳으면 반드시 상가미트라라고 하겠어요."

"데비가 좋다면 나야 반대할 이유가 없소. 내성 밖의 저잣거리 사람들은 상가밋따라고 부를 텐데 어감이 괜찮은 것 같소."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는 브라흐민 귀족들은 상가미트라, 외성이나 성 밖에 사는 평민들은 상가밋따로 부를 터였다. 마핸드라도 성 밖의 사람들은 마힌다로 부를 것이었다.

궁으로 돌아온 아쇼까는 경비대장에게 베디샤데바를 불러오게 했다. 마침 데바는 내성에 있는 자신의 저택에 있었다. 데바는 데비의 출산 소식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자축하고 있던 중이었다. 데바를 찾아온 경비대장이 말했다.

"데바 수장님, 부왕님께서 부르십니다."

"무슨 일인가요?"

"부왕님께서 데바 수장님과 함께 자축연을 갖고 싶어 하십니다."

"아, 고마운 일이지요."

데바는 당장 궁으로 갈 채비를 했다. 데비 별장으로 가려던 데바 부인이 하녀들에게 지시했다.

"부왕님께 보낼 술과 과일을 수장님 마차에 가득 싣거라."

"예."

"나는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 볼 테다."

"예, 데비님 별장으로 갈 마차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데바는 아쇼까 궁으로 서둘러 떠났고, 데바 부인은 데비 별궁으로 가져갈 갓난아기 저고리와 기저귀 용도의 무명 등을 챙겼다. 데비에게는 새로 지어 입을 까시산 비단을 넉넉하게 꺼내 마차에 실었다.

베디샤데바가 궁중 접견실에 도착했을 때는 늙은 선봉대장과 호위대장도 와 있었다.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나 맞이해 주었다.

"데바 수장님! 왕손 탄생을 축하합니다."

최측근 심복인 늙은 호위대장이 말했다.

"부왕님께서 왕손님이 탄생했으니 감옥에 죄인들을 풀어주고 성민들에게 술을 하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데바는 손자가 탄생한 것을 비로소 실감했다. 자신을 대하는 대장들의 태도는 한결 부드럽고 정중했다. 상인수장인 데바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끄샤뜨리야 무사계급이라는 것을 은근히 바이샤 상인계급인 데바에게 내비치곤 했던 것이다. 이제 데바는 신분을 떠나서 아쇼까 부왕의 확실한 장인이었다. 아쇼까가 접견실로 들어섰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치면서 축하했다.

"부왕님이시여, 축하드립니다!"

궁녀들이 술과 과일을 가지고 들어왔다.

"연회장은 지금 닫혀 있을 텐데 누가 가져온 것이오?"

데바가 말했다.

"저의 집에서 급히 가져와 변변치 않습니다."

"오, 데바 장인도 나 못지않게 기쁜 모양이오."

"왕손이 태어났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기 이름을 마핸드라라고 지었소."

선봉대장이 바로 이름의 뜻을 풀었다.

"마하에다 인드라를 합친 이름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경비대장도 한 마디 거들었다.

"웃제니 말로는 마힌다이니 웃제니 사람들은 마힌다라고 부를 것입니다."

"대장, 궁중제관들은 어디 갔소? 결국 내가 지은 이름으로 결정했지만 제관들도 고심했다오."

"출산 소식을 듣자마자 시프라강으로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이제 돌아올 시간이 되지 않았소?"

궁중제관의 기도는 아침해가 뜨기 전까지였던 것이다. 아쇼까는 제관들이 빨리 돌아와 합석해서 마핸드라를 축원해주기 바랐다. 이른 새벽에 기도하러 나갔으니 이제 돌아올 시간인 것이었다. 그러나 궁중제관들은 시프라강 강변에서 아직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다. 마핸드라의 탄생은 그만큼 경사 중에 경사였기 때문이었다.

궁녀들이 다가와 아쇼까의 금잔과 데바와 대장들의 은잔에 술을 따랐다. 아쇼까가 금잔을 들고 짧게 말했다.

"데비와 마핸드라 건강을 위하여!"

"부왕비와 왕손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술이 몇 잔 오간 뒤였다. 늙은 호위대장이 말했다.

"부왕님이시여, 성민들에게 술을 내리시는 지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감옥의 죄인들을 다 풀어주라는 말씀은 재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이오?"

"죄인 중에도 살인, 강간, 도둑 등 중죄인이 있고, 사소한 폭력이나 비방, 모욕 등 경죄인이 있습니다. 중죄인과 경죄인을 모두 풀어주었다가는 성민들이 불안해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대장들의 생각은 어떻소?"

"선봉대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데바가 다른 의견을 냈다. 아쇼까의 지시와 대장들의 충언을 절충한 셈이었다.

"살인을 저지른 죄인은 가두어두고, 그 밖의 중죄인은 아반띠국 변방에서만 살게 하고 경죄인은 풀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아쇼까가 웃으며 데바의 의견을 따르도록 지시했다.

"중죄인 얼굴에 낙인을 찍어서 변방으로 보내 살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일이오."

뒤늦게 궁중제관이 나타났다. 아쇼까는 궁중제관에게 직접 자신의 금잔에 술을 따라주며 치하했다.

"마핸드라 탄생을 위해 기도하고 온 그대에게 특별히 금잔에 술을 내리겠소."

"부왕이시여, 황송하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았지만 아쇼까와 데바의 얼굴색은 그대로였다. 술이 약한 경비대장의 얼굴은 황토빛깔처럼 붉었다. 나머지 대장들도 취기가 올라 불콰했다. 아쇼까가 데바를 보면서 말했다.

"다음 순행지는 수나빠란따국이오. 데바 장인도 동행해 주시오."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반띠국에 복속된 수나빠란따국은 아반띠국 남서쪽 끝에 바다를 안고 있는 나라였다. 바다를 통한 해외무역이 일찍부터 성했던 나라로 진귀한 물건들이 많았으므로 내륙의 상인들이 늘 주목하고 있는 곳이었다. 데바는 자나 깨나 수나빠란따국의 상인수장과 친해지려고 노력해 왔는데 동행하게 된다면 더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자축연이 끝나자마자 데바는 바로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데바부인은 데비 별궁으로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저택에는 하인들만 있었다. 데바는 술기운을 빌어 호기 있게 혼자서 소리쳤다.

"부왕님을 따라서 수나빠란따국을 가다니! 데비가 아들을 낳으니 경사가 겹치는구나. 수나빠란따 상인수장을 만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가."

하인들이 놀라서 슬그머니 물러섰다. 그러나 데바는 곧 흥분을 가라앉혔다. 수나빠란따 상인수장을 아직 만나지 않았을 뿐더러 그를 설득해서 독점계약을 맺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었다. 〈계속〉



일일시호일

유방암이 앗아간 소박한 꿈…
치료만이 희망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우샤니씨 유방암으로 가슴 절제
전이 가능성 높아 항암치료 필수지만 매회 120만원은 부담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23 한국선에서 선과 교의 전통



▶ 한줄 요약

한국의 선종사에서 선과 교의 관계는 때로는 차별 내지 차이의 전통이 주장되었고, 때로는 일치 내지 융합의 전통이 강조되었으며, 때로는 선을 중심으로 삼고 교학을 보조적인 입장으로 내세우는 선주교종의 전통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차별·융합 오간 한국 禪·敎 역사

1. 선교차별에서 선교융합으로

한국의 선종사에서 신라 말기 선법의 수입시기에 선법을 정착시키려는 과정에서는 선교차별(禪敎差別)의 모색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가지산문(迦智山門)의 도의(道義)가 승통 지원(智遠)에게 제기한 무념무수(無念無修)의 문답, 사굴산문(闍崛山門)의 범일(梵日)이 제기한 진귀조사설(眞歸祖師說), 성주산문(聖住山門)의 무염(無染)이 제기한 무설토론(無舌土論) 등은 처음으로 소개하는 선법을 홍보하려는 궁여지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선과 교의 관계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동은 고려 중기에 이르러 보조 지눌(普照知訥, 1158~1210)에 의해 융합적인 전통으로 형성되었다. 지눌은 선사이면서도 다양한 저술을 통해서 선법의 이론뿐만 아니라 선수행법과 그 접화법에 대해서도 폭넓게 주장하였다. 이러한 전통이 조선 중기 청허 휴정(淸虛休靜, 1520~1604)에 이르러서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우선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선교차별을 주장하지는 않았던 입장인데, 청허 휴정의 나이 40대 중반에 저술된 〈선가귀감(禪家龜鑑)〉에 잘 드러나 있다. 휴정은 기존의 선교차별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면서 결국 선과 교에 대하여 선 우위의 입장으로 회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휴정의 이와 같은 선교융합(禪敎融合)의 태도는 그의 만년에 저술된 〈선교석(禪敎釋)〉과 〈선교결(禪敎訣)〉에서는 사뭇 달라졌다. 표면적으로는 선주교종(禪主敎從)의 융합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선가귀감〉의 경우와 달리, 만년에는 선교차별의 입장으로 돌아섰다.

가령 청허의 저술에 나타난 일반적인 선사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당시의 모든 불교에 대하여 교학과 선의 입장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려는 태도였는데, 그 하나가 선과 교에 대한 관점으로 나타났다. 선과 교는 우열의 차이가 없다는 것에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고인의 말을 인용하여 그 일치에 동조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선의 우월적인 입장에서 교학을 평가하는 자세가 주류를 이루었다. 곧 선과 교의 깊고 얕음을 피력하여 교문에서는 오직 일심법(一心法)을 전하고, 선문에서는 오직 견성법(見性法)을 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불의 설법인 경전의 경우는 먼저 제법을 분별하고 나중에 필경공(畢竟空)을 설하였지만, 조사가 내보인 삼구(三句)의 경우는 의지(意地)에서 자취를 제거하고 심원(心源)에서 도리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 자취는 조사가 내보인 언설의 가르침이었고, 의지는 선수행자가 지니고 있는 깨치려는 마음이었다.

2. 선교융합에서 선주교종으로

휴정은 상근기를 지닌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말에 한정되지 않지만, 중하근기를 지닌 자는 꼭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한다. 교리의 경우는 불변(不變)과 수연(隨緣)과 돈오(頓悟)와 점수(漸修)로서 선·후가 있지만, 선법의 경우는 찰나에 불변과 수연과 성(性)·상(相)과 체(體)·용(用)이 들어 있어서 원래 동시이기 때문에 명안종사(明眼宗師)는 법에 의거하고 언설을 초월하여 직지일념(直指一念)으로 견성성불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휴정의 주장에서 교의를 초월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결국 휴정은 선과 교는 부처님으로부터 비롯된 점에서는 동일할지라도, 선문과 교문을 통해 공부하는 사람의 수준과 그 행위 및 자취에는 분명히 차별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휴정은 선 우위의 선교차별의 입장이면서도 선교일치(禪敎一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하여 교학과 선법의 상호에 융통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궁극적으로는 선교차별을 위한 임시적인 제스처였을 뿐으로 선주교종(禪主敎從)의 또 다른 포석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전통은 해동에 선법이 전래된 이후로 선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입장이기도 하였다. 일찍이 고려 중기에 출현한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에서도 그랬듯이, 휴정의 경우도 선과 교학의 차이점 내지 선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게 되었다. 곧 선문에서 내세우는 심인(心印)의 입장은 수행을 시작한다는 것과 깨침을 터득한다는 것조차도 초월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선교석〉에서는 선과 교의 차별에 대하여 대조시키면서 분별하여 설명한다. 청허는 옛날의 글에서 인용하여 선과 교의 차별을 17가지 주제에 의거하여 설명하면서, 간혹 주제에 대한 문답형식을 취하여 구체적인 해설을 가하여 선교차별의 전승을 수용하고 있다. 거기에는 〈진귀조사설〉, 성주화상(聖住和尙)이 〈능가경〉을 읽다가 그 한계성을 느끼고 당나라에 유학했다는 내용, 도윤화상(道允和尙)이 〈화엄경〉을 읽다가 마찬가지로 선법의 공부를 위하여 유학했다는 내용, 무염국사와 문성대왕의 문답한 내용 등이 수용되어 있다.



청허선사 진영.

선법 정착과정서 선교차별 경향 대두
고려 중기 지눌 의해 융합 전통 형성
휴정, 禪主敎從 융합에서 선교차별로
백파, 임제종지 활용 간화선 주창 강조

한편 〈선교결〉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청허의 나이 70대 후반에 저술된 것으로서 선과 교의 차별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점에서는 〈선교석〉의 경우와 같은 입장이지만, 선과 교의 각각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교석〉과 차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선지(禪旨)를 잘못 이해하여 돈점문을 정맥(正脈)이라 간주하고 원돈문을 종승(宗乘)으로 간주하는 자세를 질책하면서 반드시 교외별전의 바른 도리를 터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선과 교의 각각의 특징에 대하여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말이 없는 경지로부터 말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은 선이고, 말이 있는 경지로부터 말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은 교라는 말로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결국 선문에서 귀중하게 간주하는 것은 경절문(徑截門)의 활구를 통하여 남을 가르쳐서 깨우치고 자신도 스스로 깨우쳐서 본분종사(本分宗師)의 안목을 구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점은 이전에 휴정이 〈선가귀감〉을 통해서 주장했던 선교일치도 결국은 명목상으로는 선주교종의 융합을 주장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선교차별의 다른 표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선주교종에서 선교융합으로

한편 부휴 선수(浮休善修, 1543~1615)는 무자화두(無字話頭)를 통한 선지를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부휴의 수행과 사상의 이면에는 항상 교학을 바탕으로 한 좌선의 수행으로 일관하였다. 선수는 널리 대장경을 열람하고 난 이후에 선법에 매진한 보편적인 수행자의 공부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교학의 바탕에 근거한 선법의 수행이었다.

선수는 스승이었던 부용 영관(芙蓉靈觀, 1485~1571)의 학문 방법에 대하여 선지를 깊이 이해하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어 선법의 가풍을 높이 드날리는 것으로 흠모하였다. 이것은 먼저 바른 안목을 터득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결과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격외선지(格外禪旨)의 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교와 선에 대한 구분은 무엇이 우위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별을 위한 구분이 아니라 명확한 안목을 갖추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교와 선의 각각의 측면으로 분류한 것이었다. 그것은 불법수행의 길잡이인 교학을 통하지 않고서 선법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눈이 없이 길을 가는 것처럼 헛수고만 할 뿐이고, 더욱이 위험천만한 것으로 잘못 사교(邪敎)에 치우칠 염려가 있으며, 또한 견성성불(見性成佛)하는 선법을 체험하지 않고 교학에만 머물러 있으면 불법(佛法)의 진수를 터득하지 못하여 끝내 열반의 길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경계하였다. 이것은 선법과 교학에 대한 선수의 정통적인 입장을 드러내 준 것이기도 하다.

한편 환성 지안(喚惺志安, 1644~1729)은 선종오가에 대한 일종의 강요서로서 〈선문오종강요(禪門五宗綱要)〉를 편찬하였다. 이것은 일찍이 송 대에 회암 지소(晦巖智昭)가 선종오가에 대하여 선리를 종합적으로 집대성한 〈인천안목(人天眼目)〉을 바탕으로 하였고, 나아가서 천책(天頙)의 〈선문강요집(禪門綱要集)〉의 내용을 보충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환성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북해 함월(北海涵月)이 붙인 서문(1749)에 잘 드러나 있듯이, 선문의 교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근거한 것이었다.

한편 무경 자수(無竟子秀, 1664~1737)는 〈선교대변(禪敎對辨)〉에서 휴정의 〈선가금설록(禪家金屑錄)〉을 근거로 선과 교에 대하여 논하였고, 또 〈진각대사망정록(眞覺大師忘情錄)〉을 근거로 하여 대승원교·대승돈교·대승시교의 삼교에서 말한 바도 역시 선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보았다. 기타 〈불조진심선격초(佛祖眞心禪格抄)〉와 〈순정록(順正錄)〉의 말을 통하여 교문의 걸림이 없는 법은 바야흐로 일미로 돌아가지만, 그 일미의 흔적마저 불식시켜주는 것이 곧 선가에서 일심을 관찰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후에 백파 긍선(白坡亘璇, 1767~1852)은 환성의 임제종지의 선리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간화선 수행법의 주창을 강조하였다. 곧 임제삼구(臨濟三句) 가운데 제일구에서 그 도리를 깨치고 수용한다면 삼세제불과 역대조사의 스승이 될 만한 대장부가 된다고 하였다. 제이구는 제일구를 드러내고 그것을 파악하고 실천토록 하는 방편과 본분의 기능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다. 때문에 긍선에게서는 방편과 진실이 두루 드러나고 실행되어 여러 가지 교의가 등장한다.

임제의 삼구에 대하여 백파 긍선은 제일구의 성격을 조사선(祖師禪)에 비유하고, 제이구는 여래선(如來禪)에 비유하며, 제삼구는 의리선(義理禪)에 비유하여 삼종선의 입장을 내세웠다. 한편 긍선은 본분(本分)과 신훈(新熏)을 두루 보편적으로 제시하여 신훈만 있고 본분이 없는 경우를 의리선으로 보았고, 본분만을 여실하게 드러내면 조사선이라 보았으며, 본분에 신훈을 아울러 제시하는 것을 여래선으로 보았다. 그런 바탕에서 본분진여를 개시하고 진공묘유를 직시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편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긍선의 입장은 선리에 근거한 선법의 강주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선종오가 가운데서 임제종만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기타 사종에 대해서는 모두 방계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것은 휴정의 〈선가귀감〉을 계승한 것인데, 이후 용성 진종(龍城眞宗, 1864~1940)의 어록에도 고스란히 계승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선종사에서 선과 교의 관계는 때로는 차별 내지 차이의 전통이 주장되었고, 때로는 일치 내지 융합의 전통이 강조되었으며, 때로는 선을 중심으로 삼고 교학을 보조적인 입장으로 내세우는 선주교종의 전통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한국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단서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한 한국선의 보편적인 입장과 특수적인 입장의 양면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동국대 HK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완벽시설, 가격 198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방문시 8천만원 하는 마이크 있음을 스마트폰 확인해 드림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89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슛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8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8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㉓ 지은원 소장 〈관경16관변상도〉

▶ 한줄 요약
일본 교토 지은원 소장 〈관경16관변상도〉의 모든 불보살들은 연화대 위에 앉거나 서 있다. 연꽃은 불교에서는 필수불가결한 도상이다. 무명업장을 녹인 자리가 곧 극락이고, 이를 상징하는 게 연꽃이다.



무명 밝힌 자리엔 연꽃이 핀다

〈관경16관변상도〉(속칭 극락도) 속의 모든 성자들은 연화대 위에 있다. 부처님과 보살님이 앉거나 서거나 모두 연꽃을 기반으로 한다. 물론, 이는 본 그림에만 해당하는 사실이 아니다. 지구상의 불교미술 전체를 통틀어 적용되는 핵심 특징이다. 만약 부처님이 연꽃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물체 위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사이비(似而非, 겉은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름) 불교미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이렇듯 연꽃은 불교에 필수불가결한 도상이다.

연꽃은 어디에 피는가? 본 그림 가운데의 아미타3존을 둘러싸며, 화면의 사면 외곽에는 총 8개의 극락연못이 존재한다. 숫자 '8'은 '영원'을 상징하는 무한의 숫자이고, 조형화하면 '○'(원형)으로 표시한다. 불교에서는 특히 8이란 숫자가 많이 나온다. 8정도 · 108번뇌 · 8공덕수 · 8대보살 · 48대원 · 8만4천 광명 등. 공간미술에서 8각은 둥근 원형 '○'을 지향한다. '○' 표시는 특히 선종에서는 '궁극의 깨달음'을 그 자체를 나타내는 표식으로 그 유구한 전통을 자랑한다.

아무튼 8개의 극락연못 속 왕생인물도 마찬가지다. 모두 연꽃 위에 앉아 있다. 자색과 하얀색의 연꽃잎이 3중 중층으로 활짝 피었고 그 안에 연방(연씨를 품은 꽃턱)이 평평한 받침대 역할을 한다. 부처 · 보살님과 왕생인들, 다 이렇게 연꽃 위에 있다. 이렇듯, 우리는 "연화대 위에 앉아 있다" 또는 "연화대 위에 서 있다"라는 표현에 익숙해 있다. 그래서 '연화(또는 연꽃)'을 그저 '대좌 또는 받침'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는 본질적으로 '연화화생(蓮華化生)'을 나타낸다.



그림①

그림①. 일본 교토 지은원 소장 고려불화 〈관경16관변상도〉의 하단 부분. 1323년에 조성됐다.

그림②. 지은원 소장 〈관경16관변상도〉의 중품중생의 연화화생 장면. 극락의 연못이 표현됐다.

〈관경변상도〉 모든 불보살들
연화대 위에 앉거나 서 있다
연꽃은 불교서 필수적인 도상

무명업장을 녹인 자리가 극락
연화화생은 곧 극락왕생 의미



그림②

극락 연꽃은 어디에 피나

연꽃 위에 '앉아 있고' 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꽃에서 '화생' 하였다는 의미이다. 즉, 연꽃에서 태어났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연꽃이 '존재의 바탕'이 된다. 연꽃 따로, 존재 따로가 아니라, 연꽃과 존재는 필수 불가결의 관계에 있다. 더 쉽게 말하면, 연꽃이 해당 존재의 엄마가 되는 것이다. 존재의 모태가 자궁이 아니라 연꽃이라는 말이다. 태생(胎生)이 아니라, 화생(化生)하게 된다. 화생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청정한 바탕(법신)' 한 바탕에서 연기(緣起)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불(化佛) · 화신(化身) · 응화신(應化身) · 화신불(化身佛) 등의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무명이 아니라 청정 바탕에서 연기하여 모양새를 갖추는 경우에는 모두 화생에 해당하기에 '화(化)'자를 어두에 쓴다. 청정한 바탕에서 청정한 에너지가 나와 무상하게 이합집산하는 것을 법계연기라고 한다. 이렇게 '연기화생(緣起化生)' 한 모습이 정토의 모습이고 극락의 모습이다. 물론 우리 중생은, 청정한 바탕이 아니라 무명의 바탕에서 시커먼 에너지가 응집된 덩어리이다.

그렇다면, 이 '연꽃은 어디에 피는가?' 이에 대한 답부터 언급하자면, '스스로가 무명업장을 맑힌 그 자리에 핀다.' 업장을 맑히면 그 자리가 극락이다. 현재 내 바탕자리는 '무명(無明)'이다. 내 존재의 근원이 무명이기에 고통스럽게 윤회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인간 세상(人道)를 포함한 육도윤회의 세계는 무명을 기반으로 형성된 세계이다. 반대로 열반(부처 보살)의 세계는 청정업(淸淨業)을 바탕으로 한다. 무명을 맑히는 것은 나의 현재 밑동을 치는 것이다.

즉, 윤회의 기반을 없애는 작업이다. 그 비결을 최초로 알려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그것을 설파한 것이 불교이다. 무명을 없애는 법, 그것은 12연기(緣起)를 보는 것이다. 덩어리를 해체해서 보면 사라진다. 해체되는 순간, 공(空)의 자리가 드러난다.

12연기는 무명의 본 모습이다. 무명 덩어리를 산산이 해체한 결과이다. 그래서 붓다께서는 "연기를 보는 자 나(부처)를 본다"라고 하셨다. 그러면 연기라는 진리를 어떻게 보느냐. '선정과 지혜(정혜, 定慧)로 본다. 붓다께서 누차 말씀하신 노하우 '계(戒)-정(定)-혜(慧)'다.

연화화생=극락왕생, 무슨 뜻

연화화생을 다른 말로 '극락왕생(極樂往生)'이라고도 한다. 한 번 더 풀이하자면, 극락에 태어나는 것을 "극락 연못에 왕생한다"고 한다. 극락 연못과 극락 땅에는 연꽃이 가득 피었다. 그 연꽃에서 화생하게 된다는 말이다. 불자들이 영원불변 염원, 극락왕생! 극락왕생과 연화화생은 같은 말이다. 그러면 연화화생은 무슨 뜻일까? 여기서 연꽃이 무슨 의미인지 먼저 알 필요가 있다. 불교에서 연꽃은, 지상의 수초인 연꽃을 곧이곧대로 의미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의 꽃'을 비유한 말이다. 반야의 눈이 떠질 때, 깨달음에 근접할 때, 세세생생 닫혀 있던 봉오리는 열리게 된다. 그 모양이 '천 잎의 연꽃'과 매우 비슷하다. 꽃만 꽃을 피우는 게 아니고, 사람도 꽃을 피운다. '깨달음의 꽃'이다. 그러면 이 깨달음의 꽃 모양새가 어떤지, 아미타3부경에 언급된 내용을 보도록 하자.

극락세계에는 여러 가지 보배로 된 아름다운 연꽃이 온 불국토에 가득 피었는데, 보배로운 꽃송이마다 백천 억의 꽃잎이 있고, 거기서 발하는 광명은 한량없는 빛깔로 이루어졌다.(중략) 한 꽃송이마다 삼십육 백천 억의 헤아릴 수 없는 광명을 발하고, 그 하나하나의 광명 속에 삼십육 백천 억의 부처님이 나투시니, 몸은 자마금색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중략) 각각 부처님이 헤아릴 수 없는 백천의 광명을 비추어, 시방세계의 중생을 위해 미묘한 법문을 설하신다.
-〈무량수경〉 '극락정토의 장엄' 중

이러한 모양새를 직접 체험한 고려시대 화승들은 이것을 고려불화에 가감 없이 그려놓았다. 본 〈관경16관변상도〉에는 "보배 연꽃이 불국토에 가득 피었다"를 옮겨놓듯, 무수한 연꽃이 연못에 온통 가득하다.

"극락세계에는 8공덕수를 갖춘 보배연못의 물이 있다. 이 물은 여의주에서 흘러 나왔느니라. 이 물 줄기는 황금의 연못을 이루고, 그 연못 바닥은 눈부신 금강석이 깔리고, 황금 연못마다 60억 개의 칠보 연꽃이 피었다. 그 연꽃은 둥글고 탐스럽고 크기가 12유순이나 된다."
-〈관무량수경〉 '공덕수를 생각하는 관' 중

또 〈아미타여래도〉(일본 선림사 소장)의 연화대는 매우 장엄하기로 유명하다. 특히 연꽃 잎사귀의 잎맥 표현이 철선묘의 금니(金泥)로 압도적이다. 한 연꽃잎마다 극세필로 그려진 잎맥 선의 숫자가 무려 60줄을 넘는다. 오롯이 뿜어 나는 무수한 마이크로 잎맥 선들만 보아도, 극락의 풍경 한 자락을 체험하는 듯하다.

"연꽃의 꽃잎마다 백 가지의 보배 빛깔이 있고, 그 꽃잎에는 8만 4천 줄의 잎맥이 있는데, 마치 천상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그 잎맥 마다 다시 8만 4천의 광명이 빛남을 분명히 보도록 하라."
-〈관무량수경〉 '연화대를 생각하는 관' 중

근기가 낮은 중생은 이러한 풍경을 실제로 체득하기 어렵기에, 이렇듯 불교 경전과 불교 그림에서 비유하여 최대한 가깝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향벽련대(벽련대반)', 푸른 연꽃으로 향하다

조계종 천도재 때 교과서 격에 해당하는 〈관음시식(觀音施食)〉을 보면, '증명청(證明請)' 대목에서 '향벽련대반(向碧蓮坮畔)'이란 용어를 만날 수 있다.

手擎千層之寶盖 身掛六銖之花蔓 導請魂於極樂界中 引亡靈 向碧蓮坮畔 大聖引路王菩薩摩訶薩 唯願 慈悲 降臨道場 證明功德(손에 천층의 보개를 받들고/ 몸에 온갖 꽃목걸이 걸치시고/ 영가를 극락으로/ 인도하시며 망령을 이끌어/ 벽련대반으로 향하게 하시는/ 큰 성인 인로왕보살이여/ 원컨대 자비로 강림하시어/ 증명의 공덕을 베푸소서)

이 같은 해당 부분의 용례의 쓰임을 보면, '引亡靈 向碧蓮坮畔(망령을 인도하여 벽련대반으로 향하게 한다)'라고 하여 바로 앞 구절의 극락세상을 말하는 비유의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육도윤회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푸른 연꽃 대좌가 있는 연못으로 향하게 한다는 표현이니, 이는 영가를 이끌어 극락의 연못에 '연화화생' 또는 '극락왕생' 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임을 바로 알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벽련대반'이라는 용어는 '극락의 푸른 연꽃 물가'를 지칭하고, '향벽련대반'은 '벽련대반으로 향해 간다'라는 말이니, '연화화생'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한 문구라 하겠다. 그래서 영가를 모시는 '탈 것'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벽련대'가 실상 연화화생의 염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극락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박원자의 母情佛心 22 조계종 前 포교원장 지원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조계종 前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열다섯 어린 나이에 모친과 사별했다. 어머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른을 보시고 육남매를 키웠다. 그 과정은 수행이며 기도였다.

"내게 어머니는 관음보살의 아바타"



그림 · 박구원

조계종 포교원장을 역임한 지원 스님(육지장사 회주)에게 어머니의 존재는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으로 세상을 보듬는 천수천안의 관세음보살이다. 열다섯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지만 어머니를 추억할 수 있는 십여 년의 세월은 따뜻하고 그리운 시간으로 남아 있다. 한국 전쟁 직후 의 춥고 어려웠던 시기에 헌신적인 사랑으로 가족들을 품어주었던 어머니.

일흔이 훌쩍 넘은 지금도 어머니의 품속에서 느꼈던 그 촉촉하게 따뜻했던 어머니의 냄새를 잊을 수 없다. 살아오는 동안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떠올리며 나태함을 극복했고 끊임없이 정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스님을 법문을 듣고 교리를 배우지 않았어도 어머니의 삶 자체가 수도승과 같은 구도의 길이었다. 스님께 어머니의 이야기를 비롯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지원 스님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큰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는 그 일 많고 바쁜 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절에 가셨다. 절에 가기 전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셨다. 육남매를 불러 모아 쌀의 뉘를 함께 골라냈다. 반 토막이 난 쌀이나 벌레 먹은 쌀을 정성껏 골라내 부처님에 올릴 공양미를 준비했다. 절에 갈 때만 입는 흰 한복을 손질하고 찬물에 목욕재계하는 모든 일들이 기도였다. 십 리도 훨씬 넘는 먼 길을 가면서도 머리에 인 공양미를 땅에 내려놓지 않았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6살 때쯤 어머니를 따라가 보았던 환히 빛나던 부처님 모습과 깨끗한 법당이 생생히 지금도 떠오른다. 마치 살아계신 부처님 앞에 공양을 올리듯 쌀을 올려놓고 정성스레 절을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그 행위 자체가 육바라밀의 실천이었다. 한 해에 서너 번은 절에 따라가 그러한 어머니를 바라보고 법당의 부처님 모습이 밝게 다가왔던 것이 불심의 시초였다.

어머니를 떠올리면 속 아프게 했던 사건이 먼저 떠오른다. 월사금을 내지 못해서 학교에 가기 싫었던 날, 어머니에게 생떼를 부렸던 것이 지금도 가슴 아프게 남아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 월사금을 달라며 쫓아다니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묵묵부답이었다. 육남매를 키우며 모두 학교에 보내야했으니 오죽하면 달라는 돈을 못주었을까.

"나중에 줄 테니 오늘은 그냥 가거라."

"나중에 언제, 지금 줘."

어머니가 일하는 곳까지 따라가 보챘다. 그러는 아들을 보며 야단치지 않은 어머니였다. 그저 눈을 탁, 감고 한숨을 내쉬었다.

"층층시하 어른들을 모시고 아이들 모두 학교에 보내야 했으니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도 큰소리 안내시고 눈을 감아버리시던 모습이 생생해요. 일하러 가시는 곳까지 따라가 떼를 부렸던 것이 일생 가슴 아프게 남아있어요. 세상 살면서 남을 가슴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죠."

시부모님, 남편을 수발하고 육남매를 키우며 농사짓고 길쌈하고, 옷감을 끊어다가 아이들 옷까지 해 입혔던 어머니는 일류디자이너였다. 자식들의 소변을 찍어 먹어보고 대변의 색깔로 자식이 어떤 병인지 알아내고 약초를 캐어나가 달여 먹였던 유능한 의사였다. 만능이었고 철인이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 몸이 어느 때부터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어린 눈에도 젊은 어머니가 어딘가 아파보였다.

초등학교 3학년 때다. 동무들과 놀다가 싸움박질을 하던 와중에 친구 하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 어린 시절 흔한 일인데 철이 난 이 아들은 이 사실을 알면 어머니가 상심하실 게 걱정이었다. 친구의 손을 잡고 혼을 내러온 친구의 어머니에게 길에 서서 용서를 빌었다.

"저희 엄마께서 병중이세요.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놀라시고 속상하시겠어요. 저를 야단치시려면 여기서 때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일찍 철이 난 아들을 두고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아들의 등을 토닥여주며 말없이 사랑을 주었던 어머니였다. 음식 솜씨가 좋아서 풍성하게 음식을 해서 이웃과 나눠먹고 탁발하러 온 스님들에게 넉넉하게 쌀을 부어주시던 어머니였다. 자식보다 친구들을 더 칭찬하며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가를 가르치셨던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주 나중에 아버지에게 들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비몽사몽간에 스님 세 분이 나타나서 서쪽을 바라보면서 아미타불을 부르더라며,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남편에게 말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어머니 얼굴을 본 것이 마지막이었다. 어머니 나이 고작 마흔 즈음이었다.

열다섯 어린 나이에 모친 사별
10년 어머니와의 추억 되짚으니
어머니는 수행자였고 보살이셨다
그리움에 사무쳐 지은 사모곡은
'큰사랑'이라는 대중가요로 인기
"어머니,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그때 열다섯 소년이었던 아들은 출가해 수행자가 되었고 어머니 나이쯤 되었을 때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한 편의 시로 토해냈다. 돌덩이처럼 가슴 한편에 매달려있던 아득한 그리움, 그 가없는 은혜를 갚을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떠나버리신 어머니에게 바치는 사모곡이었다.

이 세상 지중한 은혜 배서리어 낳으신 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아픔으로/ 큰 목숨 궁굴리어 자식 사랑 낳으신 날/ 그 사랑 바다보다 넓고 더욱 빛나옵니다

은혜가 깊을수록 당신 모습 여위시고/ 한평생 다하도록 사랑으로 이어져서/ 십 년에 다시 십 년 또 몇 곱을 포개어도/ 이 세상 변치 않는 것 당신 사랑뿐입니다

자식이 병이 들면 어머니도 병드시고/ 자식이 서러우면 어머니는 더 서러워/ 그 얼굴 주름살은 골골마다 깊으신가/ 빠꾸기 피울음인양 철을 따라 우옵니다

삼삼히 눈 감으면 잡힐 듯이 어린 시절/ 어머니 하얀 머리 올올 마다 실려 오고/ 절로는 내 가슴에 눈물로만 번져 와서/ 생각은 노을이 되어 서녘하늘 덮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과 은혜를 다 갚지 못한 아쉬움이 담긴 이 시는 '큰 사랑' 이라는 이름을 달고 대중가요로 만들어졌다. 15~16년 전, 유명 작곡가 남국인이 곡을 만들고 가수 진송남 부부가 노래를 불러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자식이 병들면 어머니도 병들고 자식이 서러우면 어머니는 더 서럽다는 구절이 무엇보다 세상 어머니들의 심정을 대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 사십이 되어도, 칠십이 넘어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똑같죠?"

"평생 허전함으로 남아있는 그리움과 은혜를 잊을 수가 없죠. 어머니는 철인이셨고 만능이었어요. 훌륭한 의사이시기도 했죠. 앉아서 참선 한 번 안 해보셨는데도 세상 이치를 다 아신 것처럼 말씀하고 생활하셨어요. 보살행을 몸소 실천하신 구도자였죠. 고생만하시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따뜻한 공양 한 번 지어드리지 못했어요. 병구완 한 번,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드리고 한없는 은혜만 입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살이를 비추어보면 내 덕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 다른 사람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연기의 법칙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조금 더 사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도 해요. 그래서 부모 살아계실 때 잘 모시고 효도하는 게 중요하죠."

"스님께선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를 30년 가까이 하셨는데 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들에게 제2의 어머니 역할을 한 스님의 교육철학이 궁금했다. 그들이 자라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자식에게 부모의 역할은 절대적이지 않은가.

"불교 자체가 인성을 위한 기본교육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실천 윤리가 오계(五戒)입니다.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의 존귀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생명 자체의 위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알면 생명을 해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피땀과 노력 없이 무엇을 이루겠습니까. 이것 없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도적질과 마찬가지죠. 다음은 사음하지 말라는 것인데, 올바른 이성 관계를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너지면 가정 전체가 무너져요. 생명의 존중함을 알면 이는 저절로 실천됩니다. 다음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인데, 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나쁜 습관을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 술을 지나치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제하는 것도 자신을 극복하는 큰 덕목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죠. 좋은 인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존귀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면 내가 위대한 만큼 다른 사람도 존귀하다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되죠. 그럴 때 배려가 생기고 소통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각계각층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갑니다. 훌륭한 부모가 되고요."

아이들에게 자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함께 108배도 하고 3000배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철인이었고 훌륭한 의사였다는 스님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스님을 만나고 온 다음날 스님에게서 유튜브 2개가 도착했다. 스님이 작사한 '큰사랑' 과 '효' . 그리고 다음 구절.

"나에 있어서 어머니는 관세음보살의 아바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은 어머니다."

〈작가〉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경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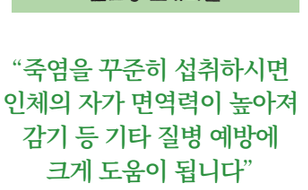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부처님법, 법화의 법문 강조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㊺ 보현보살이 기사굴산에 오다

그때 보현보살이 큰보살들과 함께 동방으로부터 왔다. 오면서 거치는 국토마다 진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연꽃의 비가 내리고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음악 소리가 들렸다. 무수한 천신 · 용 · 야차 · 건달바 · 아수라 · 가루라 · 긴나라 · 마후라가 사람인 듯 사람 아닌 이들에 에워싸여 무리와 함께 각기 위덕과 신통의 힘을 나타내어 사바세계의 기사굴산에 이르러서 석가모니여래께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일곱 바퀴를 돌고 나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위덕상왕불의 세계에 있다가 멀리 여기 사바세계 가운데서 〈법화경〉을 설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한량없고 가없는 백천만억 보살과 함께 이를 듣고자 왔습니다. 원컨대 세존이시여, 어서 저희를 위해 설해주소서. 선남자, 선여인이 여래 멸도하신 후, 어떻게 이 〈묘법연화경〉을 능히 얻어 지니오리까?"

부처님이 보현보살 향하여 이르셨다.

"선남자, 선여인이 네 가지 법을 성취해야 여래 멸도한 후 이 〈법화경〉을 얻게 되리니, 첫째는 모든 부처님에 의해 호념하는 바가 되어야 하는 것이오, 둘째는 미덕의 뿌리를 심는 것이요, 셋째는 정정취에 들어가는 것이요, 넷째는 온갖 중생을 구제하려는 뜻을 내는 것이니라. 선남자, 선여인이 이러한 네 가지 법을 성취하면 여래의 멸도 후에도 반드시 이 경을 얻게 되리라." 그때 보현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후오백세의 혼탁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응당 수호하여 그의 재앙을 없애고 편안케 하여, 마군이 틈을 엿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마거나, 악마의 아들 · 딸, 백성이거나, 악마에 붙들린 자거나, 야차건 나찰이건 구반다, 비사사나, 길자, 부단나, 위타라 따위, 사람을 괴롭히는 온갖 무리들이 모두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걷거나 서 있으면서 〈법화경〉을 독송하면 제가 그때 여섯 개의 이빨을 갖춘 흰 코끼리를 타고 큰보살들과 함께 그곳에 이르러 몸을 나타내어 공양하고 수호해서 위안해 주겠으니 이 또한 〈법화경〉을 공양하고자 하는 까닭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 앉아서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다시 흰 코끼리를 타고 와 그 사람 앞에 몸을 나타내어 그 사람이 혹 〈법화경〉의 한 구절이나 한 게송이라도 잊은 것이 있을 적에는 가르쳐 주고 함께 독송해 다시 통달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때 〈법화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는 사람이 저의 몸을 보고 나서 크게 기뻐서 더욱 정진하게 될 것이며, 저를 본 까닭으로 곧 삼매 다라니를 얻으리니, 선다라니, 백천만억 선다라니, 법음방편다라니 등 이와 같은 다라니를 얻게 될 것입니다."

〈법화경〉에는 부처님 세계를 내왕하는 보살들의 활동이 묘사되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마지막 품인 '보현보살권발품'에도 보현보살이 보위덕상왕불 세계에서 석가모니부처님을 찾아 사바세계 기사굴산(영축산)으로 온다. 보현보살이 부처님 열반 후의 〈법화경〉 수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묻는다. 여기에 네 가지 법이 갖춰져야 〈법화경〉을 만날 수 있다 하였다. 이것은 〈법화경〉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말하는 것으로 △부처님의 호념과 △선근을 심은 공덕, △사법(邪法)을 벗으나 정법에 들어와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는 정정취(正定聚)에 들어가는 것과 △중생을 구제하려는 서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밝혀 놓았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법화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호념을 얻을 수 있고 선근(善根)을 심을 수 있으며 정법에 머물러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서원을 키우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말세에 〈법화경〉이 중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해 놓은 것이다. 이어 보현보살도 〈법화경〉을 수지하는 사람을 수호하고 재앙을 막아주며 마군의 침입을 봉쇄 다라니를 얻도록 해주겠다고 부처님 앞에서 다짐을 한다. 다분히 희곡(戱曲)적인 요소로 전개되는 이야기이지만 결국 부처님의 법이 법화의 법문이라는 것을 강조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상황윤리 비견되는 대승계의 '지범개차'

〈持犯開遮〉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㊺ 지범개차의 윤리적 적용

우리는 나날이 발전하는 생명 공학과 의료 기술로 인해 이전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특히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일 경우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번민을 거듭하기도 한다.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시기에 철학자들은 전통 윤리 이론인 공리주의, 의무론, 덕윤리 등을 구체적인 문제에 적용하여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윤리 이론을 적용할 경우, 그 해결책도 달라지므로 사실상 의견의 일치에 이르기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각자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유신론적인 전통에서 생명에 관한 문제는 창조주인 신의 영역으로 여겨져서 다소 경직된 자세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죽음의 정의, 안락사, 임신중절, 인간 배아 연구 등의 윤리적 딜레마는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관련된 것이어서 해명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실천신학, 또는 도덕신학에서는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기독교 도덕신학자들은 가톨릭 도덕신학자들에 비해 유연한 입장이었으며,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 플레처(Joseph Fletcher)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새로운 도덕으로 '상황 윤리(Situation Ethics)'를 제안했는데,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시 의료 현장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생명윤리에서의 도덕적 문제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료에 관련된 특수한 문제로 그 상황에 적합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이에 따라 상황 윤리에서는 선과 악에 대한 도덕적 판단보다 상황에의 적합성을 윤리 문제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윤리적 원리나 규범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절대적인 삶의 원리로 제시하는 것은 아가페(Agape)이다. 다시 말해 인류에 대한 보편적 사랑을 중시하며, 인간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선을 향상시키는 것을 옹호하였다.

상황 윤리에 비견되는 것으로 대승계(大乘戒)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지범개차(持犯開遮)'를 꼽을 수 있다. 원래 지범(持犯)은 광율(廣律)의 경분별(經分別) 가운데 계조(戒條)에 부수(付隨)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다양한 조건 아래서의 범계(犯戒)의 성립과 불성립, 죄의 가벼움과 무거움 등이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보살계에서는 계조(戒條)나 수계법(受戒法)을 설하기는 하지만, 지범(持犯)이 상세히 설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보살계에서는 개(開: 허락)와 차(遮: 금지)로 접근하는데, 같은 계(戒)일지라도 어떤 때에는 허락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금지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보살에게는 상황에 따라 금지된 행위일지라도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허락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은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慈悲心)에 입각한 원행(願行)'이다. 따라서 보살계의 개차(開遮)는 보살계의 지범(持犯)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개차지범(開遮持犯)으로 쓰이기도 한다.

〈유가론(瑜伽論)〉의 보살지(菩薩地)에는 보살의 살생이 허락되는 경우가 설해지고 있다. 보살은 재물 때문에 수백의 생명과 위대한 존재들, 성문과 연각과 보살들을 죽이려 시도하고 많은 무간업(無間業)의 행위를 하는 도둑을 보게 된다. 그는 자신이 이 사람을 죽인 후에 지옥에 태어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무간업으로 인해 지옥에 가지 않기 바라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으로 보살이 이 사람을 죽인다면 보살에게는 범계(犯戒)가 없고 많은 복덕이 생겨난다고 한다. 여기서 보살은 많은 생명이 살해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둑에 대한 연민으로, 지옥의 과보를 마다하지 않고서 살생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㉑ 성불을 이루는 지관수행

깨달음 성취위해 지관수행 실천을…

중생심을 진여본성으로 되돌리는 방법

불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무명과 망심과 망경계로 훈습되어진 무명의 마음을 본래의 진여본성으로 되돌릴 수가 있을까요? 해답은, 먼저 마음을 '깨달음의 상태' 즉 '명각(明覺)'의 마음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명각(明覺)이란 말은 무명의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마음이 항상 밝게 깨어있는 상태를 명각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명각의 상태가 되면 무명과 망심과 망경계로부터 훈습된 마음의 집착과 업력의 습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밝은 깨달음의 상태인 명각의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명각의 상태로 만들어서 본래의 청정과 본래의 지혜를 갖춘 진여본성과 상응하게 되면 무명의 망상이 만들어 낸 망경계에 속지 않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 감각기관을 통해 접촉하여 인식하는 경계들은 실다움이 없습니다. 마치 눈병 걸린 사람이 병으로 인해 헛꽃을 보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눈병이 생겨서 나타난 헛꽃들이 눈병이 완치되면 헛꽃이 모두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무명 때문에 나타났던 일체 망경계들은 진여본성과 계합되는 순간 모두가 환과 같이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본성과 상응하지 못하고서 망념을 통해 나타나는 일체 경계들은 마치 꿈속에서 보는 환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이 없는 무명심으로 인생을 속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명각(明覺)으로 망경계 벗어날 수 있어
불교의 모든 수행 지관수행 안에 포함

깨달음을 얻는 지관(止觀)수행

불자 여러분! 불교의 궁극적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관수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관수행은 불교의 대표적인 선정수행입니다. 특히 마음에 삼매와 심일경성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지관수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불교의 모든 수행은 지관수행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선정(四禪定)수행이나 사념처(四念處)수행 그리고 육바라밀(六波羅密), 팔정도, 간화선, 묵조선 그리고 염불, 참회 등의 모든 수행들은 모두 지(止)와 관(觀)이라는 개념으로 각각의 수행법 속에 깊숙이 녹아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지관수행에 있어서 지(止)란 말은 인도말 사마타(samādhi)를 말하는데 '집중하다'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는 '삼매(三昧)'라고 부릅니다. 사마타는 '고요하다, 평온하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게 맑아진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사마타는 일체대상 경계를 반연해서 일어난 모든 번뇌망상을 멈추고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사마타 수행은 일체 모든 경계 대상을 반연해서 일으키는 분별망상을 멈추거나 끊어서 내재된 본래의 진여심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마타 수행은 고도의 집중력으로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하는 기준점을 정해 놓고 마음을 그 기준점에 붙들어서 밀착하여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 일체의 다른 경계대상들이나 내면에서 일어나는 번뇌 망상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마타는 마음의 동요가 사라진 고요한 상태 즉 '적멸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觀)이라는 말은 인도말 위빠사나(vipaśyanā)를 말하는데 이는 '사물을 지혜로 통찰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위빠사나는 '면밀하게 관찰하고 꿰뚫어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체대상 경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통찰하는 지혜(智慧) 또는 불지견(知見)을 닦는 수행이 위빠사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6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67호 | 17 | 전면광고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을 좌선이라 할 수는 없다.
현실 속에 살면서도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유마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합

010-5412-8040 법광

효보당 108사주 비법 완전전수

<상표등록 1424679호>

포인트 위주로 가장 쉽게 아수해 드립니다.

- 현재 궁금한 점과 그 대안책(타고난 인생·병·영가 일년 신수 등 '왜?' 그러는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과거·현재·미래의 사주와 미래에 대한 대안책 제시
- 대상 : 스님, 철학인, 법사님 등(속성반 7강 진행)
- 출장 및 개인지도도 가능합니다.(단, 경상북도 이남 지역은 포항에서 직접 지도 및 안내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89 가야선원
문의처 010-2901-8923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010-3586-6091



추천-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한마음으로 오래 계실분

010-4766-3200

사찰 처사(운전가능)님 모십니다.

숙식 필수
(60세 이상, 경기도)

010-9157-2276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제주도(육각사)

010-3753-7844

기도하실 스님 모십니다.

경주

010-8908-0488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아미타삼존불과 지장보살 모셔갈분

불상높이 좌대포함 4자

❊ 12월25일이후 ❊
무속인은불가

010-6534-5835

뭐든지 성취되는

기도비법을 스님께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이름만 보면 모든것을 알수있다※

관재 · 소송 · 송사 · 이혼 · 시험운 · 사업운
부도 · 정신병 · 건강 특별비법 전수해 드립니다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스님 무속인 환영·성실지도 ◈

문의전화 010-6284-6172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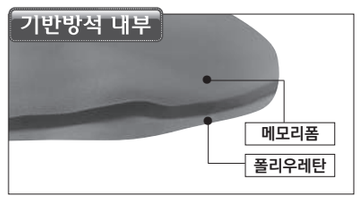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67호 | 18 | 전면광고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재산은 믿음이다.
덕행을 쌓게 되면 행복이 찾아온다.
진실이야말로 맛 중의 맛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을 최상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 말씀 읽기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경내부지 : 5,000평
◎건평 : 60평 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양도가 : 협의
◎위치 : 전국
◎부지 : 1,000평-10만평
◎건평 : 120평 외 전각
◎천년사지 외
◎양도가 : 가격다양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까지 홍보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 부속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 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아름다운 사찰 안내

- 전원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정자(3×5) 원목, 산사음악회 무대
- 총대지 300평(정원조성 잘되어있음)
- 진주, 의령, 합천 중간지점(각20분 소요)
- 삼존불, 영당, 신중당, 지장단 소불(한쪽 벽면 전체),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와서 보시고 협의(가액), 언제든 양도가능

010-2607-7114

토 굴 안 내

- 위치 : 서울 삼각산자락
- 약 13평, 인법당, 기도 (수행자)적합, 교통편리
- 꼬옥 필요하신 분만 연락 주시고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 3천만원

010-8754-7855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 부지 : 5,823평(종교용지, 대지 1,700평 포함) 건물 : 3개동(대웅전, 요사채, 극락전)
- 토지, 건물 : 분할가능
- 가액 : 21억(분할시 상단 15억, 하단 7억) 입주조건 : 협의 결정

010-4225-0012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보문산 입구
- 2층 42평, 시설금 1천2백만, 보증금 3백 합 1천 5백만, 월세 30만
- 법당, 요사채(2), 공양간, 시설완비(에어컨 2, 냉장고, 냉동고, 순간온수기, 전기증설 및 공사, 판넬, 도배, 기타 시설은 무료)
- 5년전 인수금액 그대로임

주지 무진 010-3049-5816

포 교 원 안 내

- 부산 수영구 광남로 (50평 이상)
- 3층 건물/2층(큰방 2, 화장실 2, 넓은 거실)/ 약사부처님 3자반/일광월광/호신불 약사 관음 108불/영단/지장 108불 영단 잘 되어 있음
- 보 1천만원/월 70만원(시설비 2천5백만)
- 스님 건강상으로 양도함

010-3700-3628
010-7476-9898

사찰(급)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정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전주 전경 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 대지 : 360평(국유지 1만평 사용)+사유지 500평 무상사용 ● 법당 : (요사채+최신형 인데리어), 극락전(목조기와신축)
- 가액 : 1억 2천만원(3억 5천 대출승계안고)
- 조건 : 모든석불포함(석불조성 1억 5천만원)
-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울창, 편백나무숲 5천그루 ●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5억 공사 전주시장 승인 준공예정

010-9647-072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동대문구 왕산로
- 건평 : 60평
- 법당, 방3개, 공양간
- 건강문제로 인해 양도함
- 가액 : 절충

010-3714-101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대이로
- 4층(65평)남향, 엘리베이터 사용
- 법당, 방2개, 상담실, 부엌, 화장실
-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010-7219-0079

사찰(급)안내

- 24년된 종교용지, 대지218평, 시유지포함500평사용, 주차10대 ● 건평68평중 1층 요사42평, 방4, 화장실3, 2층 대웅전26평, 식당2, 실외화장실1, 산신각6평, 난방 · 심야전기, 지하석수1일150톤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종무직원1명+집기일체포함, 즉시법회가능, 현재성업중, 건강상 싯가이하로 7억 8천에 양도함 ● 가격 : 절충

010-6425-8274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 건평 70평(법당,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

010-9015-4040
010-2077-782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11억

010-4547-002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영천 시내 멋진 법당
- 2층 72평, 완벽한 시설, 방3칸, 주방, 화장실, 넓은 옥상, 앰프시설 완비, 방음 완벽, 민원도 없음
- 보 5백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9377-2279

사 찰 안 내

- 대지 1,700평, 법당 60평
- 관음전 60평, 약사전 100평 기도원 40평, 공양실 100평
- 납골당, 지장전, 원두막, 종무소
- 폭포가 있는 절(김천지역)
- 가액 : 23억(대출 5억)

010-4547-002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 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암 자 (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 휴천 남호리 1002, 1005 2필지(관리지역), 총456평
- 가액 : 3천만원
- 위같은리 1000, 1001 논밭 총794평, 2필지(관리지역)
- 가액 : 4천만원

010-9393-4965

고성사찰(급)안내

- 종교용지, 대지634평 불교재단 법천사
- 1층 슬라브 36평, 화장실 및 창고 3평, 법당 24평, 산신각 3평
- 절앞에 저수지 있음, 수도물은 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
- 가액 : 1억5천만원, 절충가능
- 별도 : 대지 177평, 답 917평 합계금액 2억 7천만

010-3553-2787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큰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 1층 요사. 2층 법당.삼성각 약 20km. 원주시청.충주시청.문막읍
- 가액 : 6억 5천
- 답사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5371-5567

예쁜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권
- 대지 : 약 200평
-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평
- 요사채 1동 약20평, 2층 약5평 1동 약25평
- 가액 : 2억 8천(절충가능)

010-4999-5622

사 찰 안 내

- 위치 :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 법당 목조 25평, 요사채 콘트리트슬라브 53평, 대지 약 400평, 심야전기
- 가액 : 3억 5천
- 요양원 하실분

010-5780-1415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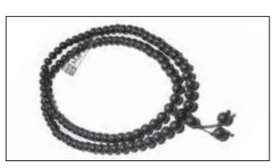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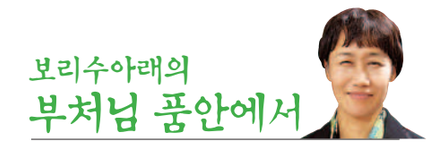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일계나찰(一髻羅刹)



노발을 하나로 묶은 나찰(羅刹)이다. 나찰이란 인도신화에서는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여 두려워하는 악귀로 보고 있다. 후에 불교에서는 수호의 신으로서 관자재보살이 무능승삼매의 경지에 있을 때 화신으로 출현하여 관자재보살의 기능을 구현하여 악귀와 재액을 물리치는 수호신의 역할을 한다.

형상: 몸은 청흑색이고, 분노형, 붉은색의 나발에 촉루관을 하고, 3목(三目)과, 4비를 하고, 우제1수는 검을, 제2수는 월부(鉞斧)구를, 좌 제1수는 견삭을, 제2수는 3고저를 가지고 적 연화대좌에 반가부좌를 하고 있다.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㉒ 저시력장애 미영순 · 뇌병변 이경남 씨

자비행 실천하고 쉼없이 공부하는 삶

오늘은 삶의 연륜이 있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길 하고자 한다.

작은 체구에 미소 띤 얼굴의 은발이 잘 어울리는 미영순 씨는 저시력 장애인이다. 경기여고 재학시절에 망막맥락염으로 저시력 장애를 판정받았다. 그녀에겐 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북방연구소 연구위원, 중국 흑룡강성대 객원교수 등 화려한 경력이 있지만, 나는 그녀를 개나리 나무를 닮은 여인이라 말하고 싶다. 미약해 보이지만 강한 의지로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고교 시절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교정의 개나리나무 두 그루 사이에 앉아 사색했다는 그녀는 그 사색의 힘으로 삶의 깊이를 더했고, 그녀의 삶은 저시력 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장애인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

그녀는 한국저시력인협회 설립자다. 그녀는 1999년 50여 명의 저시력인들과 전국저시력인협회를 만들고 가장 먼저 '약시'로 통용되던 시각장애를 구분해 '저시력'이란 법률 용어로 정착시켰다. 저시력인을 위한 확대 독서기 보급사업과 저시력인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와 저시력 어린이나 저시력 부모 자녀를 위한 심리상담,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김안과병원의 도움으로 매년 저시력인들의 사연을 공모해 시상하고 그 사연을 모은 〈마음으로 보는 세상〉으로 펴내고 있다.

청화 스님과 숭산 스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미영순 씨는 "불교에는 원래 내 것이 없어 나눌 것도 없다"며 "그러니 나눔, 베풂이 아니라, 돌려주고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불심 깊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미영순 씨는 도움을 모두 회향하고 싶은 마음으로 항상 이웃을 살핀다. 겨울철이면 저시력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김장김치와 쌀 나눔 행사를 준비한다. 김치와 쌀을 받은 장애인이나 준 미영순 씨나 주고받은 따뜻한 마음으로 겨울은 춥지 않을 것이다.

뇌병변장애를 가진 이경남 씨는 시인이며, 예순 네 살 늦깎이 대학생이다. 이경남 씨는 2020년 봄에 첫 시집 "미안 인생아"를 냈다. 이 시집에는 이경남 씨가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면서 60여 년간 산 세월을 넋두리로 푼 낙서와 같이 써온 글들이 좋은 시가 되어 이경남 씨 자신에게도 주위 사람들에게도 등대처럼 길 잃은 배의 빛이 되어주었다.

그는 시집의 서문에서 "자신의 아픔과 치부로 점철된 일상의 글이 막상 여러 사람에게 선보인다고 생각하니 부끄럽고 두근거리면서도 기대치 않던 바람이 이루어진 듯 세상 더없는 선물로 가슴이 벅차다"고 밝혔었다. 그 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증명을 받고 예술인 창작지원금도 받으면서 시인으로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보리수아래 감성시집에 참여한 작가들의 활동을 돕기 위한 보리수아래의 사업의 하나로 예술인 증명을 필수적으로 받게 하고 창작지원금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경남 씨는 2008년 11월 우연한 기회에 히말라야 칼라파트라를 올랐었다. 2008년 11월 히말라야 칼라파트라 등정 이후 국제장애인트레킹협회 창립 발기인으로도 참여했지만 함께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나며 빛을 보지 못했다. 당시 힘들었던 마음을 '친구여 그냥 걷자'라는 시로 표현하기도 했다.

2019년 그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장애로 인해 제대로 된 정규교육의 기회도 놓치고, 나이가 들어갈 수록 매사에 자꾸만 뒤로 물러서게 되고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학과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학교문예작품 공모전에도 작품을 내는 등 여러 활동도 하고 있다.

이경남 씨는 손꼽히는 효자이기도 하다. 작년 2월 초에 아버님이 99세로, 올 늦봄에 어머님이 96세로 곁을 떠나셨다. 지난날 누군가가 자신 걱정 때문에 부모님이 눈을 감지 못하실 거라고 한 말이 바위처럼 가슴을 눌렀다고 하는 이경남 씨는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했고 임종을 지켰다. 이경남 씨는 지금도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지장기도를 하고 있다. 엊그제 이경남 씨는 전화통화를 하며 아직 깊은 겨울도 아닌데 올해는 많이 춥다고 했다. 아마도 떠나신 부모님의 빈 자리가 크고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돌아볼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리라.

깊은 불심과 자비행 실천으로 세상을 보는 미영순 씨, 현재에 머물지 않고 늦은 공부로 꿈을 이루고 있는 이경남 씨, 두 사람의 수행에 숙연해지면서 한편으로는 두 사람의 나이 듦에 대하여 가슴 한쪽에 무거움이 쌓인다. 보리수아래 부처님 품 안에서 오래도록 두 사람의 동행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발원한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신심 돈독히 수행하며 살아온 미영순 씨와 이경남씨.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마음책 다시 읽기 붓다의 명상법 ❹ 아는 마음

▶ 한줄 요약
한 단계 위의 마음상태는 스스로를 내려놓는 순간 다가온다.

아는 마음을 지켜봄이 '무아'



마음챙김 명상의 두 핵심 기법인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은 마음의 기능들이다. 실제 수행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수행하는가에 따라 수행에 진전이 일어나는 속도가 달라진다. 마음챙김 명상수행이 성숙해짐에 따라 수행자들은 깨달음에 주효한 수행법을 탐구하게 된다. 특히 열반의 직접적 계기가 되는 통찰지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수행지침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맥락에서 '아는 마음'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 수행전통에서 공통적으로 '아는 마음'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니까야나, 상좌부 불교가 준거로 삼는 〈청정도론〉과 아비담마에 부각되지 않지만 실제 수행에 있어 중요시되는 '아는 마음'에 대해 이론과 실제를 통합하여 규명함으로써 실제 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마음은 빨리어로 여러 단어로 표현된다. 앞에서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다루는 2장 1절에서 마음을 의미하는 세 단어인 마노, 윈냐나, 찌따를 다룬 바 있다.

마음챙김(sati)은 마노(mano)와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좌선에 들 때 마음을 코끝에 두고 호흡을 경험되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때 마음챙기고 알아차리는 마음의 기능은 마노에 의한 것이다. 불교에서 마노는 여섯 번째 감각기관 즉, 육문으로 간주된다.

오관이 기능할 때 오관을 수반하는 마노는 감각기관의 대상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마음이 흩어지기 쉽다. 마음챙김 명상 수행을 통해 흩어지는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붙잡아두고 집중을 계발하기 위하여 마음을 코끝이나 전면에 두고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 마음챙겨 알아차림을 수행하는 것이다. 호흡이라는 일차 대상을 마음챙기며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여 마음(마노)을 한 곳에 붙잡아 매는 것은 삼매를 계발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어떤 마음으로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통찰지의 계발이 좌우된다. 마음의 삼매를 길러 삼매의 힘으로 통찰지혜를 계발할 수 있는데 이 맥락에서 수행선사들은 아는 마음으로 알아차림을 수행하라고 한다. 아는 마음은 빨리어로 윈냐나(viiāa)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노 윈냐나이다. 윈냐나는 육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대상을 지혜도 없고 이해도 없이 단지 아는 마음이다. 아는 마음은 대상을 마음 챙겨 알아차림에 의해 집중 혹은 삼매가 계발된, 통일적인 상태의 마음의 기능을 가리킨다.

이제 여러 수행전통에서 아는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태국의 아짠 차 스님은 아는 마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할 때 '아는 마음'은 일체를 끊임없이 알아차린다. 마음은 사고하는 과정(thinking process)이자 동시에 알고 있는 마음(knowing)이기도 하다. 마음이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되어 자체의 조건적 상황에서 풀려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매 순간 모든 상황의 원인과 결과를 반조해 보아야 한다. 마음이 다시 집착하게 되더라도 절대로 관찰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핵심을 꿰뚫으라. 이와 같이 '아는 마음'이 마음을 관찰해 나가면, 집착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며 비로소 지혜가 솟아나게 된다.

인용문의 내용을 해석해보자면, 조건적 상황에서 풀려나고 원인과 결과를 반조하고 집착을 놓아버림에 의해 지혜가 난다는 것은 위빠사나 수행에 의해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차원의 아는 마음을 의미하듯 아짠 차 선사는 아는 마음을 빤냐라고 간주하며 붓다라고까지 한다. 뒤에서 다뤄지겠지만 아짠 차 선사가 묘사한 대폭발의 체험에 비춰볼 때 아짠 차 선사가 의미하는 아는 마음은 끊임없이 대상을 아는 마음(마노 윈냐나)이 멈추며 자신과 대상세계를 이루는, 형성된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며 열리는, 보다 높은 차원의 의식(찌따)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아짠 차 선사의 지침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는 수행 중에 마음에 어떠한 감정이나 느낌이 일어나면 그저 놓아 버리고 그러한 느낌들이 좋든 싫든 간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냥 보내 버린 후 호흡으로 마음을 돌리라고 한다.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말고 자연 호흡의 들어옴과 나감을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은 점차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게 되고 호흡도 점점 가벼워져서 나중에는 마치 전혀 숨쉬지 않는 것처럼 희미해진다고 한다. 그리하여 심신이 가뿐해지고 힘이 충만해짐을 느끼게 되며 종국에는 오직한 곳에 집중된 아는 마음만 남게 된다고 한다. 이 때 마음은 변화되어 고요한 상태에 도달한다고 한다. 아짠 차 선사는 마음챙김을 지니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마음상태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관찰하는, '아는 자'가 되게 한다고 한다. 아짠 차 스님이 말하는 아는 마음은 강한 삼매의 힘의 지원을 받은 위빠사나 수행에 의해 앎이 이어지는 상태로 이해된다.

일체에 대한 인지 상태서
집착 자체를 여읜 단계로
높은 차원의 삼매 이어져

미얀마의 쉐우민 선원은 심념처 수행을 중요시하는 전통을 지니는데 케마왐사 스님은 〈심념처Contenplation of the Mind : Practising Citanupassana〉라는 책에서 아는 마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단지 대상만 안다면(관찰한다면) 여러분은 개념(빤낫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없다. 신념처나 수념처나 혹은 다른 어떤 것을 결합해서 수행하더라도 아는 마음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도이기 때문이다. 다른 길은 없다. 법념처 수행이란 것은, 아는 마음 즉 앎을 아는 포인트,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을 알고 있는 포인트까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앞의 인용문에 언급되는 아는 마음이라는 표현에 대한 혼동을 막기 위하여 '대상을 아는 마음'과 '아는 마음(앎을 아는 마음 혹은 지켜보는 마음)'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앞의 인용문의 의미를 풀어 설명하면, 우리가 대상만을 알고 아는 마음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 분리된 상태에서 대상을 개념으로 아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뜻한다. 대상을 아는 마음은 마노에 의한 인식을 말하는데 직접적인 인식은 있지만 아직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상을 아는 마음은 삼매가 길러져 차분해지고 청정해진 마음 상태에서의 인식이라고 이해된다. 앎을 알고 있는 포인트 즉, 아는 마음에 도달하는 것이 도의 길이라는 것은 진리의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음을 아는, 절대적인 차원의 마음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 둘 다를 알 때 통일된 절대적 차원의 의식의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는 마음이 길러지는 과정을 묘사해보면, 초보자가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수행하다가 아는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단계로 옮겨갈 때 일어나는 변화는 초보 단계에서 대상에 알아차림을 두는 식으로 대상을 찾으러 가다가 아는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단계에서는 대상이 계속 마음으로 온다는 것이다.

대상을 알아 차리는 것이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 양상을 띠게 되며 수행자는 알고자 하는 대상을 의도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아는 마음으로 대상을 아는 수행이 이어져 삼매가 길러지면 마음이 고요하고 이 분명해져 지혜의 힘이 계발되어 마음은 점점 더 미세한 대상들이 이치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대로 알게 된다. 수행은 사마타 보다는 위빠사나 성격이 강하게 된다. 그러다가 수행 수준이 높아지면 알아차림이 이어져 삼매가 아주 강해졌을 때 아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 둘다를 보고 있게 된다고 한다. 정리하면, 초보 단계에서 산만한 마음으로 힘주어 대상을 알아차리다가 집중이 길러지면 마음에 다가오는 대상을 아는 마음으로 알게 되며 삼매가 길러지면 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 둘 다를 지켜보게 된다는 것이다.

쉐우민 선원의 수행전통에는 '아는 마음을 지켜보는 마음'에 대한 지침을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아는 마음은 대상을 아는 마음이며 지켜보는 마음 즉, 한 단계 위의 마음'이란 두 가지(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를 다 아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켜보는 마음은 상대적인 차원의 마음을 벗어난, 절대적인 차원의 마음으로 이해된다. 케마왐사 스님이 자신의 개오의 체험에 대해 묘사한 것을 보면 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 그리고 그 둘을 지켜보는 마음의 초월적, 절대적 차원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의식은 대상과 분리해서 일어날 수 없기에 대상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며, 대상은 의식과 분리해서 일어날 수 없기에 의식과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수행은 이와 같았으며, 그것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법 즉 우주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몸과 마음의 현상을 계속해서 관찰해감에 따라 이 우주의 법칙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듯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통상적으로는 현상들과 일어나고 사라지던 의식이 거기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현상들이 거리를 두고 재빨리 일어나고 사라지는 반면에 의식은 현상들과 분리되어 가만히 멈춰 있다.

우주적 현상의 경우 대상과, 그 대상과 분리되지 않은 의식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개오의 순간에는 의식이 변하는 대상과 분리되어 독립적이라는 것은 초월적 절대적 차원의 의식이 열린 것을 의미한다. 저자는 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 둘 다를 지켜보는 마음 혹은 앎을 아는 마음은 수행법의 문제가 아니라 아는 마음으로 대상을 마음챙겨 알아차리는 수행에 의해 삼매가 깊어져 보다 차원 높은 마음이 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의 인용문에 나타나듯 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 둘 다를지켜보는 마음으로의 전이 과정은 대상과 마음의 이원성 보다 한 차원 높은 통일적 의식이 열리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과정을 해명하기 위하여 한글로는 모두 마음으로 번역되지만 서로 다른 마음의 기능들을 의미하는 빨리어 용어들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마음(찌따)이 통일적 상태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는 마음의 감각 장소의 측면, 기능의 측면, 무더기의 측면을 분석할 때 마음(찌따)은 마노의 감각장소로 나타나고, 마노의 기능으로 나타나고, 무더기의 측면에서는 알음알이의 무더기(식온)로 나타난다. 아는 마음으로 대상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의해 보다 높은 차원의 의식이 열리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 찌따와 마노와 윈냐나의 구분은 해소된 상태이다.

저자 : 이자연 박사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367 호 현대불교
2021년 12월 8일(음 11월 5일) 수요일 / 불기 2565년

단단한 믿음으로 세세생생 이 중세계의 통 속에서 벗어나십시오

(지난 호에 이어서)

이 도리를 공부하는 거요, 사실 따지고 본다면 엄청난 공부입니다. 그거를 느껴 보지도 못하고 들어 보지도 못하고 맛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이죠. 그러니깐 역대 조사들도 아마 속으로는 팔짝팔짝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쩝니까, 그거. 그러니까 턱 놔 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지냈겠죠. 허허허. 깡통은 깡통끼리 살기 때문에 왈가닥왈가닥하고 살 거고, 금은 금대로 살기 때문에 빛이 있을 거고 '아이고, 그대로 사는 거지 어쩌겠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계는 체로 치는 거와 같다 이랬어요. 상세계로 올라가느냐, 하세계로 떨어지느냐가 달려 있죠.

그리고 지옥이 따로 없다 이런 얘기죠. 지옥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표현을 해서 '독사다' 그러면, 독사같이 살았으면 독사의 몸을 지니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자동적인 인과가 그렇게 무섭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살던 의식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다 그 독사의 모습을 가졌으니 얼마나 지옥이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입니다.

옛날에 무당들이 칼을 들고 뭐랬느냐 하면 바가지에다 죽을 담아 가지고 끼얹으면서 칼을 던지면서 하는 소리 좀 보세요. "썩 물러가거라!" 하하하. "썩 물러가지 않으면 밥내국내도 맡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러고 칼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사람한테 귀찮게 굴고 그렇게 한다면 지옥으로 떨어져서 땅속의 벌레가 되느니라 하는 소립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도 그걸 모르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깐 이 세상에 경찰서가 있고 유치장이 있고 감옥소가 있듯이 지옥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바로 가서 그대로 짐승이나 벌레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무슨 감옥소가 따로 있고 천당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이 그냥 지옥이고, 여기에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고 이런 것이죠.

이 사람이라는 컴퓨터는 이 자체에 여러 가지가 한데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신통하면 벌써 컴퓨터에 거기 붙어 있는 거, 사진기라든가 또는 탐지기라든가 또 뭡니까? 저 통신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 부착이 돼 있습니다. 이 망원경 하면은 '천안통' 이렇게 합니다. 천안통, 타심통 또 신족통, 천이통, 이렇게 여기 부착이 돼 있는 거죠. 또 '숙명통' 하고 여기 이렇게 한데 부착이 돼서 돌아가니까, 이거는 뭐, 사대 팔방으로 이 허공에 전부 그냥 조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깔축없이 자기가 남한테 욕을 했으면 욕한 것이 입력이 돼서 욕을 또 먹게끔 입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모든 거를 주인에게 맡기세요. 주인이 하는 거지 자기 육신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전 하면 텔레비전 속에서 나오지 텔레비전 상자에서 나옵니까? 그렇죠? 텔레비전 상자가 텔레비전이 아니고, 텔레비전 오장육부가 바로 텔레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한데 합쳐서 모두 부합이 돼 가지고야 나오지, 부합이 되지 않으면 선 하나만 끊어져도 안 나와요.

그러니 사람도 역시 텔레비전과 같다. 그러니 텔레비전 상자를 믿지 말고, 텔레비전 속의 그 모두를 한마음으로 믿어라. 스위치만 누르면 이게 나왔다 저게 나왔다 하는데, 그거를 다 한꺼번에 용도에 따라 볼 게 있으면 보고, 보기 싫은 건 그냥 누르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거기만 믿어야지 어떻게 상자를 믿습니까? 내 육신은 그 오장육부의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관리인이죠.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관리인. 그와 마찬가지로 오장육부의 그 모든 의식들은 바로 한마음을, 한마음을 중시하고 들어가거든요.

표현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구가 그렇게 돌아다녀도, 지구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허허. 아는 분 있다면 손 들어 보세요, 지구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하하하. 어디로 돌아다닙니까?

신도1(남) '알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게, 모르는 게 아는 게 아닙니까?

큰스님 하하하. 그러니까 이 인간 속에 들어 있는 세포 하나하나의 의식들이 이 인간이 어디로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고 알려 줌으로써, 믿음으로써 '아, 이렇게 다니는 것도 나구나.' 그러니까 자기 손가락을 자기가 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면 진실히 믿어서, 병이 낫고 안 낫고 그걸 떠나서, 또 안 되고 되고를 떠나서 믿어야 합니다. 진짜 자기를 그렇게, 수억겁을 통해 쫓고 쫓기면서 진화를 시키고 그랬던 것도, 쫓고 쫓겨 봐야 그게 마음이 발전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공부로 알라. 어떠한, 왕창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믿는 것만은 '허, 무너지게 또 했군.' 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웃고 쳐다본다면, 그 대치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모두 그렇게 믿지 못하면 아예 자기를 자기가 믿지 못하고 버리는 거나 한가지입니다.

자기 자성신을 진짜로 믿어야지, 어째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자성신을 그렇게 믿지 못합니까? 이 세상에 뭐 믿을 게 있겠습니까? 대신 죽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신 아파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효자 효부다 하더라도, 부부지간이 아무리 정이 좋다 하더라도 대신 똥 눠 주고, 대신 아파 주고, 대신 죽어 주고, 대신 잠자 주고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로 자기를 자기가 믿어서 모든 사람이 한 가정이라도 밝게 살 수 있게끔 자기가 능력을 기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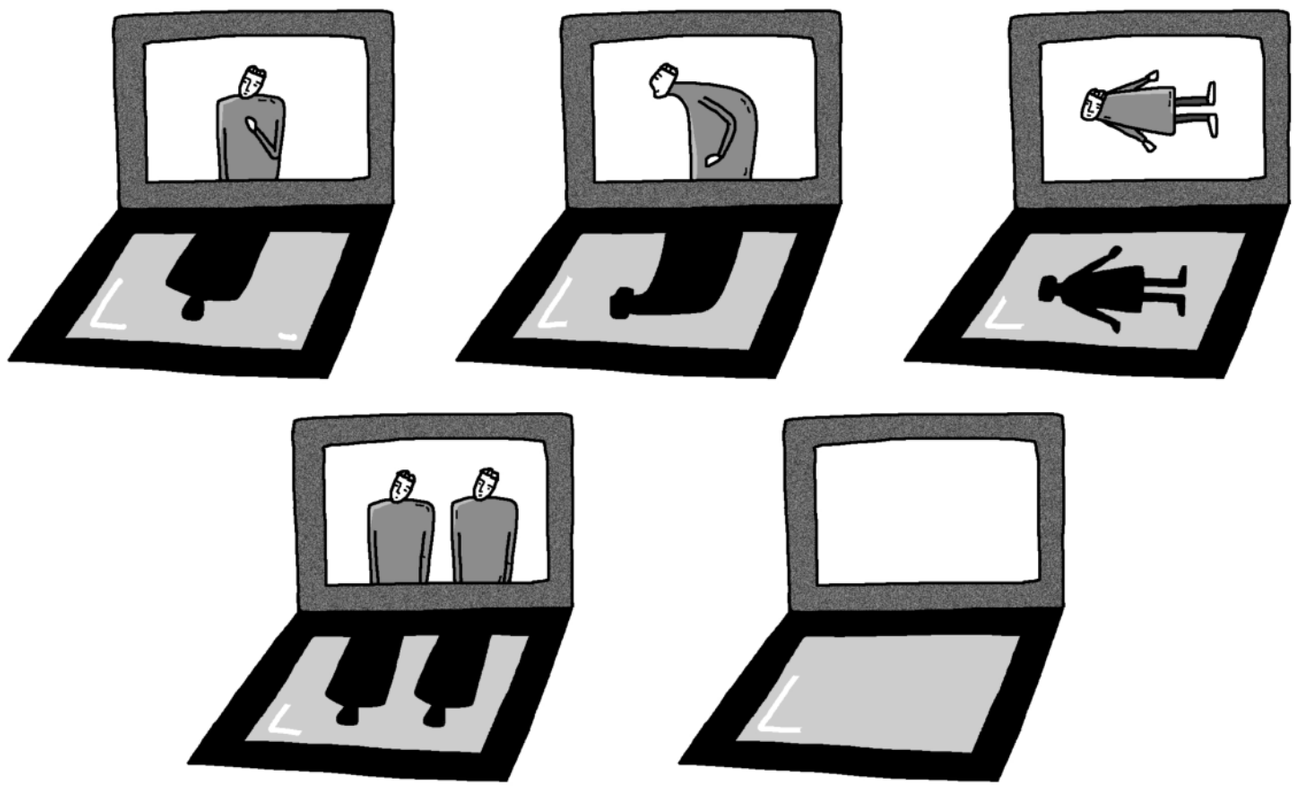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저는 옛날에 '부모미생전 본래면목 시심마' 라는 화두를 들고 참선을 했습니다. '부모가 나기 이전에 내 참 얼굴이, 내 참마음이 무엇인가?' 하고 간절하게 참선을 했는데, 그때 가을이라 어디론가 가고 싶고 또 뭐, 쓸쓸하고 세월의 덧없음도 느끼면서 무상이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저녁노을이 붉게 물들 때부터 좌선을 시작을 해 가지고 어느 때는 저녁 한 삼경이 되었습니다. 잠이 와 가지고 깜박 조는 그 순간에 나는 깨어 있고 내 의식이 저 온 허공 간에, 온 우주에 꽉 찬 느낌이 들면서 그것을 떨리고 희열에 찬 마음으로 감지를 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이상한 생각에 불과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흔히 잠이 들면 아무것도 없고 캄캄해야 되는데 그 잠이 드는 그 순간에 깨어 있고 또 내 속에는 또 하나의 나가 있구나! 그 정도는 체험을 했는데 불 속에 연꽃이 피는 소식과 개미가 수미산을 업어 가는 도리를 알고 싶고, 또 옛날 견딜 수 없는 고독감에 소나무 등걸을 쓸어안고 "아빠"라고 나직이 되뇌었던 그때 그 아빠는 길 없는 길을 인도를 했는지 확연히 그거는 모르겠고요. 저는 아무것도, 내면의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이건 길 없는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파멸의 길을 인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절망에 저 무의 심연으로 몸을 던지려는 순간, 강과 나와 하나가 되었던 그때, 강이 나였고 내가 강이었고 그 흐름이 나였고 내가 흐름이었던 주객일여가 되었던 그때, 캄캄한 산중에 어디선가 소쩍새 우는 소리가 슬피 들릴 때, 바람이 간간이 불어서 온 나무숲을 뒤흔들 때, 무릎을 치면서

☞ 22면으로 계속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어째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성신을 그렇게 믿지 못하십니까!

☞ 21면에서 계속

'아하, 너와 나는 둘이 아니구나. 너와 나는 한 뿌리고, 한 뿌린데 무엇을 빼앗고 무엇을 빼앗길 것인가.' 그때, 그건 분별심인지 하나의 진짜 깨친 건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따지고 보면 전부 잔소리입니다. 하하하. 지금 이러니저러니 하고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죠?

질문자1(남) 예.

큰스님 그 말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질문자1(남) 접니다.

큰스님 하하하. 전데, 그 저 하나만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거를 보기도 하고 저거를 보기도 하고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저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질문자1(남) 아직 듣는 그 마음자리를 깨치지 못해 가지고 지금도 방황하는 중인데요.

큰스님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조차도 거기 놓으십시오. 안 되는 것도 놓고 방황한다는 것도 놓고 또는 모른다는 것도 놓고, 모든 거를 그냥 놓으세요. 지금 비행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이것저것 끌어냅니까? 거기다가 그냥 '너만이 나를 물리가 터지게 해 줄 수 있어.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이끌어 갈 수 있어. 작년에도 어저께도 이끌어 가고 있었으니까 지금도 이끌어 가겠지.' 그러고 다 거기다 놔요. 거기다 맡겨 놔요.

질문자2(남) 저는 1년여 전부터 저희 집사람의 도움으로 한마음선원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형제회에도 가입을 해서 선배 법우 여러 분과 생활의 방식도 공부하고 또 불법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하면서 먼저 배운 분들의 공부를 훔쳐서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끼리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서도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역시 스승님께 여쭈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모아서 제가 대표해서 질문을 올릴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처님 가르치심의 핵심이 되는 인연법을 말할 때 으레 십이연기가 거론되고 합니다. 무명(無明)이 있으니 행(行)이 있고, 행이 있으니 식(識)이 있고, 그와 같이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해 나가다가, 그래서 생로병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거꾸로 말한다면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고, 행이 없으면 식이 없고 그렇게 해서 생로병사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줄여 보면 무명이 있기에 생로병사가 있고 무명이 없으면 생로병사가 없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분명코 무명을 여의신 분이었는데 어째서 늙고 죽음이 있었는지요? 큰스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부처님께서 그 대답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두 못 알아들어서 대답을 못 들은 거죠. 죽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습니다. 본래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래 빛깔과 음파를 통해서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텔레비전이 나오듯 나오는 것이지, 이 텔레비전 자체가 살고 죽는 게 아닙니다. 보실 줄 아는 사람은 생로병사가 무(無)라고 할 거고, 보실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몸뚱이가 죽으니까 죽었다고 하고 몸뚱이가 살아야 살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가끔 하죠. 두 친구가 하나는 스님이 되고 하나는 속인인데, 속인인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스님 된 친구를 불렀답니다. 그랬는데 천도를 잘 좀 해 달라고 떡 불렀는데 천도는 안 해 주고 한다는 말이 "어휴, 온 것이 없다면 갈 곳도 없을 것을…." 아, 이렇게 한마디 하고 쓱 가버리거든요. 온 것이 없다면 갈 곳도 없을 것을….

> 이거 틀림없이 주인공만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딱 뒤집어 놓고 바로 세울 수 있는
> 그런 용기와 패기가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지어 가지고 그냥 죽었느니 살았느니 애를 쓰고 야단들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옷이 헐고 헤졌고 바래고 그랬으면, 또 그 시대에 맞지 않고 그러면 벗어 놓고 새 옷을 입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건데 죽었다 살았다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 도리만 알면 죽은 것도 없고 산 것도 없지요. 그냥 여여함이죠.

질문자2(남)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뭐, 어느 책에서 보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같은 질문을 받으시고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기에 제 자신도 이것은 여쭤서 알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궁금해서….

큰스님 부처님이 대답을 하셨다면 안 하는 게 있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또 틀린 말이지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신 게 하신 거지요.

질문자2(남) 부처님께서는 무정물에도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큰스님 불성을 지금도 얘기했지만 아, "온 게 없으면 갈 곳도 없을 것을…." 한 뜻이 바로 거기에도 해당이 되네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텔레비전 상자가 자기냐, 텔레비전 자체가 자기냐? 저 방송국에서 이렇게 통신을 줘야만이 사람 노릇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텔레비전 상자가 자기라고 하니까 이것이 망가졌으면 방송국이 다 망가졌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부서졌을 뿐이지 죽은 것도 없고 산 것도 없어요.

질문자2(남) 그렇다면 제가 언젠가는 죽어서 송장이 될 건데, 그러면 살았다는 거하고 지금 현재 살아 있는 저와 송장과는 어떤….

큰스님 본래 산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살아서 움죽거리는 이 몸뚱이가 바로 자성신이 있다는 거니까 둘이 아닌 자기 자성신을 믿으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깐 형체가 꼭 자기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심전심이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음과 마음은 이 육체를 비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셨죠. 대답을 안 하신 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살아 있어도 이 의식만 딱 끊어지면 그냥 송장이죠. 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산 송장, 죽은 송장 그것뿐이에요. 허허허. 산 송장, 죽은 송장!

질문자2(남) 잘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현상계에서 보면 지구 속에 화산이 일어나는 것은 지구 속에서 나오는 작용이고, 지구 바깥에서 바다에 해일도 일고 홍수도 생기고 전쟁도 일어나는 것은 지구의 대기권이나 인간들에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이라 볼 때, 지구라는 몸체가 처음 형성될 때 인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뭉쳐졌다면, 파괴나 난리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지구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고 정화하기 위한 작용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몸체도 인연에 의한 업식으로 뭉쳐진 것이라면 우리가 화산과 홍수가 작용을 하듯이 나를 제도하고 정화를 하기 위한 주인공의 작용이라 생각하니 그대로 넉넉한 마음이 듭니다. 지구가 작용을 하였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듯이, 나한테서 나온 것을 제자리에 도로 놓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큰스님 법문 중에 "병이라고 이름 짓지 마라. 병이 병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과 뜻이 같은지요?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도 공부가 되어 가는 증명인지요?

큰스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역력하게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패기도 생기고 잔잔한 물과 같이 아주 편안하기도 하면서 편안하고 잔잔한 그 속에서 솟아 나오는 그 심력은 정말 누구도 그걸 당해 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가신다면은 잘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계(戒), 정(定), 혜(慧)를 이렇게 정해 놨는데 계율도 모든 게 이 한마음 속에 들어 있고 지혜도 한마음 속에 들어 있으니 계, 혜, 정이죠. 계와 혜가 정 속에 들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 정 속에 듦으로써 지혜가 풍부해서 해탈이 생기고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우리, 도반으로서 열심히 해 보십시다. 또 질문할 사람 없어요?

질문자3(여) 스님, 저는 질문하는 것보다 스님께 고맙다는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마음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이종 언니로부터 『무(無)』와 『도(道)』 책을 읽고 찾지는 못해도 마음을 한번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찾자니 습을 제거해야 되겠고, 습을 제거하자니 나 자신을 버려야 되겠습디다. 그런데 그게 참 잘 안되더라고요. 이번 1월 3일 날 스님을 처음 뵈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추석이 돼서 갑자기 손이 아파 왔습니다. 손가락이 아파 왔는데 이거를 주인공한테 한번 맡겨 보았지요, 첫 번에. 맡겨 보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들어요. 결국 골수암까지 갔습니다. 골수암까지 가서 치료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의사 선생님이 뼈 검사를 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합디다.

그때부터 제가 '아니다. 손가락을 끊어 내는 한이 있더라도 두 번 다시 병원에는 안 가고 내 주인공한테 맡기겠다.' 그러면서 한 보름을 견뎌 봤어요. 그러다가 그때 큰스님께서 KBS 홀에, 부산에 오셨습니다. 그때 부산 지원에서 스님을 뵈었지요. 그때는 마음이 완전히 놓입디다. '이제는 완전히 손이 낫겠구나.' 그러고 스님 뵙는 순간에 몸에 전기가, 전류가 흐름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이 약간 곪더라고요. 그래서 고름을 내 손으로 직접 짜냈습니다. 짜내고 한 며칠 있으니까 완전히 나았어요. 그래 지금 사진 안 찍어 보고 검사 안 한다고 하지마는 저는 지금 믿습니다. 지금 아물었어요.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 믿는 마음의 능력이란 건, 여러분이 못났든 잘났든 자기 마음이라는 건 얼마나 이 태산을 지고도 남음이 있고 이 우주를 뚫을 수도 있고, 탱크를 부술 수도 있는, 허, 이런 도리인지 모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도리입니다. 그런 건데 믿지들을 못해 가지고선 그렇게 허우적허우적거리니 마치 이 허공을 허우적거리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 단단히 믿음을 가져서 세세생생에 이 중세계의 통 속에서 벗어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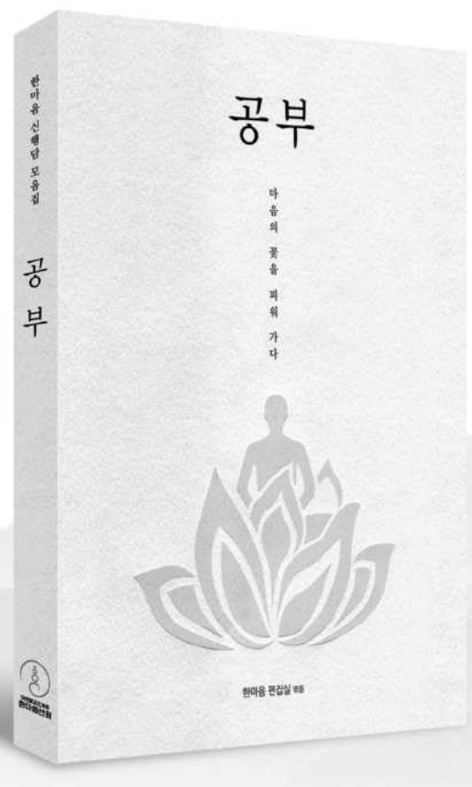
아이, 또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하시라고요. 없습니까? 하하하. 여러분, 이 질문은 질문대로 해야겠지만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믿는다, 내가 이거 틀림없이 여기서만이 할 수 있다는 그 (주먹을 쥐어 보이시며) 믿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딱 뒤집어 놓고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패기가 생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다리 절름발이고요, 한쪽 눈 장님이고요, 한쪽 귀 귀머거리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이저 광선이 그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지마는 이 마음의 심력만은 못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지만 50%밖엔 안 되니깐요. 이 부처님께서는 자기 아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똥 누고 밑을 씻어 줘 가면서 그렇게 높은 게 없이 그저, 하다못해 개가 염원을 해도 개로 화(化)해서 병을 고쳐 주시고 또 무명을 벗겨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떠한 개체의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전체의 한 덩어리의 한 불기둥을 표현해서 부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의 마음은 체가 없어서 그저 이 '도리천' 하면 천체 한 기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우리가 도반으로서 내가 더 높으니 네가 더 얕으니 이런 거를 떠나서, 한 기둥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심력을 똑바로 길러서 애고라든가 병고라든가, 어떠한 업식이라도 다 그냥 태워 버립시다.

※위 법문은 92년 12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마하몰 www.mahamall.co.kr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 현불 논단 |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



정운 스님
동국대 강사

불인요원 · 동파, 법거량 '유명'
동파 "좌선모습 어떠냐" 묻자
선사는 "부처님 같다"고 답해
같은 질문에 동파 "똥 덩어리"

거량 들은 동파 여동생 '일갈'
"부처의 눈엔 부처만 보인다"

정청래 의원 '봉이 김선달' 발언
불교를 '지능적 사기꾼' 인식해
탐욕의 눈으로 세상 보고 있으니
정 의원 자신이 '김선달' 아닌가

송나라 때, 소동파(1037~1101)는 '동파거사'라 불린다. 그는 당송 8대 문장가 중 한 사람으로 뛰어난 문인이자, 정치가이다. 동파는 22세에 진사 급제를 시작으로 정치인이 되었는데, 정치계에 휘말려 지방관으로 좌천되는 일이 많았다. 그가 10여 년간 지방에서 보내면서 곳곳마다 선사들과의 인연으로 참선이 깊었다. 동파는 임제종 황룡파 동림상총(1025~1091)의 법맥을 받았는데, 그와 관련해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한다.

운문종 오조 사계(五祖師戒, 운문문언의 손자뻘 제자)의 후신(後身)이라고 하는데(〈춘저기문〉) 진위 여부를 떠나 소동파가 그만큼 선과 밀접했음을 엿볼 수 있다.

동파는 불인요원(1032~1098) 선사와도 절친한 도반이었다. 동파가 황주(黃州)로 옮겨가 살면서 여산 귀종사(歸宗寺)에 머물고 있던 불인 선사를 만났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좌선을 하는데, 그가 문득 한 생각이 떠올라 선사에게 물었다.

"스님, 제가 좌선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거사님은 부처님 같습니다."

소동파는 스님의 말에 의기양양해졌다. 이번에는 스님이 동파에게 물었다.

"그럼 자네가 보기에 내 자세는 어떠한가?"

"스님께서 앉아 계신 자세는 마치 한 무더기 소의 똥 덩어리 같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동파에게 합장했다. 동파는 집으로 돌아와 여동생에게 낮에 선사와 대화했던 내용을 들려주며 어깨까지 으쓱거렸다. 한술 더 떠서 그는 자기 자랑까지 늘어지게 했다. 여동생이 다 듣고 나서 태연하게 말했다.

"오늘 오라버니는 선사에게 비참하게 패하신 겁니다. 선사는 마음속에 늘 부처 마음만 품고 있으니 오빠 같은 중생을 보더라도 부처님처럼 보는 겁니다. 반대로 오빠는 늘 마음속에 탐욕스런 마음만 품고 있으니, 육근이 청정한 선사를 보더라도 똥 덩어리로 본 것이네요."

앞의 이야기는 선사와 거사의 법거량인데,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근자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고 하면서 이를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였다. '봉이 김선달'은 지능지수가 높은 천하의 악명 높은 사기꾼을 지칭한다. 1700년간 이 나라 문화 창달을 위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불교계에 감히 내던질 수 있는 말인가!

인간이 짓는 업(karma)은 늘 품고 있는 생각(意業)이 몸(身業)과 입(口業)으로 표출되는 법이다. 두 달이 넘도록 사과조차 없다. 정 의원이 평소 살아오면서 '봉이 김선달 심보'를 품고 있으니, 그런 단어를 불쑥 내뱉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늘 탐욕스런 심보로 살고 있으니, 출가해 수행하는 승려들도 자기와 똑같은 '봉이 김선달'로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있으니, 과연 민중을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 국회의원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평가해볼 일이다. 솔직히 필자 개인 일이라면, 아예 상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전체 승가를 욕보인 일이니,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해마다 문화재 관람료 문제로 불교계가 편치 않다. 중국은 물가를 감안할 때 적지 않은 금액의 문화재 관람료를 입구에서 내고, 사찰마다 또 입장료를 낸다. 어느 나라고 문화재 관련해서 공짜는 없다. 하여튼 언제 '봉이 김선달'보다 더 심한 발언이 나올지 모르니, 이번 기회에 불교계의 단호한 주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좋은 말만 전하세요

11월 말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는 옷깃을 여미며 동장군과 함께할 시간이 돌아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8년간의 긴 연구 끝에 물을 얼려 그 결정체(結晶體)를 찍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물의 연구를 통하여 "모든 사물은 인간의 마음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이미지가 또 다른 어떤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같은 물일지라도 염소 소독을 한 수돗물은 원래 물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구조를 철저히 파괴해 깨끗한 결정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산사에 흐르는 자연수는 아름다운 결정체로 나타나 마치 물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물에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보여 주면 스스로 물도 자정(自淨)해 깨끗한 육각형 결정체를 만들어냅니다. 이와 반대로 '망할 놈'이라는 글자를 보여준 물은 시간이 흐른 뒤 그 결정체가 제멋대로 흩어져 찌그러져있다고 합니다. 이는 물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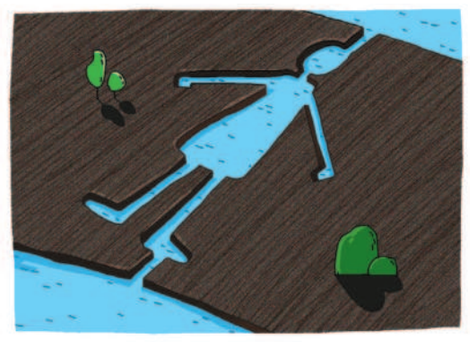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심지어 물은 음악도 들을 줄 안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을 물에게 들려주었을 때는 밝고 상쾌한 곡조에 어울리게 그 결정체도 아름답고 잘 정돈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을 들려주니 화려하고 아름다운 결정체로 나타납니다. 마사루 박사는 물의 결정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물도 사람처럼 마음을 읽고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과 좋은 글, 좋은 음악을 들려 줄 때 인간의 마음이 즐거워지듯이 물도 그 고마움을 안다고 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은 생활 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므로 우리는 어디서든 항상 긍정적인 말만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 함부로 버리는 오염물질들은 물의 의식을 흩뜨려 결국에는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말과 글들은 무생물과 미생물, 생물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도 좋은 에너지를 주는 말과 나쁜 에너지를 주는 말을 구분한다는데, 자신의 언어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말을 하다보면, '상대방의 기대에 어긋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좋은 쪽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사랑스러운 자신에게도 좋은 말, 희망적인 말을 들려주어야지요.

〈육지장사 회주〉

社 說

반복된 종교편향 더 이상 안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이 기독교 음악을 홍보하는 종교편향적 행정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급기야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캠페인 예산집행 정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조치에 나섰다. 조계종과 종교평화위원회는 물론, 중앙신도회와 포교사단, 대한불교청년회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불교계 기관과 단체들도 잇따라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캠페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불교계의 분노를 유심히 들여다 봐야 한다. 비단 한 가지 사안에 대한 반발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교계는 그동안 숱한 종교편향과 불교폄훼, 훼불로 몸살을 앓았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인 문제제기로는 상처가 치유될 수 없으며 나아가 재발방지 효과조차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비와 포용'만으로는 반복되는 문제들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지난 세월을 통해 습득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안을 단편적인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캐럴 캠페인'을 향한 불교계의 분노가 거세게 확산되는 현 상황, 그리고 이례적으로 법적 조치까지 취하며 강경대응을 불사하는 모습은 단순히 문체부를 향한 목소리가 아니다. 이는 그동안 인내와 희생으로 감내해 온 불교계를 무시한 데 따른, 그랬기에 여전히 종교편향과 불교폄훼를 반복하고 있는 정부와 일부 종교계를 향한 일갈에 다름 아니다.

더 이상은 불교계의 자비와 포용을 빌미로 삼아 공공기관을 활용한 틈새 선교 행보를 이어가선 안 된다. 한반도 오랜 역사 속에서 전통문화를 수호하고 지켜온 불교계를 향해 교묘한 왜곡과 선동 역시 이제는 멈춰야 할 때다.

사찰 종부세, 앞으로가 문제다

역대 최대 규모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사찰에도 적용됐다고 한다. 일명 '종부세 폭탄'이 사찰에도 투하된 것이다.

실제 조계종 제3교구본사 소속 한 사찰은 지난해까지 종부세로 1억 6000여만 원을 냈지만, 올해에는 4억 8000여만 원을 내야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3배 오른 수치로 최대 12배까지 오른 사찰도 있다고 한다. 반면 지난해까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가 올해부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찰도 30여 곳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찰 대상 종부세가 대폭 증가한 요인에 대해 조계종 재무부는 "법인(단체)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주택 부지로 임대 중인 사찰 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종부세가 부과됐고, 올해부터 시행된 '6억 원 기본공제 적용 배제'가 적용됐다.

그나마 1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종부세 이의신고 기간에 관할세무서에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조정받을 수 있게 국세청과 조계종이 협의한 부분은 다행이다.

급한 불은 껐으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다. 당장 매년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를 부과 대상 사찰이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번거로움을 떠나서 종부세가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찰 등 공익법인(단체)에 대한 합리적 세율 적용과 전통문화 유지 계승을 위한 전통사찰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사찰 찻집과 같은 휴게편의시설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국가의 과세 범위가 확장되는 만큼 종단 행정 시스템에 세무 전문 대응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한다. 변화하는 행정에 맞춘 종무행정의 변화도 필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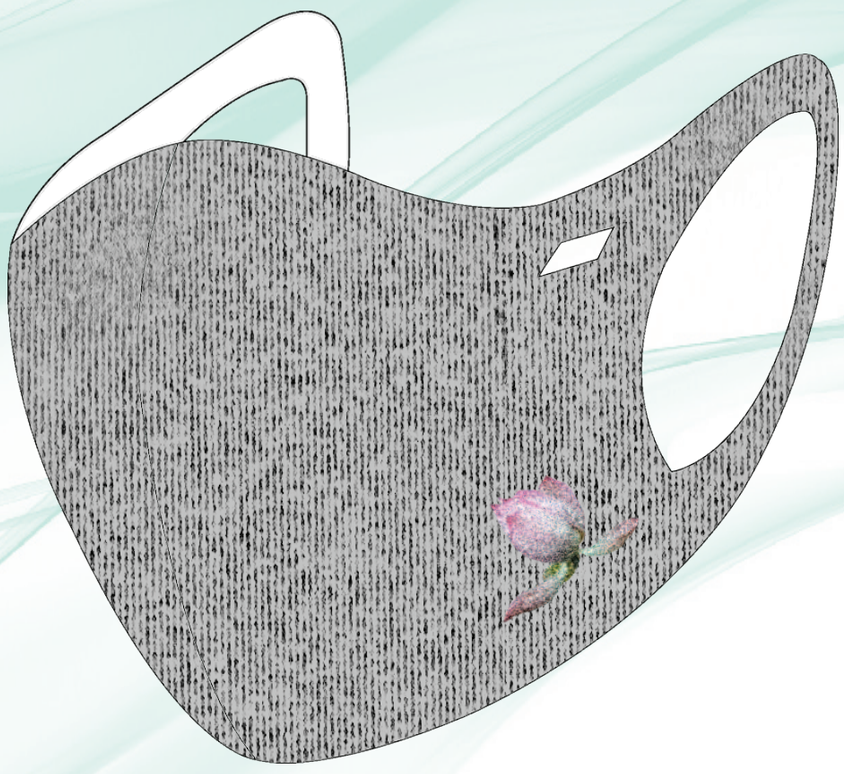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지금! 100만 방송포교사가 되어주세요
불자라면 누구나
BTN 붓다회
1855-0108 (공백팔)
매주 (화) 오후 1시 30분, (금) 오후 1시, (일) 오전 9시
BTN 붓다회 1855-0108 | 후원안내 농협 301-0187-2702-81 (예금주:무상사(불교TV))
olleh HD 233번 | tv HD 305번 | U+TV HD 275번 | skylife 181번 | 케이블은 지역별 방송사문의

또 다시 닥친 코로나의 위기와 공포!!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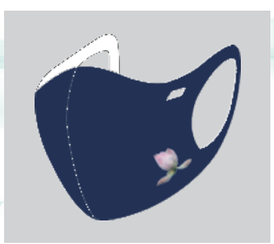
ANTI-BACTERIAL·DEODORIZATION·항균&소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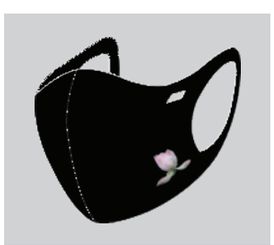
FDA 등록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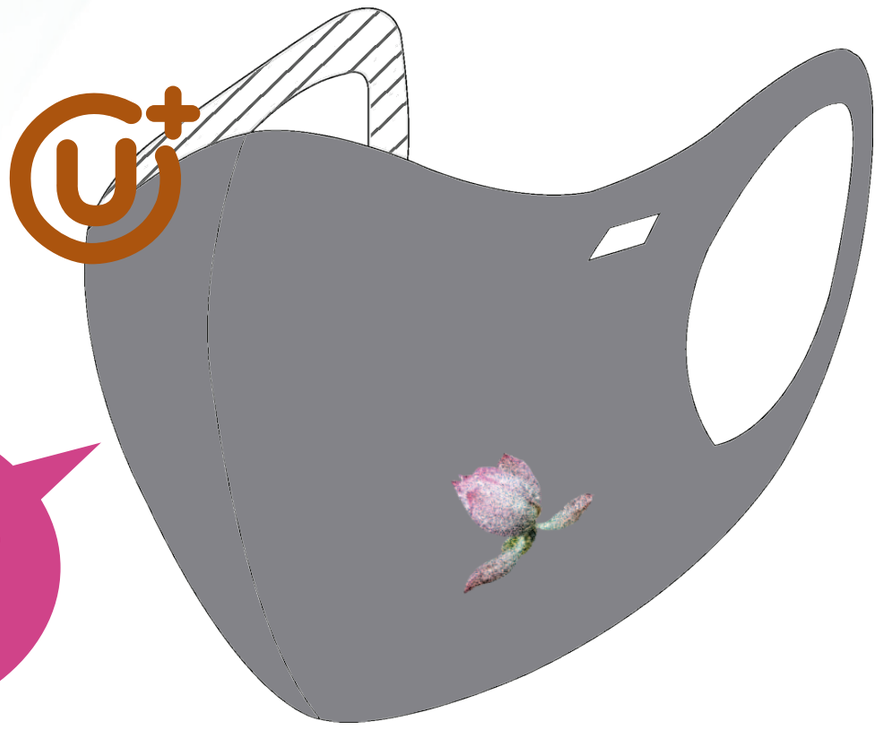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구리마스크는
일반마스크보다
항균력이
탁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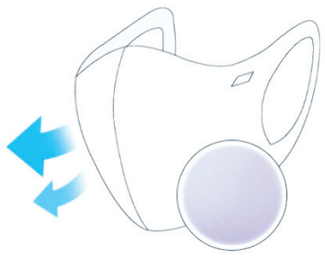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 색상 및 디자인 변경 가능하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